금주 법구

지혜있는 사람은 차츰, 조용히, 차근차근
정진해서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장인(匠人)이 쇠를 벼려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법구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친절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룡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18일 수요일(주간) 제290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여성불자

수적우위 불구 위상 정체
친목·신행위주 단체활동

여성불자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수적인 면에서 여성불자가 남성불자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한국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지반이 여성불자다.

그러나 이같은 위치가 여성불교의 수준과 비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도리어 '치마불교' '기복불교'라는 냉소적인 표현이 말해주듯 우리 나라 여성불자들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정체성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활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 산하 여성기구인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 움직임을 빼면 최근 2~3년간의 불교여성단체의 활동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나마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범불교여성운동으로 저변화시키지 못한 채 내부행사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65년 창립돼 70~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하던 대한불교부인회도 이젠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여성불교단체 모두가 하부조직이 부실해 활동 호흡이 짧고, 여성불자의 사회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없이 구호만 외치다보니 지속적인 운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남성 중심적인 종교라는 굴레에 쌓여 여성불자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여성단체들은 여성불자들 스스로 불교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체적인 불자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조직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만 한국불교를 떠받치는 실질적인 기둥으로서, 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로 가꾸는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를 이용하십시오.
▶자동이체 문의 전화 (02)737-0090

직장직능불자 '대법회 연다'

22일 동국대 만해광장…200단체 5000명 참석예상
'생명과 환경살리기' 주제…헌혈·장기기증서약도

전국의 5000여 직장 직능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대법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22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생명과 환경 살리기'란 주제로 열리는 전국 직장직능 불자연합대법회에서는 사물놀이·찬불가 공연, 단체 소개 등 다양한 식전행사와 법요식이 봉행된다. 이날 대법회에서는 주제에 걸맞게 환경살리기 걷기대회, 헌혈 및 장기기증서약, 북한어린이돕기 등 대사회적 자비행을 실천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의의 무엇보다 전국의 직장 직능 불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연합대법회를 계기로 각 직장 직능 불자들간에 활발한 교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직장 직능 불자들의 결속력과 불자라는 자긍심이 높아져 각 직장 직능 법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자회가 대부분 거사들이 중심인 만큼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거사들의 불교참여도 꾀할 수 있으며 직장인 불자들이 생명나눔, 환경보호운동 등의 보살행에도 적극 앞장서 불자의 원력을 사회에 회향하는 새로운 신행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배경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존재하는 직장 직능 불자회는 불교의 인적 역량을 높이고 불교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이후 직장 직능 불자회가 참체되기 시작해 98년에는 많은 불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몇몇 불자회만이 겨우 명맥을 잇는 실정이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직장 직능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전국직장직능신행단체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행단체 임원들은 각 직종별로 연합회를 구성해 법사 섭외 문제, 법회장소 확보 문제 등 직장법회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단체 감사원·행자부·경기도청 등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에 소속된 40여개 불자회, 서울·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10여개지회 초중고 교사들이 모인 전국교사불자연합회, 41개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전국병원연합회 10여개 불자회, 한국은행·농수축협 등 금융단 10여개 불자회, 전국 22개 지역 개인택시 불자회인 한국운불련, 한전·서울지하철공사 등 20여개 정부투자기관 불자회, 그 외에 일반회사 소속 불자회 등 전국의 200여개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5000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문화주권 수호 '국민행동'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1일 탑골공원에서 '문화주권 수호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 허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고영배 기자

보시금 소득공제 10%로 확대

올 연말정산때 적용

사찰에 내는 보시금의 소득공제 범위가 5%에서 10%로 확대된다. 국회는 10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 학술 사회복지설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1년 과세대상 근로소득(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보시금 공제액 100만원이 다시 근로소득에서 빠져 900만원이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는 또 이후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 소득이나 강연료 등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환경위원회령 시행

조계종 "친환경 종단운영"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7일 종무회의를 열고 환경위원회령을 제정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위원회령은 11조(부칙 1조 포함)로 구성됐으며, '종단의 친환경적 운영과 생활·문화·생태·종교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12명과 당연직 위원 3명(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으로 구성된다.

환경위원회는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찰환경 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 및 협의 △환경 관련 대정부 사항 △사찰환경 문제의 실태조사 및 대응 △환경보존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종단 환경교육 △민간환경단체와의 연대 △총무원장이 부의한 사항 △기타 종단 및 사찰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종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정성운 기자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은 13일 오슬로 소재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가진 수상자 발표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0년간 계속돼 온 한반도 냉전과정에서의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장을 여는 데 기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기는 김 대통령이 처음이며, 노벨평화상의 79번째 수상자가 됐다.

노벨위원회는 "김 대통령이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남북간 화해와 대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올림픽에서의 남북한 동시입장 등 가시적인 평화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시상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2월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조계종 축하메시지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수상자 발표 직후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김 대통령의 수상이 통일로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되고, 지역갈등과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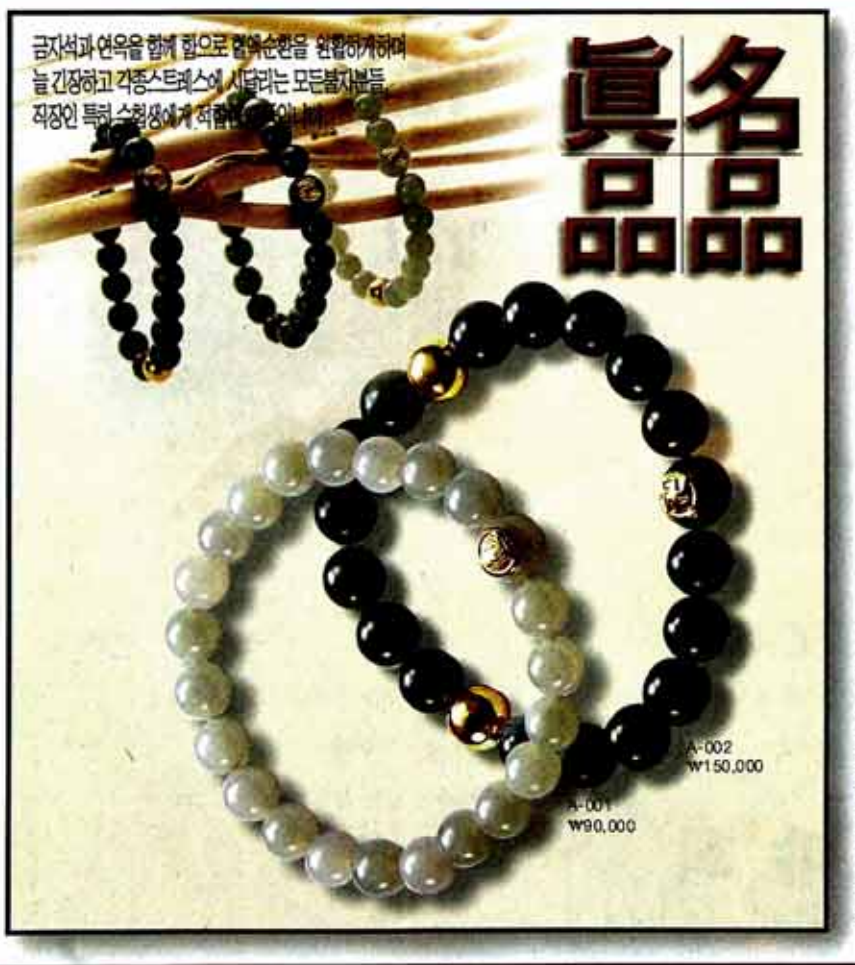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향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 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규모: 6~8명 정도
- ◆지원 대상: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안팎) 및 무릎 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동인천 길병원
후원 :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녀)



弗心의 깊이 만큼이나 깊고 찬란한 보석염주!
神祕한 氣가 발산하는 생명 에너지 광물!

弗心 의 깊은 마음으로 최상급의 연옥만을 갈고 닦아 예술로 승화시킨 보석염주를 탄생 시켰습니다.





옛 부터 오늘날 연옥이 신변 장신구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석처럼 연옥은 실리콘과 산소를 함유하고 이으며 또한 사람신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즉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서 갖추어야할 경도는 6~6.5이며 인성이 아주 뛰어난 보석입니다.
다른 제가의 옥 제품과는 비교가 될수없으며 모든 정성과 불심을 담은 귀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부처님상이나 관 자체 14K (Gold) 로 양각으로 이름답게 조각되어 고정홈에 삼엄하게 튼튼한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 본 제품의 모든사항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城君宝石 SUNG CHANG JADE C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5-1
TEL : 737-6334 FAX 732-6336
http://www.scjade.co.kr

사 설

새싹 포교의 중요성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싹 불자의 오늘'을 통해 본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불행히도, 대단히 어둡다.

정교한 논리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들 필요도 없다. 일상의 경험에 비춰봐도 명백한 사실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행사나 대형불사에 들이는 노력과 비교해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어린이 법회를 여는 사찰의 수를 봐도 그렇다. 서울지역의 경우 조계종단에 소속한 320개 사찰 중 어린이법회를 여는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늘 되풀이되는 '교사·교재·프로그램·재정 부족…' 따위의 부족 타령은 변명 이상의 설득력을 행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늘 뒷전으로 미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어린이 포교단체들의 노력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상당히 밝게 한다.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24일부터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을 개강할 예정이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도 어린이법회의 성전이라 할 통일 〈어린이 법요집〉을 발간했다. 연내에 〈어린이법회 지침서〉도 낼 계획이라 한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제부터는 '부족'을 이유로 '당위'를 외면하는 개개 사찰의 무책임한 태도는 설자리를 잃게 됐다. 이제부터라도 포교 일선에 선 사찰에서는, 진짜 부족한 것은 인적·물적 자원이 아니라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와 인식 부족'임을 자각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에 힘 쓸 것을 기대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스템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들의 자발적 노력이다.

차제에 또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양질의 교사가 배출되고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개별 사찰의 형편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나름의 최선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과 사찰이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이다. '즐거이 놀며 배울 수 있는 곳'보다 더 훌륭한 교육의 장은 없다.

공무원불자련 창립 환영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축하를 보낸다. 너무나도 꼭 필요한 것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를 기쁘게 한다.

현대 사회는 이전의 가정 중심의 사회와는 달리 직장에서의 삶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이다. 당연히 신앙 생활도 가정과 직장 사이의 단절이 없이 이어져야만 하고, 그럴 때에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계는 더더욱 직장인의 신행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타 종교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불교의 직장 신행 운동은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교의 사회화를 통해 이 땅에 바로 불국토를 건설하여야 할 우리의 이상이 구체적 현실성을 갖지 못하고 이념 속에서만 표류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불자연합이 창립되었다 하는 것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타 직장의 신행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국가의 공복들의 신행운동은 곧바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직장들의 신행운동에도 고무적인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소중한 태동이 보다 더 큰 힘으로 자라나도록 그 공무원 불자들이 큰 서원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이요, 교계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통해 공무원 불자연합을 통해 직장 신행운동이 높은 차원으로 비약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그리고 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가 지속되어, 공무원들의 신행운동이 미래의 불교계를 푸르게 가꾸고 직장 신행운동이 사회를 맑히는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큰 나무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의 위없는 법에 의지하되 불교의 커다란 관용성을 통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버리고, 모든 종교와 화합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를 보다 맑고 밝게 바꾸어 나가는 직장 신행운동으로 커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달라이라마 방한" 여론 뜨겁다

종교·정치인등 입국허용 선언문 잇달아

외국 저명인사 10여명도 대통령에 친서

달라이 라마 방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문화예술인·영화계·방송언론계·여성계·정치인 각 33명이 잇달아 달라이 라마 방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외국의 저명인사들도 잇달아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에 지지 선언을 보내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에게 달라이 라마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한준비위원회는 11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경진년 문화주권수호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달라이 라마의 11월 16일 한국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종교인 333인 선언'과 '문화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다.

3백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이어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대사관 앞에서 '삼전도의 극치'란 제목의 퍼포먼스를 공연(동국대 풍물패)하고, "중국 정부는 주권을 가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존중되어야 할 외교적 원칙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정신문화적 이익을 위해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중국 주룽지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방한준비위는 오는 29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문화주권수호를 위한 범국민궐기대회'를 열어 보다 강도높은 달라이라마 방한성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방한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서 7일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김원웅 오세훈(한나라당), 정범구(민주당)의원은 소개서에서 "달라이 라마는 21세기 인류가 가야 할 평화를 실천해 온 종교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기에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청원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및 정치인 33명도 10일 달라이 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 회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방한준비위원회는 10일 달라이 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수호 서명운동에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개리 스나이더씨 등 외국의 저명인사 10명이 메일을 통해 동참해왔다고 밝혔다. 서명운동 동참 인사에는 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머레드 맥과이어씨를 비롯해 나탄 카츠 미국플로리다대학교수, 토머스 팀트 신부, 잔 앤더슨 독일뮌스터대학 교수, 플로리다 국제대학 종교학 선임교수인 나탄 카츠, 독일 뮌스터 대학 화학분석과 교수인 존 앤더슨 박사 등이 포함됐다.

거센 방한여론에도 불구하고 주룽지 중국총리는 최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총리는 한국정부의 이른바 '중국 눈치보기'여론과 관련 "수교국가의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것은 눈치보기가 아닌 국가간 신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한산 태고사 성역화

태고종 부지 4천여평 매입…보우스님 주석처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조인 태고 보우국사 부도(보물 749호)와 탑비가 봉안돼 있는 북한산 태고사를 성역화하기 위한 불사에 돌입, 그 기초작업으로 태고사 주변 임야 3600여평과 밭 600여평 등 총 4200평을 매입했다. 이로써 태고종은 종단토지로 돼 있던 기존의 경내 부지 2천여평을 포함 모두 6천여평을 확보하게 돼 태고사 성역화의 기틀을 확보했다.

태고사는 태고 보우스님이 중흥사에 주석하면서 5교9산을 하나로 통합, 원융불교를 실현한 이후 개인적인 수도처로 창립한 유서깊은 사찰이다.

이경숙 기자

새스님 106명 탄생

조계종 교육원(원정 일면)은 10일 송광사 금강계단에서 특별구족계 수계식을 갖고, 비구 93명 비구니 13명등 총 106명의 스님을 배출했다.〈관련인터뷰 4면〉

이에 앞서 승가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는 4일 송광사에서 제20회 구족계 수계산림 지원자 110명을 대상으로 4급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김원우 기자

봉암사 조실 진제스님 추대

12일 법회 2천명 참여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진제스님 추대법회가 12일 봉암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과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알리는 타종과 주지 효광스님의 인사말, 축사, 진제스님 약력소개와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옹스님은 축사를 통해 "몸을 뒤쳐 한 모금에 동해물을 다 말리니/온 세계의 산과 강을 흔들어 놓았네/진흙에 화하고 물에 합함에 사람이 알지 못하니/온 나라에 쇠나무꽃 향기가 가득하도다"라고 설했다.

진제스님은 조실추대 법어를 통해 "여래지에 이르면 세간법이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라"고 설하고 "세상을 맑히는 도인이 봉암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법어전문·인터뷰 12~13면〉

이에 앞서 봉암사 주지 효광스님은 인사말에서 "다시금 선화가 만발하여 천하총림을 풍요롭게 할 기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도도한 선해(禪海)에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미래의 노벨평화상은…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사업회 출범

봉행위장 성초 통리원장

진각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 봉행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진각종은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187회 원의회를 개최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고 봉행위원장에 성초 통리원장을 선임했다.

기념사업회는 오는 2002년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에 맞춰 새 세기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포교, 교육, 복지 등 3대 종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집행위원장 회정대종사는 "종단 스승들의 의견과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국립공원 입장료폐지"

재가연대, 환경부에 요구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6일 환경부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앞으로 보낸 '국립공원 현안문제 관련 의견서'를 통해 "연인원 4천여만명이 국립공원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다. 국민 여가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연간 2백억원에 불과한 공원입장료 수입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과 정상화 모색

선학원 대책위 구성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과의 관계 정립에 관해 협의할 현안대책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위원에는 선근(위원장, 상무이사), 동진(경북 망월사 주지), 성우(서울화곡동 보광사 주지), 법운(광명 청룡사 주지) 스님 등 4명을 위촉했다.

선학원은 조계종 법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혜창)에서 지난 2일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옴에 따라 현안대책위를 구성했다. 선학원 현안대책위는 빠르면 이달 말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조계종과의 대화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서울 문화벨트제외 항의

조계사, 시장면담등 추진

조계사(주지 지홍)는 12일 종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문화재 벨트에서 제외된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나서기로 했다.〈289호 1면 참조〉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이 자리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계사가 서울시 문화벨트 사업에서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중의 힘을 집중하여 즉각적인 대응으로 개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종무실장은 "서울시에서 문화재벨트 사업을 추진하며 별도의 팀을 구성했었다"며 "자문위원들도 조계사가 당연히 문화벨트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종 확인을 못한 것이 불찰이다"고 보고했다.

조계사는 13~14일 문화전문가로 구성됐던 문화벨트 자문위원들에게 조계사가 배제된 정황을 듣고 사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서울시와 공식접촉을 갖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 불교의식 교육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병기)은 21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1층에서 불교의식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사 포교능력배양과 의식집전의 통일화로 포교현장에서 포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불교의식교육은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8회에 걸쳐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된다. 교육에는 총 150명의 포교사가 참여한다.

김병기단장은 "포교사의 경우 의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습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문위주의 의식을 최대한 한글화하는 한글의식수범을 마련해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생활불교·실천불교를 지향하는

동산반야회 창립 제18주년 기념 대법회

청화큰스님 서울 초청 법회



11월 4일 기념특강

念佛과 極樂世界 大法會

염불선으로 광명을 밝히시는 청화큰스님을 모시고 무진년 조상천도행사와 '염불과 극락세계' 주제의 대법회에 불자님들의 수회동참 바랍니다

제 1부 : 무진년 조상 천도의식 (한글의식집전 : 12시)
(개인별 천도를 원하는 분은 미리 접수 바랍니다.)
제 2부 : "염불과 극락세계" 대법회 (오후 2시)

- 일 시 : 2000년 11월 4일(토) 12시
- 장 소 : 동산법당 및 동산교육회관
- 설 법 : 청화큰스님 (전남 곡성 성륜사)
- 교통편 : 전철 3호선 안국역 하차
- 문 의 : ☎(02) 732-1206~8

무진장스님의 유마경대강좌

11월 11일 기념특강

"오늘날 유마힐 거사의 출현을 희구한다"



- 일 시 : 2000년 11월 11일(토) 오후 4시
- 장 소 : 동산교육회관
- 설 법 : 무진장큰스님

- 유마힐의 도량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도량에서 오는 길이야"
"도량은 어디입니까?"
"直心이 도량이며, 深心이 도량이며, 菩提心이 도량이다".

유마경 대강좌개설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 (안국동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2000년 11월 5일(일) 오후 6시
4.입 학 금 50,000원

※등록하신 모든 분들께 유마경 교재와 기념책가방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06~8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목어

불안한 마음 다스리기

GNP 1만불 시대, 그러나 IMF가 할퀴고 가면서 만연된 불안한 마음은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럽다. 수많은 실직자, 노숙자, 결식아동 등의 고통, 경제불안으로 인한 구조조정, 정리해고, 워크아웃 등의 회오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슬이 시퍼렇다. 그 싸늘함은 시민들의 어깨에 짐으로 올라앉아 한숨소리만 하늘을 찌르고 근심만이 얼굴에 가득하다.

반면에 국민의 혈세로 각국에 인심쓰고도 모자라 오로지 싸움과 먹칠하기, 서로 겨묻은 개 욕하면서 으스대는 정치인과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어디 나라 출신인지 궁금하다.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지식층까지 오래된 불신풍조와 이권다툼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가늘어질대로 가늘어져 목조차 가눌 힘이 없는 국민들은 또 언제 어떤 큰 일이 생길지 초조한 심정뿐이다.

이와 같이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교경〉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흐트러진 마음은 마치 꿀 그릇을 든 사람이 꿀만 보고 좋아서 이리저리 날뛰기만 하고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고삐 없는 미친 코끼리나 나무를 만난 원숭이와 같아 이리저리 뛰어 붙들기 어려운 것과 같다. 이것을 빨리 꺾어 방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잡지 못하면 모든 착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이 제아무리 혼탁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도 굴단지(욕망)에 정신 팔지 말고, 고삐 없는 미친 코끼리(불안)처럼 비틀거리지 말고, 나무를 만난 원숭이(초조)처럼 날뛰지 말고 욕망에 불타는 마음을 잘 달래어 안정시켜야 한다. 어떤 일이든 마침내 자기 마음을 항복 받아 안정된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때 반드시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기획연재

관람료 사찰과 포교

①포교는 없고 관람만 있다
②포교 '안하나' '못하나'
❸투자없이 미래없다

수입중 일정비율 포교비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의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교가 보유한 문화와 문화재등 포교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것과 대면을 통한 권유 활동을 꼽고 있다. 이는 매년 국민의 절반 정도인 2100만명이 거쳐가는 관람료 사찰에서의 포교가 더없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국사를 찾은 국제포교사들이 스님으로부터 법당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포교 전략 개발

그럼에도 관람료 사찰의 경우 이러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전담부서와 소임자가 거의 없으며, 안내 팸플릿 비치 등 기본적인 자료와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반인들은 사찰을 찾더라도 그 속에 깃든 의미와 불교의 진리를 접할 수 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승가대 류승무교수(포교사회학과)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포교'라는 논문을 통해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효율적인 포교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절대절명의 과제인 포교활성화를 위해 한국불교의 고유 특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포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교전문가들은 포교비 책정, 전문포교사 배치, 팸플릿제공, 입간판 정비, 관람객 상담, 불교체험프로그램 실시, 사이버포교, 영상포교실 설치, 캐릭터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교비 책정… 강원도 모사찰의 경우 포교비로 책정한 것이 년 2백만원에 불과해 리플릿 제작조차 못하고 있다. 관람료의 대부분이 일반경상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관람료의 일정액을 관람객 포교비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단차원에서 관람료중 일부를 포교비로 징수하여 포교사단 등 유관기관과 사찰을 엮는 포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포교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포교사 배치… 포교사단의 포교안내팀에 속해있는 포교사를 관람료 사찰에 배치한다. 비원이나 도산서원처럼 1~2시간에 한번씩 일정시간을 정해 사찰안내시 설명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문포교사가 배치됨으로 인해 사찰의 관광지화에 따른 무질서와 소음등 수행 방해요소도 제거할 수 있다.

"포교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입장권 대신 안내 리플릿"

▲리플릿 제공… 사찰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찰의 역할을 인식 시켜주는 차원에서 안내 리플릿은 필수다. 입장권을 리플릿으로 만들어 사찰연혁, 창건설화, 당우배치, 역대고승 소개, 문화재설명, 사찰예절을 수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입간판 대대적 정비

▲입간판 정비… 기존의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각 당우나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풀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문화재설명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불교적인 의미까지 알려줄 수 있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관람객 상담… 신도중 종단의 불교상담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로 각 사찰별로 상담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불자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 개설… 관람료사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이 참여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발우공양, 연꽃, 불구 만들기, 불교의식, 다도, 탁본, 불교무술, 사찰음식 시연 등이 있다. 예불과 발우공양 다도등의 간편한 프로그램 2~3개를 연계하여 2시간 정도에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사이버포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이버봉사단을 구성하여 사찰소개, 강연회, 문화강좌 등 대중행사를 널리 알리고 사찰에 관심을 보였던 관람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도 한다.

▲영상포교실 설치… 사찰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실 겸 영상포교실을 마련해 사찰소개와 불교 홍보비디오를 상영하여 사찰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소책자 제작 판매… 사찰의 역사와 보유 문화재, 역대스님들의 행장, 사찰 문화재 소개, 사찰 신행회 입문방법 그리고 불교기본교리를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 판매한다.

▲캐릭터 및 관광기념품 제작… 사찰의 문화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조형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당해사찰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한다. 또 그 사찰만의 독특한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여 관람객들이 방문한 사찰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게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체험프로그램 개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북한 불교포교기금 마련등 관람료 사찰이 포교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교계 여론이다. 근본적으로 관람료가 사찰재정에만 대부분 쓰이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포교사업으로 회향돼야 관람료 사찰이 올바로 설 수 있고, 사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다는 풀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관람료사찰이 '신행'과 1600년 한국불교 역사를 이어온 정신문화의 발원지와 회향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원우 · 도필선 · 김주일 기자 (wwkim@buddhapia.com)

"정화다"-"분규다" 조-태 평행선

태고종 홈페이지 종단사 서술 '파장'

태고종 홈페이지의 종단사 서술을 둘러싸고 발생한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의 갈등 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종단이 자칫 감정대립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은 9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조계종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계종 폄하·비난'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은 "조계종을 폄하·왜곡할 의도는 없다. 당시 폭력에 의해 사찰을 빼앗기고 스님들이 쫓겨난 것은 사실"이라며 "조계종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면 양측에서 근·현대 불교사를 공동으로 검토, 사실인 부분만 게재하는 것을 조계종에 제안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태고종에서도 조계종 홈페이지의 50~60년대 불교사 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대처승은 승려가 아니고…" "대처측 일부가 통합종단에 불복, 70년 태고종을 창설했다"는 내용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창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종단 명칭을 바꾼 것일 뿐"이라는 것이 태고종측의 입장이다.

조계종은 이 문제를 두 종단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10일 "조계종과 태고종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전제하면서도 "그쪽에서 쓴 종단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종단을 폄하하며 자기 종단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철스님은 또 "우리의 의견을 문서로 달라는 것은 논쟁을 하겠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은 상대를 향해 직접 의견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종단의 입장차가 커 종단사 서술을 둘러싸고 '정화냐-분규냐' 하는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만든 당사자들이 생존하고 있어 성숙한 토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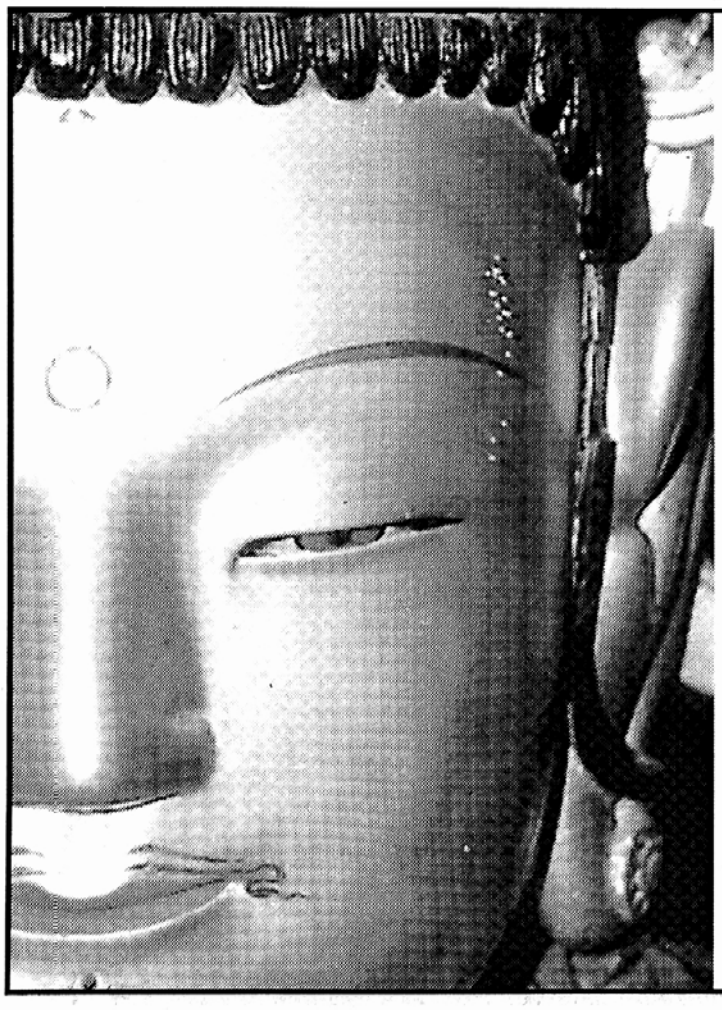
종교대표 올내 방북 불투명

이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7대 종교대표들의 방북이 올해 안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올해 안 방북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장관급 회담, 언론사 사장단 초청, 한라산-백두산 교차 관광, 노동당 창건 55돌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른 데 이어 이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말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정치성이 상대적으로 옅은 경평축구대회를 열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11월경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으로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연내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종교인 방북 시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정성운 기자



관세음 보살님 우담바라로 나투셨네

108일 친견 및 무차정진 대법회

청계산 청계사의 관세음보살님 상호(얼굴)에서 3,000年에 한 번 핀다(法華經)는 우담바라 꽃이 21송이나 피었습니다. 우담바라는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정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라는 거룩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청계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담바라 친견 108일 무차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서정대 큰스님을 大法師로 원로 대덕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108일 동안 용맹정진과 친견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께서는 세세생생 만나기 어려운 이 법회에 동참하시어 참 불법을 깨닫고 속히 성불하는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입 제 일 : 불기 2544년 10월 17일(음, 9월 20일) 화요일 10시
▪ 회 향 일 : 불기 2545년 2월 1일(음, 1월 9일) 목요일 10시
▪ 동참문의 : 청계사 종무소 ☎(031)426-2348, 2221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김종상 합장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031)426-2348 Fax(031)426-3666

일주문

소년소녀가장 11명에 장학금



현해 월정사 주지 스님은 13일 월정사에서 평창군내 소년소녀 가장 11명에게 장학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220만원을 지급했다.

해인승가대 동문회



혜총 해인승가대학 동문회장은 25일 오후 1시 해인사 관음전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02)720-8113

'생활선과 건강' 법문



도업 원효학연구원장(동국대 불교문화대 교수)은 19일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생활선과 건강'을 주제로 법문한다.

호스피스 정토마을 준공



능행 청주 정토마을 원장은 22일 9시30분 제주 약천사 주지 혜인스님을 증명법사로 불교계 최초의 무료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 법당 봉불식 및 준공식을 갖는다.

성철 큰스님 주제 강연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스님은 12일 백련불교문화원이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여는 성철 대종사 열반 7주기 추모법회에서 '나의 은사 성철 큰스님'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일 철학대회 총장회의 참석



손제석 위덕대 총장〈사진〉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6~7일 일본 불교대학에서 열리는 한·일철학계대학총장회의에 참석했다.

21세기 불교음악 세미나



호진 동국대 불교사회 문화연구원장은 18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4층 소강당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의 과제'를 주제로 가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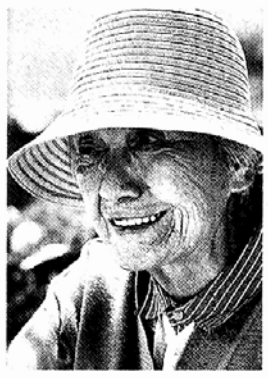
회갑기념 논문집 발간



박영길 세계국제법학회 부회장(동국대 법과대 교수)은 12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회갑기념 논문집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말서 민족근원 찾았어요"

한글날 은관문화훈장 수상 이남덕 씨



출가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온 이남덕 교수(80·전 이화여대 국문과)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한글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1942년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어 연구에 뛰어들었던 이남덕 교수는 1958년부터 1986년까지 30년간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음양철학을 이용한 의미체계와 음운법칙 분석을 통해 국어의 어원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국어와 일본어의 연관성을 밝혀내. 그러한 업적을 생각하면 이번 훈장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평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연구를 〈국어 형태소 분류법〉〈15세기 국어의 서법연구〉〈한국어어원연구Ⅰ~Ⅳ〉 등의 저서에 담았다.

이 교수는 수상 소감을 묻자 "훈장이야 뭐…"라고만 답했다. 대신 "일제시대 전란기를 거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지. 그때 민족이 바로 확대된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민족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우리말 어원 연구에 매달린 것도 그때문"이라며 국어연구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남덕 교수는 1986년 이화여대를 정년퇴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철두철미한 불교에의 귀의.

"우리말 어원을 연구하면서 향가나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 등 불교경전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을 접하다보니 불교에 눈을 떴고 70년대 인도여행을 통해 깨우침을 받았어. 새 인생을 살자고 결심했지."

기념식 행사장에도 법복을 입고 나온 이 교수는 5년전부터 충남 계룡산 갑사 대자암에서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수상 직후 설악산 영시암에 들러 평소 친분있는 스님을 만나고 곧 대자암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남덕 교수는 완벽한 학자에서 철저한 수행자로 변해있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노벨 문학상 받은 中 가오싱젠

불교사상 바탕 인간본질 탐구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삶, 죽음, 고독 등 인간의 문제를 다루어 온 중국 출신의 소설가 가오싱젠(高行健·60·사진)이 21세기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2일 "가오싱젠은 보편적 타당성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언어적 독창성이 가득 찬 작품으로 중국 문학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40년 중국 장시(江西)성에서 태어난 그는 1987년 당국의 박해를 피해 출국, 1988년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파리에 정착했다. 현재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다.

그의 대표작은 1996년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돼 호평을 받은 〈영혼의 산(靈山)〉. 중국 남서부를 여행하고 쓴 이 소설에서 그는 삶, 죽음, 고독 등의 문제를 유배자 관점에서 접근, 내면의 세계와 자아를 탐구하고, 이를 보편적 진리로 승화시켰다.

한신대 유세종 교수(중문학)는 "그는 모든 형태의 권력, 폭력, 교훈, 계몽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교적 사유를 연상케 하는 '대해탈(大解脫)'의 경지를 인간의 목적지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 사

불교방송 △보도위원: 김정특(前 보도부장) △방송홍보 및 뉴미디어 연구위원: 구태서(前 기획심의부장), 박정원(前 아나운서 부장 직무대리) △PD 겸 제작위원: 진영조(前 포교제작부장 직무대리), 김학주(前 교양제작부장 직무대리) △방송기술위원 및 뉴미디어 기술위원: 백낙천(前 기술부장)



실천승가회 금강산 정진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3~6일 금강산에서 '2000 정진도량'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정진도량에는 지선(상임지도위원) 효림·성관·도현(부의장) 선혜(보덕사 주지) 법안(종책위원장) 장적(집행위원장) 스님 등 회원 32명이 참가했다. 기행중에 열린 선상강연회에서는 효림스님과 김찬구(주)화인통상 대표가 각각 강연했다.



제18회 불미전 시상식·전시회

제1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 개막식이 1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3층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 정경용씨를 비롯 수상자 전원과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총무부장 원택스님, 문화부장 혜자스님,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석정부대 호국 홍불사 낙성법회

김포 석정부대 호국 홍불사는 8일 군법당 봉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보운 청암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혜인 삼화불교대학장, 김기병 조계종 포교사단장, 손병철 군법사 등 군 관계자 및 신도 7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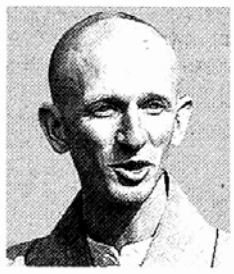


우리는선우 창립 9돌 수계법회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는 창립 9주년을 맞아 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기념 법회 및 화엄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실상사주지 도법스님과 김종서 전 교육개혁위원장, 건국대 성태용 교수, 회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는 엄청난 보물"

조계종 특별구족계 받은 미국인 무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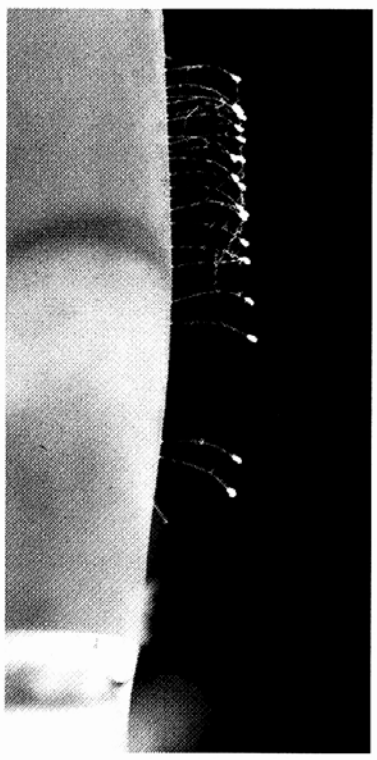
79년 승산스님의 '할 뿐'(밥 먹을 땐 모든 생각을 버리고 밥을 먹을 뿐)이라는 한마디에 출가, 참선납자의 길로 들어선 미국인 무량스님. 10일 송광사에서 특별구족계를 받아 정식 수행자가 됐다.

"여러 스님들과 함께 계를 받아 기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에게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의 일입니다."

깊은 산 속의 암자와 토굴이 가장 마음에 든다는 무량스님은 LA 교외에 우리나라 전통사찰 양식의 태고사 건립 불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에게 한국불교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려준 스승이다.

"잔통의 뿌리가 없는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라고 진단한 무량스님은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주는 한국불교는 엄청난 보물이며, 10년 후 미국의 큰 종교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청계사 관음상에 신비한 '하얀꽃'

Focus

지난 97년과 올해 7월 경기 광주 우리절과 대전 광수사에서 피었던 신비스런 '하얀 꽃'이 경기 의왕 청계사(주지 종상)에도 출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청계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극락보전 관세음보살상 왼쪽 눈썹주변에 21송이의 이름모를 꽃이 피었다는 것. 이 꽃은 약 1센티미터 크기로 각 줄기마다 녹두알만한 작은 꽃이 피어 있다.

청계사는 이 꽃에 대한 불교학자와 스님들의 고증작업('우담바라' 여부)을 진행하면서 108일간 정진주간을 설정, 지난 17일부터 기도에 들어갔다. (031)426-2221

김재경 기자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부처님의 혜명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
참사람 육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혜명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개교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사람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동국대는 불교학을 축으로하는 한국학과 정보통신을 축으로 하는 정보통신공학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등 **BK21사업단 선정**, 활기차게 건설되고있는 **불교종합병원**, 목전에 둔 **국제원효불교전서 편찬**, 서울 불교대학원에 이은 **경주 불교문화대학원 개원**, **벤처창업센타 사이버대학**과 **영상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등 동국대학교는 새천년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국대학교를 주목해 주십시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綠園
동 국 대 학 교 총 장 宋錫球

공무원 불자연합회 닻 올렸다

감사원·농림부 등 41개 불자회 참가

월정사서 창립법회…회장 노옥섭씨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감사원, 행자부, 농림부, 경기도청 등 41개 정부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불자회 임원단들은 지난 7~8일 월정사에서 개최된 전국공무원불자 합동성지순례법회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회 창립은 다른 종교를 가진 공무원들과 달리 자신이 불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던 공무원불자들이 스스로 불제자임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연합회 창립이 공무원사회에 알려지면 더 많은 공무원불자들이 불자임을 밝히고 신행활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개별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합회 초대회장에 노옥섭(감사원 불자회장), 부회장에 하재춘(행자부 불자회장)·나승렬(농림부 불자회장) 이근홍(경기도청 불자회장)·최익두(부산지역연합 불자회장)·김휘동(경북도청 불자회장)· 임종철(전북도청 불자회장), 사무국장에 안홍부(감사원 불자회 총무)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삼보에 귀의하여 불법을 실천하는 참된 수행자가 된다 ▲세상을 바른 견해로 편견없이 바로 보고 더불어 살아간다 ▲가족과 동료를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을 생활화한다 ▲옳은 일에는 용기있게 대처한다 ▲올바른 공직수행으로 나라의 발전과 겨레의 번영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연합회 결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우선 22일 펼쳐질 전국직장직능불자연합대법회에 적극 동참하고 조만간 실무회의를 열어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해 대내외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옥섭 회장은 "불자 공무원들이 연합회 창립으로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공무원이 되어 불법을 널리 전파하고 사회를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월정사에서 창립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들은 올바른 공직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날 창립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법어를 통해 "앞으로 공무원 불자들이 불법홍포와 중생교화의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 직장내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부처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여 삼보와 불교 전체를 외호하는 강력한 호법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635명이 참석한 합동성지순례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상원사 참배, 합동수계식, 회향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심 무장…더욱 친절봉사"

노옥섭 초대회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연합회가 첫발을 디디는 만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전국공무원불자 합동성지순례법회에서 초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으로 선임된 노옥섭(감사원 기획관리실장)씨는 "연합회가 순수한 신행단체인 만큼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고 연합회 조직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회장은 자신이 불자이면서도 스스로 불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노회장은 전국 공공기관에 불자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불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지순례, 수계법회를 통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회원들의 신심을 키워 직장내에서도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대학시절 불교서적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노회장은 "구성원들이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만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 연합회를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신행모임으로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모임에선

부산청년산악회 산행

부산청년불자산악회(회장 김종성)는 8일 산행법회를 다녀왔다. 봉화 청량사를 참배한 70



여명의 산악회 회원들은 법회를 마친 후 청량산을 등반했다.

청량리기관차회 출판회

철도청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는 8일 대원사 법당에서 '법우회 법당 대원사 개원 4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법요집(불교요전) 출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11일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중계노인복지관 효도 나들이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했다.

석불선양회 창녕순례

한국석불선양회는 8일 경남 창녕읍 석불친견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48명의 회원들은 가을비가 촉촉이 내려 관음사 원음각에서 법회를 봉행한 후 화왕산 반야용선대 석조 석가모니불을 친견했다.

천불동 금산서 전국모임

천불동(대표시샵 김준호)는 10월 전국모임을 14~15일 충남 금산군 진산휴양림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은 '천불동의 지나온 길과 나아가 할 길'에 대한 토의, 영동 영국사 참배, 대둔산 산행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안산승무소 사찰순례

안산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김인호)는 15일 계룡산 갑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지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인터뷰

하이텔불동 새시샵 이성모씨

"재미있는 동아리 기대하세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복한 동네라는 모토아래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3일 강화 전등사에서 열리는 장애법우 가족들이 행사인 칠연회모임에서 정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제 11대 하이텔불교동호회(이하 하불동) 대표시샵 이성모(56·춘천 동제한의원장)씨는 "회원들이 재미와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에서 교리공부와 신행활동을 강화해 하불동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 시샵은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6천명이던 하불동 회원이 지금은 절반수준으로 줄어 당분간 회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유적답사, 성지순례 등 테마모임을 실시해 기존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신상을 지역과 연령별로 공유해 오프라인상의 모임에도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할 생각이다. 또한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회비로 군부대위문,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통신상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깃든 소중한 법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샵은 게시판의 주옥같은 글들을 모아 조그마한 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이 시샵은 96년 강원지역 모임을 결성하고 3년 동안 지역장으로 활동해 왔고, 매일 아침 춘천 보문사 아침예불에 동참하는 등 신행과 수행을 병행하며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알림

▲무료 토요서당 개설=자영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무료 한자교육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무료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02)458-1664~5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사무실 이전=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는 가정폭력상담소(02-735-0406~7)를 개설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8-5586

▲은평가족 문화축제=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8일 오후 5시부터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은평가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가족영화 상영 및 어르신 패션쇼, 가족레크레이션, 먹거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2)385-1351

▲풍경소리 사무실 이전=지하철 포교게시판 '자비의 말씀'을 운영하는 풍경소리가 13일 보문종 보문사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이전 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번지이고 대표전화는 (02)736-5583 그대로 이다.

강좌

▲수선회 참선교육=수선회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계사후문 원당빌딩 2층 본회 법당에서 참선교실을 개최한다. 참선의 자세와 종료, 선종발달사, 화두의 중요성과 참구법 등을 교육한다. 수업은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02)732-5960

▲선학대강좌=선학원 중앙선원은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앙선원 3층 대법당에서 제 6회 추계 선학대강좌를 개설한다. 교재는 육조혜능스님의 〈법보단경〉으로 선원장 성해스님이 강의한다. 강의시간은 매주 토요일 2시30분~4시30분까지. (02)732-3327

▲법화경=서울 법장사는 18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법화경 강좌를 연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이며 주지 퇴휴스님이 강의한다. (02)971-0303

▲불교환경교육원 생태학교=불교환경교육원은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저녁 7시30분 서울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란 주제로 제19기 생태학교를 연다. (02)587-8997

모집

▲포교원 군종요원=조계종 포교원은 군종요원을 모집한다. 조계종 스님으로 4년제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임관당시 연령이 만 35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하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면접은 11월 17일 오후 2시 포교원에서 실시한다. 구비서류는 군종장교요원 지원서 1부, 군종장교요원 추천서 1부, 신원진술서 5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성직경력증명서 등이다. (02)720-7060

▲경로식당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월~금요일 오전 10시~12시30분까지 경로식당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서비스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1)716-4215~7

▲광주불교교육원 직지사 답사자=광주불교교육원은 22일 직지사 불교문화유적 답사에 동참할 답사자를 모집한다. 이순규 법사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에서는 고승진영 특별전도 관람할 예정이다. 062)228-9098

▲가족아카데미아 성상담 부모단 기교육=가족아카데미아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3주간 성상담 부모 단기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fa3145@netsgo.com)로만 받는다.

▲전통사찰음식강좌 수강자=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전통사찰음식 제 3기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 다경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까지이며 6개월과정으로 10월19일 개강한다. 02)725-5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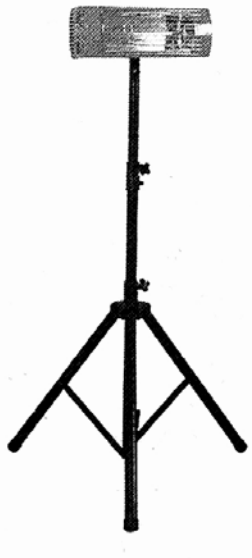
▲기공 명상 수강자=한꽃시민선원은 18일부터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30분, 오후 7시~9시에 실시되는 명상프로그램에 동참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062)222-1165

게시판

살다보니이런"히타"도보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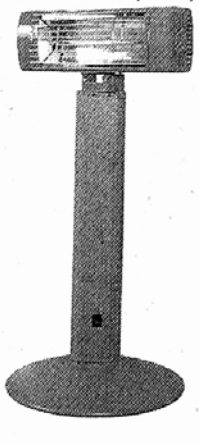
최점단 과학결정체 근적외선 - 골드수정히타 -
위험하고, 불편하고, 건강해지고, 연료비부담되는, 가스난로
석유난로 이젠, 바꿔! 바꿔! 바꿔!

아동용
▶GQ-1000C(1.3kw)
▶GQ-2000C(1.8kw)



Gold Quartz Heater 의종류 및 제원

사무실,점포용
▶GQ-1000S(1.3kw)
▶GQ-2000S(1.8kw)



법당 전용

벽걸이용
▶GQ-1000W(1.3kw)
▶GQ-2000W(1.8kw)



1시간전기 사용료80원
습기제거+냄새제거
설치간편+건강보장

주요제원
용 량 : 220V 1.8KW
220V 1.3KW
램프수명 : 9000시간
열 효 율 : 85~90%
색 상 : 골드/아이보리
금적/그레이

용도
● 요식업소용 ● 지하실
● 가정용 ● 교회
● 상가점포용 ● 사찰
● 공장·창고용 ● 특히 습기·냄새가 많은 곳에 최적

(주)호미엔터프라이즈
사무실: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0
TEL:代(02)921-2728
(032)361-5088
H·P:011-234-3941

쾌적·쾌속·강력 난방
근적외선 Gold Quartz Heater
-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

Gold Quartz Heater는 초현대적 기술과 과학에 의하여 발견된 근적외선(NIR.Near Infra Red)을 이용한 고효율, 고에너지 난방방식으로써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초강력 난방 시스템입니다. 특히, Gold Quartz Heater는 직사에너지이므로 기존의 석유, 가스 스토브로는 난방이 불가능한 야외, 냉동실, 공장, 넓은 장소등에서 매우 유효하고 경제적입니다.

Gold Quartz Heater 이래서 좋습니다.

1. 사람과 대상물만 난방이 되고 공기는 데워지지 않으므로 환기가 불필요하며 쾌적한 난방을 제공합니다.
2. 전원을 켜고 1초이내에 쾌속난방은 물론 부분난방도 가능하므로 예열을 통한 기다림이나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3. 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을 열에너지로 바꿔주고, 공기에 흡수,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어 경제적입니다.
4. 평균 9000시간의 긴 램프수명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5. 연소에 의한 오염이나 냄새가 없으므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6. 인체에 전혀 무해하며, 공기나 먼지의 움직임이 없어 매우 위생적입니다.
7.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치 않으며, 고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8.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램프의 특수 디자인으로 전기적 결함이 없습니다.
9.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딜러 모집 선착순

"사람과 나무는 형제입니다"

신행 현장 | 그린오너 119 봉사단

안국동 150여 가로수 표찰달기 '첫 행사'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를 지나 비원 쪽으로 5백여m쯤 가다보면 체구가 작은 은행나무가 있다. 은경(11·서울 노원구 온곡초등학교 5년)이는 이 은행나무에게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학교와 이름이 적힌 표찰을 달아주면서 서로 친구가 되자며 '자연'이에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엄마랑 오빠랑 나는 그린 오너 119 봉사단에 들어있어. 그게 뭐냐면 나무를 잘 가꾸어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거야. '그린 오너'라는 달은 자연의 주인이 우리라는 뜻이래. 그런데 TV를 보면 어른들은 맨날 자연을 보호하자고 해놓고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나무를 꺾고 하잖아. 우리 절 스님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른들은 머리가 나쁜가봐. 하지만 다른 어른들도 있어. 저기 봐, 노란 옷 입은 어른들은 다 나무를 아끼고…."

"은영아! 거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 다른 나무에도 표찰 달아야 하는데…."

수다가 채 끝나기 전에 엄마가 다른 어른들과 함께 손짓을 한다. 모두가 노란색 옷을 입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그린 오너(Green Owner) 119 봉사단'이다. 엄마와 오빠도 있고, 대학생 누나와 오빠, 엄마 친구들, 처음 보는 아저씨들도 있다. 다들 나무에 자기이름이 적힌 표찰을 다느라고 정신이 없다.

오늘(10월 14일)은 자원봉사연합회 '그린오너 119 봉사단'이 발족(지난 8월)하고 처음으로 활동을 나왔다. 봉사단원은 모두 70명 정도라는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 50명쯤 될까. 우리처럼 식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다섯 가족이나 됐다. 지난번(8월16일)에 엄마랑 오빠랑 홍릉수목원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것이 나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어른들이나 오빠, 누나들도 모두 8월에 대학교수님으로부터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다. 모두들 서울시와 자원봉사연합회에서 마련해 준 나무가꾸기 강의와 실습에 열심히 참여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에 표찰을 달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된 것처럼 능숙하다.



◇ '그린오너 119' 회원 은경양이 안국동 로터리 은행나무에 이름표를 달고있다.

나무에 달아준 표찰에는 나무이름과 관리자, 자원봉사연합회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그 밑에 '사람과 나무는 형제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내 이름이 관리자로 적힌 표찰을 단 나무는 두 그루다.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그걸 알게 되면 자원봉사연합회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119 구급대'처럼 출동해서 나무를 돌보아 주고, 종로구청에 알려야 한다. 이래봬도 우리는 모두 서울시의 '푸른서울 가꾸기 2000'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안국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을 따라 모두 4개 팀으로 나눠 150여 그루에 표찰을 달았는데, 얼떨결에 따라 온 같은 학교 친구 다인(11)이도, 오빠와 오빠 친구도 무척 즐거워했다. 수진 언니(덕성여대 전산 2년)와 수영 오빠(동국대 경영 1년)는 표찰을 매달 철사를 들고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엄마와 엄마친구는 까치발로 힘겹게 표찰을 매달고 있다. 우리와 똑같이

"한달에 두번이상 공원의 나무 돌본다"

출발했던 건너편 길가의 아저씨 두 명은 벌써 저쪽 나무까지 갔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집에서 기르는 식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기오염과 인파에 시달리는 가로수, 행락인파에 훼손되는 숲에도 관심을 갖고 잘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표찰달기를 끝내고 모두가 한 곳에 모이자 이런 저런 지시를 하던 아줌마(자원봉사연합회 김혜련 사무처장)가 음료수를 돌리며 인사를 했다.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는 모습이 보기 좋다.

얼마 뒤엔 우리 절(사천왕사) 어린이법회 친구들이 삼계동 갈울공원에서 표찰달기를 한다. 법회 친구들에게 내 경험담을 미리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로수에 표찰을 달고 공원나무도 돌본다고 한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들이 이젠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니…, 정말 기분이 좋다. 다들 나랑 똑같은 생각이겠지?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마음' 공부를 '병' 돌보듯 한다면…

7월 1일 의약 분업 전면실시 발표 이후, 병·의원의휴·폐업 등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나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나 정책 난맥,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따위를 질타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안이한 발상이다.

왜냐, 현상계의 모든 것은 '마음'의 반영일 뿐인데, 병든 마음을 도외시한 처방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무리이기 때문이다.

병 있는 사람은 좋은 의사를 갈망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좋은 약이라면 천금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반문명적인 짓이나 잔혹한 살생도 마다지 않는다. 참으로 지극한 발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가령 누가 자신의 지나친 욕심,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그 잘못을 지적했다고 하자. 십중팔구는 화를 내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심하면 원수 사이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이 될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다. 몸에 좋다고 하면 뱀, 지렁이, 개구리, 굼벵이 따위도 입에 털어 넣으면서 마음의 양식이 될 가르침은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다.

그렇다면 육체가 마음보다 더 중요한가? 병소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애지중지 보물단지 다루듯이 다듬고 장식하고 아끼는 것으로 보아서는, 육신이 마음보다 분명 소중해 보인다.

하지만 단언컨대, 육신의 병만이 병은 아니며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이고 마음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것은 병든 자아이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이란 단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곧 치유될 수 있는 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쪽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보다 몸에 더 비중을 두는 습성에 젖어 있는 한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명의와 양약이 더 소중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명의와 양약이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가을은 참회의 계절 아상 허물고 겸손합시다



성전스님
옥천암 주지

며칠 전 오대산에 다녀왔습니다. 산은 이미 단풍이 서서히 들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너무 맑아 단풍의 빨간 자태가 다 비칠 것만 같았습니다. 도시를 떠나 만난 가을 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진 법문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윽한 평온을 안겨 주는 산 길에서 나는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 길을 걸어 내게 다가온다면 그가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만 싶었습니다. 가을 산 안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되고, 존재는 한없이 겸손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와 너'를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파른 아상의 벽을 허물지 못

참회의 힘은 거짓을 진실로 범부를 부처로

한 체 불행한 나날을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상의 벽을 허물 수 있다면 세상은 온통 한 생명의 즐거움 뿐일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존재양식만을 고수하며 살아온 우리들 삶의 결과는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날의 영화를 물 위에 떠나 보내며 묵상하듯 고개 숙인 가을 산의 눈빛에서 나는 깊은 구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이르고자 하는 가을 산의 깊은 침잠이었습니다. 겨울 산이 진실을 상징한다면 가을 산은 참회를 의미합니다. 진실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회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 끝없이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곧 희망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시 긴 윤회의 시간을 맞이 해야만 합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중생에서 부처로, 날마다 향상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끝은 너무도 슬플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볼 일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성불의 기회로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참회하고 원대한 서원의 행자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허물을 고쳐 새롭게 되면 마음 따라 죄업도 멸할 것이다."

가을은 참회의 계절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존재의 실상을 만나는 시간 입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듯 우리도 허위와 가식과 죄업의 무게를 스스로 털어 내야만 합니다. 존재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질 때 대자유의 길은 우리 앞에 현존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이유는 성불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참회 하고 참회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참회는 절망을 희망으로, 거짓을 진실로, 범부를 부처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행복은 참회의 깊이에 비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 불자님 모두 참회를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는 큰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발원 합니다.

신행캘린더

10월 18일 (수)

■ 태고보우 국사 탄신 699주년 다례법요식=태고종은 오전 11시 북한산 태고사에서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699주년 다례법요식을 봉행한다. 02)745-2030

■ 삼광사 지장전 낙성법회=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오전 10시 지장전 낙성 및 옥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한다. 051)808-7111

■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월정사는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재조명'을 주제로 12시 강원도 오대산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강병희(외국어대 강사), 정영호(한국교원대 명예교수), 강순형(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씨 등이 발제에 나선다. 033)332-6664

10월 19일 (목)

■ 법왕사 달서분원 개원법회=대구 법왕사 달서분원은 정무스님을 증명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0시에는 아미타불 부처님 봉안식을 거행한다. 053)644-8108, 9108

■ 직지사 중창불사회향 5주년 기념 대법회=직지사는 11시 만덕전에서 중창불사 회향 5주년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054)463-6013

10월 20일 (금)

■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학술세미나=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20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불전전산화의 제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2260-3504

■ 봉림사 백고좌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30분 금용사 주지 자광스님을 초청하여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0월21일 (토)

■ 우리는 선우 정기 수련회=우리는 선우는 22일까지 1박 2일로 충북 괴산 다보 수련원에서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기 수련회를 개최한다. 02)2278-8672

10월22일 (일)

■ 청주 정토마을 법당 낙성식=불교계 최초의 무료 호스피스 시설인 청주 정토마을(원장 능행)이 22일 9시30분 속리산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을 증명으로 법당 탱화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갖는다. 법회이후에는 연예인 공연 등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043)298-2258

10월23일 (월)

■ 능인선원 사경법회=능인선원은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천수경과 금강경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02)577-5800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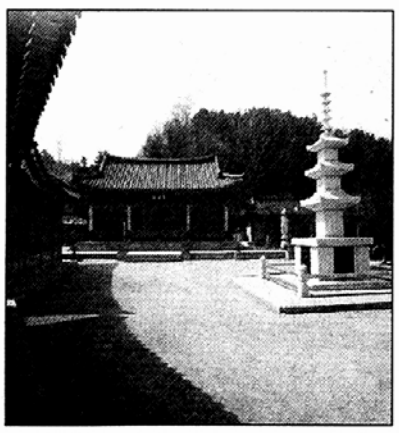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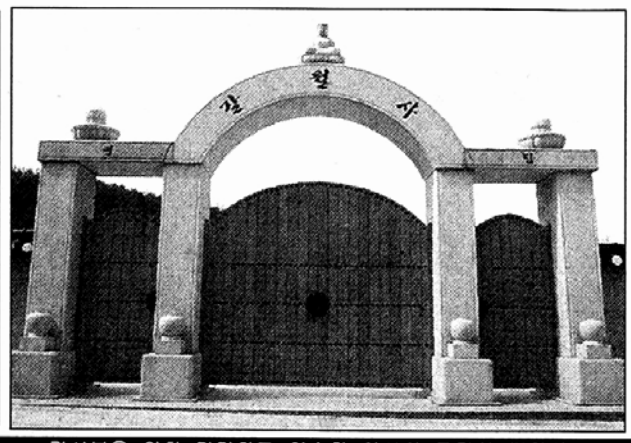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박태원 교수의 8

불교로 보는 인생

이 악행을 어찌할까

'팔'-'이' 유혈충돌 무고한 생명 죽인다

빗발치는 총탄을 피하느라 벽에 달라붙어 쓰레기통으로 간신히 몸을 가린 아버지와 아들. 여기 어린이가 있다고, 제발 여기로는 총 쏘지 말라고, 연신 손을 내저으며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 그러나 곧 어린 아들의 복부를 관통하는 총알들. 자기도 총상을 입은 채 죽은 아들을 보며 넋을 놓아 버린 아버지의 그 절망으로 무너진 얼굴. 모든 지구인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장면이다. 이 가을, 우리를 처연하게 만든 중생사의 비극적 단면이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유혈 충돌 과정에서 생생하게 카메라에 잡힌 '인간사의 가장 추악한 장면'이었다.

참으로 기묘한 것은 이 명백한 악쟁이 가장 성스러운 언어 아래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적 성지(聖地)의 점유권이 비극의 발단이라니, 중생의 답답한 탐욕에 동원되고 있는 종교 언어들의 처지가 서글프다 못해 참담한 지경이다. 때로는 정치,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준동하는 중생의 무지와 욕망들을 아프게 겪을 때마다 우리는 확인한다. 결국 인간 자신의 내견적 성숙만이 근원적 해법이라는 것을.

깨달음은 존재 성숙의 꽃이다. 그 꽃의 종류에 대해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근원을 깨닫기에 '궁극적 깨달음(究竟覺)'이라 한다. 이전 생각에 악을 일으켰음을 깨달아 다음 생각을 그쳐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상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念의 異相)을 깨달아 거친 분별의 집착을 버리면 '비슷한 깨달음(相似覺)'이라 이름한다. 생각이 머무르는 모습(念의 住相)을 깨달아 분별의 모습을 여의면 '깨달음에 따르는 경지(隨分覺)'이다.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미세한 분별을 놓아버리면 마음의 본 바탕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되니, 이 경지라야 '궁극적 깨달음(究竟覺)'이다."

서로 내 종교의 성지라며 탐욕을 부리다가 급기야 무고한 생명을 죽인다. 잠시 후 '아차, 내 욕심에 눈멀어 사람을 죽이고 말았구나!' 반성하여, 화내고 증오하던 마음을 쉬어 악행을 그친다. 그리고는 화해니 평화니 휴전이니 하면서 웃으며 악수한다. 그러나 이 정도 반성을 깨달음이라 할 수는 없다.

성지에 대한 욕심 이면에 민족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반성하기도 한다.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집착이 이기심을 불붙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민족에 대한 편견과 편애와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민족이라는 상(相)에 집착하면서 생각이 이런 저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念의 異相)을 깨닫는 경지이다. 이 정도면 '깨달음에 근접하는 수준(相似覺)'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분별하는 마음을 문제삼기도 한다.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으로 분별하여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는, 민족에 대한 분별을 극복하려 한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같은 인간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열린다. 민족이라는 분별상(分別相)이 생각에 자리잡는 것(念의 住相)을 깨닫는 경지이다. 이 정도 성숙이면 '깨달음의 세계에 동참한 격(隨分覺)'이다.

내친 김에 한 차원 더 높여야 한다. 나와 남, 주관과 객관 세계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뉘는 그 첫 생각이 일어나는 것(念의 生相)을 깨달아 안다. '나'라는 생각의 뿌리가 뽑히고, 그리하여 나와 남이 하나로 만난다. 모든 것이 한 몸, 한 맛(一味)으로 소통되는 본 바탕 마음이 열린다. 이제 자유롭고 평안하게, 지혜와 자비로 세상과 만난다. 빛나는 '깨달음의 궁극 경지(究竟覺)'이다.

비록 삶의 터가 어처구니없이 천박하고 엉망으로 동요하고 있을지라도 절망하지는 말자. 언제든지 한 생각 돌이켜 성숙할 때면, 홀연 밝아오는 깨달음의 빛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리니.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하심-공경 배우고…운동효과 '탁월'

참불자의 길

절의 공덕과 건강

■1백만배 기도 성취한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이 전하는 절의 공덕



혜인스님

절을 하면서 공덕부터 먼저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심공경(下心恭敬)하는 마음으로 한 배 한 배 온 정성을 담아 참회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절 수행이다.

30살 되던 해 군대를 마친 내가 해인사에서 1백만배를 했던 것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기도를 통한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성철스님께서는 "절 하다가 죽은 사람 아직 없고, 절 많이 해서 지옥간 사람 없으니 중단 없이 확실히 마무리지을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1백만배를 성취하게 되었다.

1백만배를 하는 동안 통증도 심하고, 고름도 나고, 코피도 쏠 때도 있었지만 그 고통 또한 한계가 있음을 절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도리어 힘이 넘쳐났다. 매사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어지고 당당한 마음과 자신감이 솟아났다. 대중앞에 서면 떨려서 제대로 법문도 못했던 내가 해인사로 찾아온 불자들에게 자연스레 법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바로 1백만배 기도를 통해 얻은 행복이요, 삶의

절의 많고 적음보다 한배 한배 정성껏

힘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1백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절을 하기보다는 1배 1배 더욱더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올려야 했다는 죄송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어렵게 1백만배를 하고 나서야 절이라 해도 같은 절이 아니고, 참 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짜 절 한번을 위해 가짜 절 1백만번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절을 하기 위해서는 절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한없이 내 마음을 낮추고, 한없이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후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실수와 잘못들로 고통받았던 이들에 대해 참회하며,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닦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절을 하는 궁극의 목표다.

■아침 저녁 108배 수행이 건강도 지켜준다.

108배가 충분한 운동효과를 내고, 건강은 물론 현대인의 최대 고민거리인 비만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종호씨(29세 · 컴퓨터프로그래머)와 서울 상계 백병원 비만클리닉 소장 강재헌 교수(가정의학과)를 찾아 절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다.



◇서울 상계 백병원 비만클리닉 강재헌교수(사진 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108배의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고 있는 변종호씨.

변씨는 우선 가슴과 입에 '에너지소비량 측정기'(워크맨 같은 장치와 인공 마스크)를 달고, 10여분간 108배를 실시했다. 10분간 한 108배의 에너지소비량은 87Kcal, 조깅을 10분 이상 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108배를 시간당 Kcal 소비로 전환해 타 운동과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시간 동안 절했을 경우의 에너지 소비량이 518Kcal인데 반해,

1시간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경우 : 걷기(4km/h) 240Kcal, 등산 600Kcal, 달리기(10km/h) 720Kcal, 미용체조 300Kcal, 배드민턴 360Kcal, 수영(평영) 600Kcal, 에어로빅(저강도) 360Kcal, 자전거(9km/h) 240Kcal, 축구 540Kcal, 테니스 420Kcal, 탁구 240Kcal로 나타났다. 즉 1시간 동안 절을 했을 경우의 운동효과가 등산이나 수영을 1시간 한 것과 비슷하고, 에어로빅이나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을 하는 것보다 운동량이 많은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진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 (1시간)

절 - 518kcal
수영 - 600kcal
걷기 - 240kcal
축구 - 540kcal

강재헌교수는 "평균인의 일주일 권장 에너지소비량이 1000Kcal이다"면서 "108배를 아침저녁으로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불자의 일주일 에너지소비량은 1000Kcal를 넘는 수준이며, 따라서 108배 수행만 열심히 해도 비만 걱정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8배 전에 몸의 근육과 관절을 푸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108배 후에도 마무리 체조를 해 주어야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교육적 대화와 선문답 공통점 '각성'

㉚ 선과 교육(3)



서명석
외국어대강사
교육학

우리는 지금 존재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반복적으로 거듭할 때, 존재는 세월의 더께 앞에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선이 들려주는 존재의 호출은 아득하게만 멀어진다. 이리하여 바로 지금 우리 존재 부재중, 그 실상을 보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든 아니면 혼자 있든 상관없이 통신병기가 사방에서 우리를 호출한다. 전파가 흐르는 모든 공간에서 그것도 시시각각, 타자가 우리를 애타게 찾더라도 우리 존재는 막상 허하다. 왜 그럴까? 이 모든 호출은 내면의 속살에서 움터 나오는 존재의 부름이 아니고 일상의 타자가 외부에서 말 걸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상 즉 존재부재의 시간대를 선은 놓치지 않는다. 여기서 선은 존재선언을 개시(開示)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내 내면의 심층 존재에게 호출을 건다. 그 때 호출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느 날 조계사 경내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청년이 있었다. 이를 본 스님이 그가 안면있는 사람임을 간파하고 말을 건넨다. "자네는 지금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나." "네, 약속시간에 늦어서요." "음 그래, 그럼 빨리 가보게." 발걸음을 재촉 경내를 막 빠져나가려는데 다시 스님이 그를 불러 세웠다. "(큰소리로) 여보게 친구." 그러자 멈칫 그가 다시 스님을 쳐다본다. "급히 서둘지도 그렇다고 너무 여유부리지도 말게." 그는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것은 가공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선은 독각(獨覺)을 지향하는 솔로가 아니다. 선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존재방식인 대화를 통하여 가르치고 배운다. 우리 전통에서 이를 극적으로 반영하는 선문답이 있지 않은가.

선문답은 일상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뜬구름을 잡으려는 대담은 결코 아니다. 선문답을 거칠게 정돈하면 그것은 대화를 통하여 선사는 가르치고 학인은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교육이 일어나는 원초적인 국면과 같으며, 여기서 가르치고 배우는 차원이 학교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즉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가르침과 배움과는 다른 점이라는 데 있다.

다시 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위 이야기는 장난기 어린 스님의 한 판 쇼와 같다. 이 쇼의 희생양이 그 청년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피상적인 독법이다. 이것을 좀 더 선문답의 차원 즉 가르침과 배움의 대화로 포착하면 이렇다. 스님의 눈에 비친 건실한 한 청년이 일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점을 각성시키는 것이 이 대화를 보는 화두의 눈이다.

짧은 대화의 오고감 속에서 스님은 절묘하게 청년 내면에 주체의 각성을 알린다. 아주 점잖게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삶의 전회체험을 할 수 있다. 거창하게 깨달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선은 대화 즉 문답을 통하여 선사는 대화 상대자의 주체를 각성시키고 학인은 선사의 안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린다. 그런 구도는 어미 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주고 병아리는 안에서 자기 껍질을 쪼아내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새로운 주체탄생의 역사를 열어주는 것이다. 한 학인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저의 참-자기(眞我)입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답했다. "저 뜰 앞에 잣나무가 보이느냐?" 학인의 자신의 주체에 대한 물음에 조주선사는 역으로 반문하며 찌른다. 지금 저 잣나무를 보고 있는 '그 놈'이 바로 너의 참-자기라고. 이것이 조주선사의 메시지이리라.

등 안 거 선 방 안 내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진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 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

神秘의 霹棗木
벽조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6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87년 八公山 갓바위 토굴에서 매일 삼천배의 100일기도 수행도중 禪夢으로 지리산 인근 옥환마을에서 6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점지 받아 갓바위 인근절에서 십수년을 신도 대상으로 벽조목의 신비한 영험을 체험하였으며 특히 가공하지 않은 가지를 가져간 분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했읍니다.

혜봉합장

※권선(勸善)이나 불사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 가공하지 않은 가지를 양도 할 수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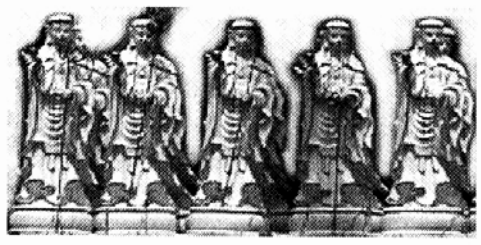
스님께 염주를 보시(布施)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業報를 받는다 20만번 돌리면 득생(得生)하고 1백만번이 넘어면 열반에 든다고 함

▌연속극 궁예 108염주크기

※간절한 한가지 소원이 있으신 분은 성명 생년월일 한가지 소원을 적어 보내주시면 벽조목으로 부도(符道)의 천부(天符)비법으로 소원성취를 이루어 드립니다.
(상담시간 10~오후 1時까지)

상담전화
053)982-4976 / 011-813-3679
지 장 선 원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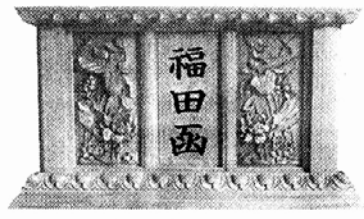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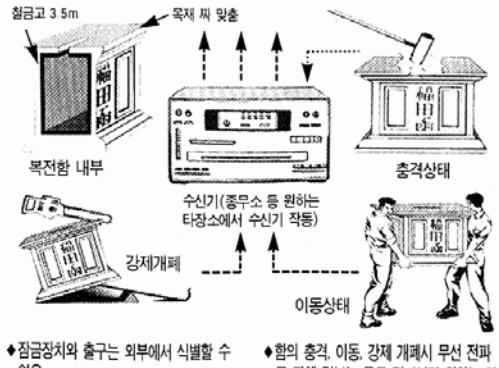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 배 가 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불 전 함

도난방지 장치 ◆특허 2000-0011559◆





◆잠금장치와 출구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특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작동 S/W전파와 개폐가 절대 불가함.
◆옥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함의 충격, 이동, 강제 개폐시 무선 전파로 자체 경보는 물론 경비실및 원하는 타장소에 침입사실을 알려 줌.
◆본 함의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경보는 계속되고 개폐기능은 마비됨.

본 System에 대형 사이렌을 연결 중요시 설물에 방범용으로도 가능함.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외교통상부가 일반 업무 추진비와 달리 외교목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외교 활동비를 98년부터 부당 집행한 사례가 최근 감사원의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외교 활동비 대부분이 한인행사의 만찬 주최와 대사관 직원 회식, 내국인 접촉비 등으로 과다하게 지출됐다.

정부 부처의 운영비가 활동비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임의대로 과다하게 지출된 데에는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서 비롯됐다. 정재낭비의 과보가 어떤지 경전 말씀에서 들어본다.

이렇게 들었다

정재낭비

법답게 재물 구하고 써라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해야 한다. 필요치 않을 때에는 그것이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스스로 금은 따위의 보물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잡아함경〉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수행을 멀리하고 낭비를 일삼으며, 익혀온 악업을 모두 즐겼지만 노년에 돌아오는 것은 짝 잃은 후회뿐이다. 〈법구경〉

▨비록 백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루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출요경〉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자신을 위해 재물을 받거나 모으지 않고 모든 재물은 가난하고 고생많은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에만 쓰겠습니다. 〈승만경〉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이것은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갚음을 받으리라. 〈잡아함경〉

▨재물은 종종 번뇌죄업의 인연이 된다. 지계선정 지혜와 같은 선법은 열반의 인연이 된다. 〈대지도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걱정하고 재산이 있으면 또 재산에 고통받는다. 〈대무량수경〉

▨만일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땀흘려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남에게 이바지 하고 스스로도 바른 곳에 쓰며, 널리 베풀어 복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다.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이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 될 것이다. 〈복음경〉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서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그리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 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며 재물은 그 몸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 〈증일아함경〉

▨아무도 제가 벌어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연이 맞아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21세기는 과연 문화의 세기인가

불자 세상보기

끼리끼리문화 확산
세대간 이질감 심화
책 읽지 않는 사회
계몽 설자리 없다



이우상
소설가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기대가 바탕에 깔린 말이기는 하지만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인간의 품격을 살려줄 수 있는 영역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의 현실을 보자하니 왠지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문화는 개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차별성과 독창성으로 빛을 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의식을 토대로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양성과 독창성은 세대간 계층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화 발전의 저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지향은 우려되는 바 크다. 특히 세대간의 이질화는 점점 확대되고 고착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는다. 386세대, 신세대, n세대, e세대 등의 용어가 편가르기처럼 들린다. 나 아닌 상대를 존중하는 구분이 아니라 '우리 끼리만'이라는 달팽이집 짓기에 열중하는 현상처럼 보인다. 특수한 집단끼리만 소통되는 언어를 은어라고 한다. 언어사회학에서는 시대상을 확인하는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은어와 익명이 난무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문화란 결국 내가 만든 지혜의 산물을 광장에 내놓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밀실에서 꾸미는 음모가 아니다.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와 상업주의의 창궐이 그런 음모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거창하게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하라고 목청을 높일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 이미 암세포처럼 번지고 있는 끼리끼리 문화를 우려한다. 냉소와 무시로 무장한, 상대성에 대한 부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손쉬운 예로 대중문화만 해도 그렇다. 세대간의 소통은 거의 불능의 상태다. 청소년들은 대중 문화의 막강한 소비자로서 그 목소리가 우렁찬 반면 중년층은 흘러간 옛노래에 향수를 달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청소년들의 감각적 기호에 편승한 상업주의는 더욱 자극적, 더욱 업기적 상품을 생산하기에 분주하다.

이는 곧 문화편식현상을 수반한다. 영화 관람객이 늘고, 음반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사이버공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책'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인 활자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책을 멀리하는 삶의 방식이 당연시되고 훈계와 계몽은 낡은 시대의 폐기물처럼 설 자리가 없다. 쉬운 것,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지만 본능을 억제하고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다.

오늘 우리사회의 문화적 편협현상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모든 부모들은 사내 자식이 거칠고 투박하길 바라지만 딸 자식을 맡길 사위는 아무래도 유순한 청년이길 바란다. 이런 불균형한 사고는 결국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에 대한 균형감각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문화의 세기라는 금세기에는 문화의 다양성이 더더욱 필요하다. 풍부한 상상력은 사회발전의 요체이고, 그 상상력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온다. 상상력 없이는 논리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사회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스님사칭 물건 판매 시골 노인까지 현혹

스님을 가장한 사기행각이 요즘에 다시 활개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기수법도 예전에는 도심에서 큰스님이 법문을 한다고 신도들을 모이게 해 거액의 염주세트를 파는 식이었다면, 요즘엔 스님으로 가장한 사람이 시골에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염주세트를 돌린 뒤 온라인 구좌로 돈을 받는 식이다.

물론 스님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지만 불자들 또한 스스로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절에 몇 번이라도 다녀본 불자라면 잘 알겠지만, 동네를 돌며 법문을 하고 물건을 파는 스님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짜 스님이라면 절대로 물건을 팔며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불자들은 꼭 명심하기 바란다.

우승희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초공양 공덕 좋지만 법당서 시비 꼴불견

얼마전 절에 가서 초공양을 놓고 불자들간에 서로 시비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떤 불자가 이미 꽂혀있는 다른 사람의 초를 빼 버리고 자신의 초를 꽂자, 그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며 다툼이 시작됐다. 신성한 법당이 일순간 시장터처럼 변해버렸다. 서로가 물러설 줄 모르고 다투는 모습에서 씁쓸함마저 느껴졌다. 그런 마음으로 법당에서 절은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불자라면 적어도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 또 설혹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일은 삼가해야 마땅하다. 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김갑숙 · 서울 용산구 한강로

악수하며 대화하는 스님-신도관계 되길

몇주전 우연히 어떤 교회 앞을 지나다가 신자들이 교회 입구에서 나란히 줄을 선 몇몇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다가가 보았더니 교회 목사와 집사들이 신도들과 손을 잡으며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불현듯 내가 다녔던 몇몇 절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스님 법문이 끝나고 점심공양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간혹 한두 사람이 스님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거의 모든 불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이다.

스님들도 이제는 신도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앉아서 권위만을 내세운다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교회로 불자들이 발길을 돌릴지도 모른다.

김재윤 · 경기 안양시 만안구

현대불교를 읽고

'관람료사찰과 포교' 기사 공감

현대불교신문의 기획연재 '관람료 사찰과 포교'는 정말 공감이 가는 기사였다. 나와 내 아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고 또 고즈넉한 사찰에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좋아 종종 사찰을 찾곤 한다. 그런데 가는 절에서마다 냉대받았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들지 않은 때가 없었다. 어떤 때에는 '그저 밥 한끼 얻어먹으러 왔나'라는 생각에 처량하기까지 했다.

사찰에 갔을때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어도 스님을 뵙기가 어렵고, 또 뵌다 하더라도 서둘러 자리를 끝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비로움과 온화함으로 불자들을 이끌어주는 분위기는 어느 사찰에서도 느낄 수 없다. 타종교인 혹은 절에 마음을 붙이려고 찾아갔던 사람이라면 과연 불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자들이 사찰을 찾는 것은 불교의 역사를 체험하고 스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수양을 쌓기 위해서다. 마치 잘 아는 식당에 가서 밥 한끼 먹고 나오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한다면 어느 누가 절을 찾겠는가.

누구나 가고 싶고,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서 돌아올 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찰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현 · 한국석불문화회 부회장

기고

"365일이 한글날 우리말 바로쓰기 언론부터 솔선"



김무봉
(동국대교수 · 국문학)

우리 말과 글이 제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컴퓨터를 켜면 이해할 수 없는 낱말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난무하고, 길을 가는 청소년들의 대화는 차라리 암호에 가깝다. 심지어는 가정과 직장의 일상에서도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오간다. 혼탁해지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며칠 전이 한글날이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한글창제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곤 한다. 그래서 어느 해 할 것 없이 이 무렵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우리 언어생활의 절도 없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만이 우리 문자를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에 부합하고, 한글날 제정의 의의를 찾는 길인 양 목소리에 자못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언어생활이 일과성 운동이나 구호성 소란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오늘날의 언어생활 중 잘못된 부분의 지적에는 앞을 다투고 있으나, 그 해결책의 제시에는 소극적이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비판만 늘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고쳐질 리 없다. 그냥 문제 제기를 위해 제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뿐이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말과 글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그 극복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방향까지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 특히 비판의 맨 앞에 서 있는 언론매체, 그 중에서도 방송매체부터 솔선하여 바른말과 품위있는 우리말 쓰기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요란한 구호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직접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다.

언어란 그 민족문화의 정화(精華)로 만들어져서 민족문화 창출의 토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과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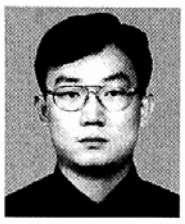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사·부·대·중

담징의 후예들 없나



최원섭
성철선사상
연구원 간사

'한민족 리포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시청할 때마다 "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약간씩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취재 대상인 나라들은 거의 '오지'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그 곳에서 활약하는 우리 교민의 활동이라는 것이 문명의 '혜택'도 없이 '미개'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교화의 수단은 기독교였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소개되는 사람들의 직업이 목사 아니면 전도사이니 말이다. 그들은 의료와 교육, 생활도구 등을 성실함에 섞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또다른 언더우드나 세브란스를 보게 된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차라리 '한민족 전도 리포트'가 적절할 일이었다. 그리고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인 사유구조가 이렇게 일반화되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만일 삼국시대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일본에서 계몽활동을 벌이던 '담징' 스님이 첫 번째로 소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그렇다면 2000년대인 지금은?

일전에 종립학교를 다니는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아와 명상'이라는 수업을 언급하면서 스님들은 TV를 보시지 않으실 것을 예상하고 대리출석을 부탁했다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뜻밖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꼭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은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것 같다. 우리의 일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고고'하고 '고결'하게 살고 계신 것이 스님이라는 생각말이다.

반면에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성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활발한 봉사와 사회활동을 펼치는 분들이라는 시각이 또 일반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담징 리포트'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담징의 후예들이 사회에 알려지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아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일까?

목탁소리

종단협 사무총장의 대북관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최근의 남북문제에 대한 평가는 여럿 있을 수 있다. 대북식량 지원을 두고도, "북한 정권의 연장을 돕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 대화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이 모인 종단협의회의 입장을 굳이 따진다면, 그동안 몇 차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받는 단체로 지정해 겨울옷과 신발, 옥수수 등을 보냈으니 후자의 입장인 듯하다. 오는 11월에도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낸다. 이에 대해 불자들은 별 불만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의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의 발언은 종단협의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종단협의회에 보낸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초청장에 대해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는 회신이 늦어진 것을 따지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의 항의에 대한 답변 중에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공산당에 무슨 축하냐. 축하한다는 말을 빼라." "북쪽에 꼭 답신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니냐. 별안간 오라고 하는데…."

많은 불자들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불교와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류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홍파스님의 발언에 따른다면, 지원과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는 종단협의회의 대북교류 방침은 수정돼야 한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을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생각은 남북관계 등 이 단체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12월 초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열기로 북한과 합의를 보았으며, 토론회 실무협의를 위해 이달 말 만나자고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북한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발언을 한 사무총장이 어떻게 역사적인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지휘해낼 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기자만의 생각이길 바란다.



◇동강은 민족의 애환과 풍물을 간직한 채 흐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재현된 동강댐 반대를 위한 뗏목행렬.(진용선씨 제공)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계곡. 지리산의 '동강'을 막고 낙동강을 살리는 정책이 절실하다.

동강의 교훈으로 지리산 꼭 살리자

시민환경운동의 승리

영월댐 백지화

지난 6월5일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이 진행중인 세종문화회관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로 가득찼다. 동강댐 백지화는 무엇보다도 시민환경운동의 승리였다. 또한 동강댐 백지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도 되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며 자축하는 이 순간에도 10여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동강댐 추진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동강댐 건설은 백지화되었지만 동강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개발론자들이 동강의 비경과 생물자원을 파괴하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

내년 상반기 최종결정

동강 다음은 지리산

올 여름, 환경운동가들의 화두는 '동강 다음은 지리산'이었다. 강원도 영월의 동강댐 문제가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지리산 자락에 은밀히 추진해온 식수댐 건설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8월 30일 서울에서 189개 종교·환경·시민 단체가 참여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결성됐다.

지리산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일환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댐 건설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책안에는 수질오염과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수계에 지리산 2곳을 포함, 모두 6개의 갈수기 조정댐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댐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제2동강 사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2월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을 구성, 수자원 확보방안 등을 조사키로 했다. 조사단은 올 연말까지 조사활동을 끝내고 물부족과 오염실태에 대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댐건설 위주 정책 지양

탁상행정 물관리

국민행동은, 낙동강의 수질오염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부산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산 계곡에 식수댐 2개소를 건설, 광역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려는 발상은 한마디로 '낙동강도 죽이고 지리산도 죽이는 짓'이기에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켜 낙동강과 지리산을 함께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댐 건설에 투입될 돈을 차라리 '낙동강 살리기'에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국민행동 양장일 사무국장은 "정부는 하루 400ℓ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1인당 물 사용량(OECD국가중 6위)을 선진국 수준(200-300ℓ)으로 끌어내리는 물 절약 방안을 세우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수·폐수 적극활용

선진국의 물정책

외국에서는 하수와 폐수를 활용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 식수와 허드렛물을 분리하는 중수도의 활성화, 강변여과수 활용, 하천유역에 자연적인 습지 등을 조성해 자연정화력을 높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 수요관리 위주 물정책을 시행 또는 실험하고 있다.

미국=물 1000t절약시 125달러의 보상금 지급, 생태계 복원 및 노후 댐 유지보수문제로 90년대 들어 465개의 댐을 해체. 이스라엘=절약형 설비 설치, 누수의 점검 및 보수. 중국=사용량에 따라 누진세 및 벌금을 부과하는 물값정책. 캐나다=물값 인상, 절약장비 보급, 절수교육. 호주=정부차원의 절수 정책. 일본=대부분의 가정에서 빗물을 받아 다시 사용. 독일=학교 운동장 아래 물탱크를 만들어 빗물을 받거나 한번 사용한 물을 받아 재사용.

동강 영월댐과 지리산 식수댐 비교

동강 영월댐	내용	지리산 식수댐
다목적댐(농·공업용수 및 상수원 확보, 홍수조절)	추진목적	식수댐(부산지역 식수난 해결)
97년10월20일 댐건설 계획 발표, 2000년6월5일 대통령, 영월댐 백지화 발표, 9월15일 환경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	경과	낙동강물이용조사단 수자원 확보방안 조사중. 내년 6월경 댐건설 여부 결정
6억9,810만t	댐규모 (총 저수용량)	함양 문정댐=1억2,1400만 t 산청 천평댐=2억6,560만 t
댐 안정성문제(석회암동굴 244개), 생태계·문화유적 보호	시민단체 반대이유	국립공원 생태·문화재 보호 낙동강 수질오염 가속
수몰 예정지 주민 손해배상 및 동강보전 종합대책 수립	시민단체 주장	식수댐 백지화 및 낙동강 수질 개선
12종의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산재한 생태박물관	생태적 가치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등 선사시대 유적 산재	문화적 가치	국보 7점, 보물 41점, 지방문화재 51점 등 문화유산의 보고

"한발씩 옮길때마다 국토청정 발원"

낙동강 보도순례단 안병태 대장



"'고행(苦行)하는 마음으로 지리산과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단장 수경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한 발자욱 옮길 때마다 국토청정을 발원하겠습니다."

오는 23일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못에서 내달 19일 낙동강 하구인 부산 을숙도까지 '민족의 성산 지리산과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자'는 발원을 안고 1300리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걷는 낙동강도보순례단 대장을 맡은 안병태(39)씨는 낙동강 순례가 식수문제로 야기된 경남의 동·서부 주민과 대구-부산 시민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과 화합의 불사가 되길 기원했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을 단장으로 원불교 환경단체인 천지보은회와 녹색연합 회원 등 20여명으로 환경순례단(10명은 지원팀)을 구성, 낙동강 500km를 한달간 답사하며 환경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안 대장은 "태백 안동 문경 구미 대구 창녕 부산 지리산 등의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을 갖고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희망과 원력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제 1회 불교서적 독서감상문 공모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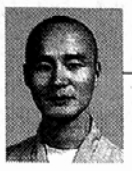
이 행사는 불교계에서 출판이 되고있는 양질의 책을 소개하여 불교인, 일반인 모두에게 마음의 양식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불서나 현대불교 지상을 통해 소개된 불서 중에서 한 권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응모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이번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요령

1. 현대불교지상에 소개된 책이나 다음에 소개되는 불서중 한권을 골라 독서감상문 제출
2.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15매 안팎
3. 응모기간 : 2000년 11월 30일 까지
4. 당선작발표 : 2000년 12월 현대불교신문 지면.
5.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독서감상문 담당자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나 개별 방문 접수]
6. 시상내용
   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 가작 3명, 장려상 10명 → 상금 또는 상품권
   응모자 전원 → 기념품 증정
7. 응모시 유의사항
   원고 끝에 읽은 책 이름, 저자·역자 이름, 출판사이름, 응모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재.
   문 의 : ☎ 02-737-8881로 문의 바랍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상우 석지현 엮음 4×6판 양장 / 176쪽 / 값5,000원 민족사 ☎02-732-2403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밀고보리심론	혜정대정사 講解 신국판 / 330쪽 / 값10,000원 ☎02-913-0753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번지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연학연구원 엮음 신국판 / 344쪽 / 값10,000원 ☎02-730-2500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	한말숙 지음신국판 / 268쪽 / 값7,000원 ☎02-722-9780 솔과학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76-1호 계진빌딩 5층 503호
화두 놓고 염불하세	김지수 옮김신국판 / 514쪽 / 값12,000원 불광출판사 ☎02-420-32000서울시 송파구 석촌동160-1
불교와 생명윤리학	데미어 키온 지음 / 허남결 옮김신국판 / 323쪽 / 값10,000원 불교시대사 ☎02-730-2503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197-28 백상빌딩13층 4호
백일법문(상, 하)	백련선서간행회 편집 신국판 / 337쪽 / 값 각권7,000원 장경각 ☎02-269-3227(서울)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백련암
시인 현주하 자저산문집 절에서 만난 사람들	현주하 지음 신국판 / 271쪽 / 값7,500원 ☎02-733-4277 명상출판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3호
알 몸	설산스님 지음 신국판 / 328쪽 / 값7,800원 ☎02-586-0477 도서출판 청어와 퍼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443-28 황실빌딩 202호
선가어록 1	혜원 역주 신국판 양장 / 218쪽 / 값10,000원 ☎02-3672-7181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요 가	이태영 지음신국판 / 364쪽 / 값8,000원 ☎02-730-8976 도서출판 여래 서울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열반제	정휴 지음신국판 / 316쪽 / 값10,000원 우리출판사 ☎02-313-504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호
배가 고플 때에는 마음껏 먹어라	프란츠 메카프 / 박윤정 옮김신국판 / 242쪽 / 값6,900 도솔출판사 ☎02-738-0931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빌딩1-305호
인연을 비껴가지 마라	이상각 엮음국판 / 228쪽 / 값7,000원 지혜의 나무 ☎02-730-2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낫한 지음/서보경 옮김 국판 / 222쪽/ 값 7,000원 지혜의 나무 ☎02-730-22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1, 2, 3)	진현종 편역 신국판 / 255쪽 /값 각권 7,800원
원혜 스님의 아름다운 생활수행	원혜스님 지음 신국판 / 140쪽 / 값5,000원 봉은사출판부 ☎02-547-42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	해공스님 지음 신국판 / 317쪽 / 값8,500원 ☎054-338-8196 은항문학사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동 660번지
법문사의 비밀	태닌, 성청용 지음/ 유소영 심규호 옮김 46판 양장/ 744쪽(컬러화보 16쪽포함)/값 21,000원 도서출판 일빛 ☎02-3142-1703-5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5 남성빌딩 4층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 현각 옮김 신국판 / 303쪽 / 값 10,000원 불일출판사 ☎02-733-5311 서울 종로구 사간동121-1 법련사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	김영애 지음/혜남스님 감수 신국판 / 211쪽 / 값8,000원 다할미디어 ☎02-528-0236-7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의 사람 빌딩 805호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혜강 박영욱 지음 신국판 / 230쪽 / 값8,000원 관음문화사 ☎02-917-3854 서울 성북구 성북2동116-1번지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김규현 지음 신국판 양장 / 416쪽 / 값20,000원 ☎031-676-8700 도서출판 도피안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참선요지	허운화상 법어/대성스님 옮김 4×6판 / 278쪽 / 값5,500원 ☎02-732-1521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110-33
논픽션 붓다	김해석옮김 4×6판 각양장 / 716쪽 / 값18,000원 ☎02-569-0588 헤누리 기획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2 (102호)
우리가 이세상에 살게된 7가지 이유	김해석옮김 4×6판 각양장 / 365쪽 / 값9,000원 ☎02-569-0588 헤누리 기획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2 (102호)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오쇼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76쪽 / 값13,000원 헤일 출판사 ☎02-927-2831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 37번지

※ 위 도서들은 책방여시아문에 별도 코너로 있으며 전국 서점에서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책방 여시아문 : 02-732-1521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금강경 ②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세속적인 출세의 길,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길,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불자의 길 등을 찾아 헤매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나그네의 길일 따름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6바라밀(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은 대승불교의 수행덕목(修行德目)이라고 말하고 있다. 6바라밀은 대승불교에서는 미혹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 보람있는 참삶을 위해 환경에 얽매이고 주위의 사정에 움직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 사는 보람을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6바라밀을 들고 있다.

바라밀(波羅蜜)이란 '건넌다'는 뜻인데, 미혹의 바다를 건너 저쪽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보시(布施)란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교육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고, 경제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베풀고,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과 부드러운 얼굴, 고운 말씨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남에게 베풀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이 모자라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므로 자기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계가 필요하다.

지계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자신이 정직하다고 남의 정직하지 않음을 성내서는 안된다. 자신도 올바르게 하면서 남이 잘못하더라도 성내지 않는 인욕이 필요한 것이다.

인욕이란 참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참는 것은 아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도를 넘으면 자신의 잘못조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진이란 자신의 할 일에 매진하는 것이며, 결코 마음을 옆길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정신없이 돼버리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이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게 하여 모든 사물의 진실한 상을 바로 보고 마음의 작용을 좋은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지혜란 위와 같은 수행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으로, 지혜를 성취하여 사물의 진정한 상을 알면 미혹해 있는 사람들의 일을 알고 자신의 노력으로 남이 구원되었으면 하는 보시의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6바라밀 가운데 지혜바라밀에 대하여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설한 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므로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느니라(佛說般若波羅蜜 卽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이 말씀은 마음에 심상(心相)이 없으면 허공을 취하지도 않고 불지(佛地)를 의지하지도 않고 지혜에 집착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묘리이다. 즉, 무상(無相)과 무위(無爲)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자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계획과 반성을 하는 기준도 역시 6바라밀에 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부처님의 경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인가? 얼마나 자신의 입장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지혜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것인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계획을 아침에 세우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과연 얼마나 실천을 하였는가를 반성할 때 우리 불자들이 지금은 범부에 지나지 않지만 조금씩 부처님의 세계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6바라밀 실천 '삶의 거울'
집착말고 함이 없이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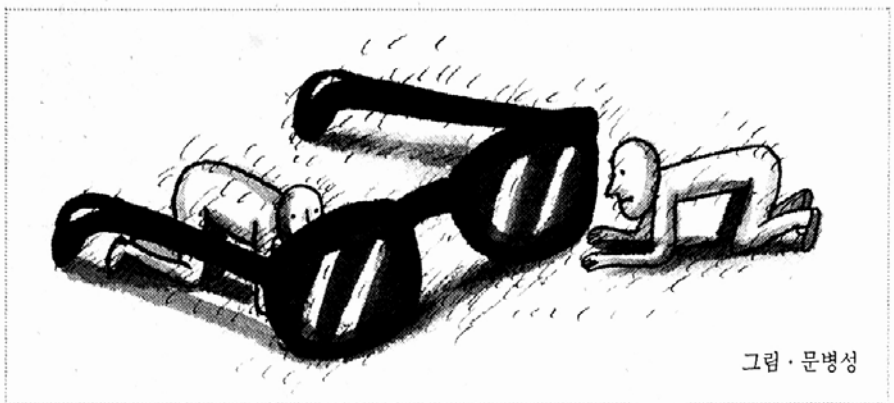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천지만물 있는 그대로 보라

불교와 과학 〈2〉

분별심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조카아이에게 집 앞 가게에서 양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뿌듯한 얼굴을 하고 들어온 아이의 봉투 안에는 양파는 없고 양파깡이 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어른이 시킨 심부름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세계 안에서 선택한 최대한의 행위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성곽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성곽 안에서 세계는 성곽 위에 비춰진 모습으로 제한될 뿐이다. 그러한 세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편견이고 선입관이 되는 것이며,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생관이나 역사관이라고 한다. 선입관과 인생관이라는 말의 뉘앙스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어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둘의 뉘앙스 차이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낳게 한 질곡의 원천이 되었다. 선입관의 장르와 인생관의 장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변증법적 과고의 압박을 견뎌내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역사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역사는 영원한 삶의 압박이 짓누르는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구과학의 역사는 이러한 압박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물 사이로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서구 고대 그리스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사람이 바라보는 사물의 세계 속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이는 사물은 진리의 진정한 거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객관성이라고 말했고, 객관성은 서구과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그 화두는 사물에 천착되었으며, 뉴턴과 같은 서구 근대 과학혁명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사물을 관찰하는 데에는 원천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과학이론을 형성해 가는 추론과정에 대한 기준이며 사물을 바라보는 밑그림과 사물을 과

과학적 분별따른 인간소외 현상 문명위기 핵심

학이론의 변수로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했다. 이 두 과정을 과학철학에서는 '정당화의 논리'와 '발견의 논리'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발견의 논리 즉 발견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과학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배경들, 사회적 관습들, 역사적 관성이라는 색안경을 벗어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보통 '관찰의 이론 의존성'(theory ladeness)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다. 즉 과학적 발견을 위한 어떤 경험적 관찰도 기존의 과학이론에 의해 주어진 사고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과학은 사람과 사물 사이의 영원한 갈등구조를 안고 가야만 한다.

과학의 이 같은 갈등구조는 대상을 바라보는 분별심을 만들어 놓았다. 분별심은 사물들을 차이에 따라 구분하고 비슷함에 따라 묶어 놓는 기능을 하였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분별심이라는 사유의 기능을 종/강/목으로 나누는 생물종의 분류방식에 유용하게 써먹었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 최초의 과학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학에서 분별심은 사람과 개별 사물 사이의 관계였다고 앞서 말했다. 이러한 과학의 분별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분별심을 사물에 적용하여 과학의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 했지만, 근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사람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소외의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주 이야기되는 문명위기의 핵심이다.

반면에 불교는 분별심을 지혜를 가리고 욕심을 자아내는 마음의 장막으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보는 분별심이 과학의 논리를 부정하는 메타포로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불교의 유식론은 분별력을 따져보는 장르에 속한다. 다만 사람과 개별 사물 사이에 적용되는 대상 인식론의 분별력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분별심은 해탈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에서 해탈의 자각심은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자각된 해탈이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언어라는 사다리가 조금은 필요한 듯하다. 일체언어도단(一切言語道斷)의 해탈이 공중환화(空中幻花)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언어 속에 묻힌 삶의 생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대인은 분별심의 경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선입관과 편견, 이기심의 고리인 사물화의 분별심에서부터 경계가 터진 광명(光明) 세계로의 마음의 전화(轉化)가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거울이기도 하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명상수련 받고 나니 폭력성격 바뀌었어요"

지구촌 불교 / 명상하는 죄수들

살인, 폭력, 약물 중독 등의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명상을 한다?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이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나 인도 티하르(Tihar)교도소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샴발라선〉(2000년 9월)지의 보도를 보면, 두 교도소의 '명상 프로그램'이 죄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범 예방에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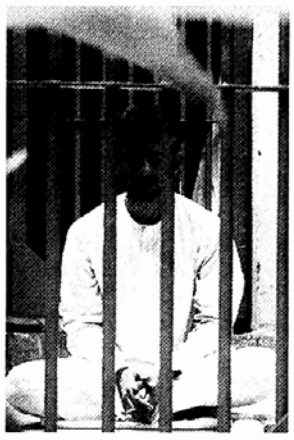
3년 전 살인죄로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토마스 A. 아론(31 · 미국)은 교도소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시작한 지 3년만에, 그에 대한 교도관들의 선입견을 일신했다. 교도관들은 "아론은 이 곳에 처음 왔을 때 분노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점잖고 남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론과 같은 죄목으로 지난해부터 인도 델리 외곽의 티하르 교도소에 수감된 부핀더 싱흐(23 · 인도) 역시 명상을 하면서 폭력적이던 자신의 품성을 바꾸고 있다. 수닐 굽타 소장(티하르 교도소)은 "그는 내면의 자신을 좇는 명상이 가능한 이 곳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그의 변화에 주목했다.

〈샴발라선〉지는 이러한 성공 사례에 대해 "각국의 교도소에서 인간방생이 실현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 성공 사례가 다른 교도소로 알려지면서 교도소 내 명상 붐(Boom)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는 재소자들이 명상 프로그램에 적극 참할 수 있도록 선방과 같은 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반성 · 이타심 함양에 최적"
美 · 인도 · 뉴질랜드 교도소 도입



◇명상중인 티하르 재소자.

있으며, 1975년부터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티하르 교도소에는 재소자 1만여 명 중 1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두 교도소는 미국과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도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파급 효과 역시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소 내 명상 프로그램은 미국과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뉴질랜드, 영국, 대만 등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원로 정치인 브리얀(前 자연법당 당수)은 '명상'과 같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브리얀이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뉴질랜드의 과학학회에서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공격성 등을 감소시키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71년부터 술 · 알콜 · 마약 등의 중독자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이를 면밀히 관찰한 과학학회는 〈교육심리학〉에 "500명을 추적 ·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재범 비율은 20%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과거 재범 비율은 52%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교도소에서 4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윌리암 로서(40 · 폭력)의 "교도소에서 명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그 다음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이다"는 말에서 과학자와 정치인이 재소자 교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명상을 떠올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2000년 10월 9일 배포!

살아생전에 「우리말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 용 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윤문
4×6배판 (크라운판) / 1,620면 (42g미색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순금 금장 양장 제본/ 인조가죽 카바

이조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질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법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 · 아귀 · 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제불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재팔난 · 관재구설 · 병고액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특히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 · 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 · 고암 종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 · 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혜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단체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불사회향 · 회갑 · 진갑 · 칠순 · 49재 · 100재 · 영가천도를 위한 법공양

단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 주문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4-7614, 739-8745 FAX (02)735-2344
·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937 (김정길)

문서포교에 앞장서는 弘法院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9-8745 / 734-7614 / FAX 735-2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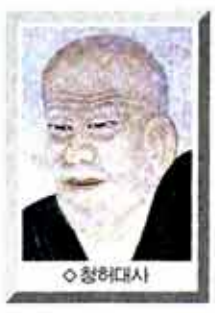

◇도선국사


◇대각국사


◇무학대사


◇지공화상


◇나옹화상


◇청허대사


◇기허대사


◇완파당 취관


◇용계당 우홍

큰스님 1백여분 한자리에 나투시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영파당 성규

직지사 '고승진영전'…11월 20일까지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스승의 형체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
스승의 정신이다.
스승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형신의 바깥 유무의 사이에서
구해야 한다."
(청암사 용암 채정 진영의
찬문 중에서)

구도의 길을 처열하게 걸었던 수행자들, 조사의 반열에 올라 신앙의 대상이 된 고승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삶과 정신은? 이런 궁금증을 한번쯤 가져본 사람이라면 김천 직지사에 가볼 일이다. 지금 그곳에는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직지사 설법전 앞.

등산복 차림의 여성불자 6명이 전시장을 기웃거린다. 그 중 50대 중반의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신문 기사를 꺼내들고 안내자에게 다가선다. "옛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 맞죠." 고승 진영 전시회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건네주며 안내자가 한마디 거든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전시회입니다. 고승들의 진영을 한 두 점씩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사진이 아닌 실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상한 안내를 받은 이 보살은 일행들의 소매를 잡아끈다. 몇 명이 눈치를 살피며 뜸을 들이자, 때를 놓치지 않고 안내자가 결정타(?)를 날린다. "일단 한번 관람해 보세요. 보시고 맘에 안 드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에 발을 디딘 일행들은 특이한 전시 기법에서부터 압도당한 모습이다. 투명한 사각형 기둥 속 하얀 천을 부과한 은은한 조명은 마치 스님과 마주 서 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생동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어 관람객들은 무심 스님의 안내로 100여명의 선사들이 한자리에 나툰 '고승의 숲'을 거닐며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진영은 일본 고신지(高山寺)에 소장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원효·의상대사. 두 스님의 진영이 모두 20세기에 그려진 것을 감안하면 이 진영은 획기적이 자료이다. 학자적인 모습의 의상과 막힘 없는 보살행을 행했던 원효의 모습을 비교하며 감상한 이들은 '보조국사 지눌 진영과 사명당 대장 진영' 앞에 선다. "현존하는 진영 가운데 제작 시기가 가장 앞설 뿐 아니라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는 무심 스님의 설명에 모두 왕눈이가 된다.

이어 이들은 지공·나옹·무학대사 등 여말선초의 고승들을 함께 봉안한 신륵사의 삼화상 진영, 여러 명의 고승을 한 화면에 그린 군상 형식의 직지사 조사탱, 초의 선사의 친필과 낙관이 있는 선암사 금암당 진영 등 94점과 고승들의 유물과 관계자료 19점을 빼놓지 않고 관람한다. 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진영은 현재 10점 정도 전하지만 인물, 자세, 장삼, 가사 등이 서로 다르게 표현돼 같은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 진영의 소품을 통해 고승의 사상을, 배경 그림을 통해 법호와 일화를 알 수 있다는 등의 무심 스님의 설명도 중간중간 이어져 진영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준다.

1시간 가깝게 전시장을 관람한 이들은 "천년동안의 고승대덕 스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자리를 뜰 줄을 몰랐다. 이 고승 진영 전시회는 11월20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국보급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금란가사도 전시되지만 아쉽게도 20일까지만 볼 수 있다. 한편 직지사 성보박물관 측은 전시회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을 도록으로 출간, 판매하고 있다. (054)436-6009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생동적 전시방법 스님들과 마주선듯 '시선고정'

의천스님 금란가사·초의선사 친필 등 귀한구경

고승진영이란

조사신앙 표현 종교미술

조선후기 진영제작 활발

선종 중심의 우리 나라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스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추모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 진영(眞影)이다. 따라서 진영은 일반 초상화와는 달리 불교의 조사신앙을 표현한 종교미술이다. 선사가 입적하면 화가를 불러 진영을 그린다. 가사 장삼을 입고 주장자나 염주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고승진영의 공통점이다. 자세는 의자에 앉은상과 가부좌상이 있는데, 조선 전기 이전의 진영이 의자상이다. 또 그림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길게 스님의 존호를 밝힌 영제를, 위쪽이나 별도의 칸을 만들어 제찬을 적었다. 제작연대나 제작자를 밝힌 화기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진영은 사찰의 비보(秘寶)로서 스님이 돌아가신 기일과 다례 때만 볼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진영의 대다수는 조선후기에 활동했던 스님들을 그린 것들이며, 가장 오랫동안 사찰에서 숭배되었던 스님은 원효와 의상 스님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진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일본 고산사에 봉안돼 있는 원효와 의상 진영이다. 현존하는 두 스님의 진영이 20세기에 그린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자료이다.


◇정봉당 경현


◇진암당 지순


◇남악당 영오


◇보조국사


◇직지사 고승진영전은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구도자들의 풍모와 정신세계를 살필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다.


◇사명대사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마 구이



"사명대사님! 큰일 났습니다. 식량과 무기를 탈취 당했습니다. 벌써 이틀씩이나 굶주리고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평양성 탈환을 위해 1,500명의 승군을 이끌고 달려온 사명대사는 할 말을 잃었다. 관아의 관군은 모조리 도망친 터였기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님은 다만 "잘 알았소. 부처님은 우리가 왜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요. 3일만 더 버텨도 화공으로 왜구를 무찌를 터인데…"하며 아쉬워했다.

깊은 밤, 잠을 못 이루던 사명대사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아미타불"을 되뇌며 대동강변 모래밭을 걸을 때였다. 발부리에 채이는 덩어리를 당겨보니 고구마 같은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닌가. 급히 비장과 수하스님을 불러 발새 채취한 그것은 마, 신비의 산약이었다. 마죽을 배불리 먹은 승군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승군이 허기에 지쳐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야밤에 기습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조선의 국운을 건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마'는 사찰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 종류도 마죽, 마밥, 마찜, 마구이, 마박무침 등 다양하다.

오래된 마는 산삼의 효능에 비견될 정도이다. 마를 넣은 밥이나 죽도 좋고, 또 가늘게 채를 썬 마를 살짝 구워 잘게 부순 뒤에 김이나 다시마 등을 넣어 초무침을 하면 상큼한 맛과 함께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입맛이 없고 피로할 때, 몸이 냉한 여성이나 아이들에게는 두유를 이용한 마두유수프가 좋다. 이외에도 신경통, 기침, 가래에는 마 20g에 물 3컵의 비율로 달여서 물이 절반으로 줄 때 식전에 복용하면 효험이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피부미용에 효과…설사 그치게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마 1개, 참기름 약간.

요리법 마를 원떡 크기로 어슷하게 썰어서 참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효능 ① 정신쇠약,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② 야뇨증, 당뇨에 좋고 지사제로도 쓰인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③

十方世界 量同虛空 爲佛境界故
시방세계 양동허공 위불경계고
一切諸佛 及以衆生 所有心境
일체제불 급이중생 소유심경
互相參入 如影重重 不說有佛無
호상참입 여영중중 불설유불무
佛世界 不說有像法末法 如是時分
불세계 불설유상법말법 여시시분
常是佛興 常是正法 此乃了義經
상시불흥 상시정법 차내요의경
但說有此方穢土 別方淨土
단설유차방예토 별방정토
有佛無佛處所 及像法末法
유불무불처소 급상법말법
皆爲不了義經
개위불요의경

시방세계란 곧 허공과 같아 전부가 부처의 경계가 된다. 그런 까닭에 모든 부처님이나 중생의 마음과 그 경계가 서로 합쳐지는 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겹쳐지는 것이니, 부처가 있고 없음의 세계를 말하지 않으며, 상

誓遵了義懇苦之言
서준요의간고지언
不依權學方便之說
불의권학방편지설

또 이르기를 '여래가 사견(邪見)에 빠진 일체 중생을 위해 출현하여 복덕의 경계에 대해 간략히 말씀했으나 실제로 여래는 나타나거나 사라짐도 없다. 오직 도(道)와 더불어 상응하는 자만이 지혜와 경계가 스스로 융합하여 여래는 출현하거나 사라진다는 소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선정(禪定)과 관조(觀照)의 두 문에 의해 마음의 때를 다스리는 것이다. 생각이 있고 형상이 있어서 아견(我見)으로 도를 구한다면 끝내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지혜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스스로 교만함을 꺾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무쳐야만 비로소 선정과 지혜의 두 문으로써 결정한다' 하였다.

옛성현의 가르친 뜻이 이러한데 어

道와 더불어 상응하는 자만이
지혜와 경계가 스스로 융합

법(像法:부처님 입멸후 1천 년의 정법시기가 지난 후의 1천 년 기간)이나 말법(末法)이 있음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항상 부처님이 출현하며 항상 정법이라 한 것이 요의경(了義經:절대 진리를 말한 경. 一乘實敎)이고, 더러운 세계나 깨끗한 세계가 있다거나 부처님이 계시는 곳, 안 계시는 곳, 또는 상법과 말법이 있다고 말한 것은 불요의경(不了義經:진실의 세계로 유인하는 방편의 가르침. 三乘權敎)이 된다' 하였다.

又云如來 爲一切邪見顚倒衆生
우운여래 위일체사견전도중생
示現出興 略說少分福德境界
시현출흥 약설소분복덕경계
而實如來 無出無沒 唯與道相應者
이실여래 무출무몰 유여도상응자
智境自會 不作如來出興滅沒之見
지경자회 부작여래출흥멸몰지견
但自以定觀二門 以治心垢 情在相存
단자이정관이문 이치심구 정재상존
我見求道 終不相應 須依智人
아견구도 종불상응 수의지인
自摧驕慢 敬心徹到
자최교만 경심철도
方以定慧二門決擇 先聖敎旨如斯
방이정혜이문결택 선성교지여사
豈敢造次 輒有浪陳
기감조차 첩유낭진

찌 감히 경솔하게 헛되이 보내리오. 맹세코 절대 진리의 간절한 말을 따르고 방편으로 베푼 말에는 의지하지 말아라.

我輩沙門 雖生末法 稟性頑痴
아배사문 수생말법 품성완치
若自退屈 着相求道則從前學得
약자퇴굴 착상구도즉종전학득
定慧妙門 更是何人 所行之事
정혜묘문 갱시하인 소행지사
行之難故 捨而不修則今不習故
행지난고 사이불수즉금불습고
雖經多劫 彌在其難 若今強修
수경다겁 미재기난 약금강수
難修之行 因修習力故 漸得不難
난수지행 인수습력고 점득불난

우리 사문들이 비록 말세에 나서 품성이 둔하고 어리석다 해서 만일 스스로 물러나서 형상에 집착하여 도를 구한다면 전부터 배워온 선정과 지혜의 묘문(妙門)은 누가 행해야 할 일인가. 행하기 어렵다 해서 버리고 닦지 않는다면 현재 익히지 않으므로 다겁을 지낸다 해도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만일 지금 억지로라도 닦는다면 그 닦기 어려운 행도 닦고 익힌 힘 때문에 점점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
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하노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
佛祖大活句 無傳亦無受
今付活句時 收放任自在

67년 향곡스님이 진제스님에게 내린 전법게다. 이로써 진제스님은 경허→혜월→운봉→향곡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었다. 54년 출가 이후 줄곧 선수행에 매진해온 진제스님은 선의 대중화를 위해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71년)했으며, 94년에는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96년 동화사 기초선원 조실로 추대되어 후학들을 이끌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추대법회 후 스님을 만나 태고선원 운영 방침과 선, 참되게 사는 길을 여쭈었다.

"온갖 갈등해소는 참선뿐"

진제스님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 1934년 경남 남해生
- 54년 남해 관음암에서 석우 선사를 은사로 득도
- 57년 통도사에서 지운 율사를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7년 향곡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음
- 71년 부산 해운대 장수산에 해운정사 창건
- 94년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에 추대
- 96년 조계종 기초선원 조실에 추대
- 2000년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에 추대
- 저서:〈선 백문백답〉 〈돌사람 크게 웃네〉 〈염화인천〉

—이곳 태고선원은 조계종립 특별선원입니다. 그 동안 조실스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 스님이 오셨으니 적막함을 씻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건지요.

▲여기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운정사와 동화사 두 군데의 조실만을 맡은 것만 해도 큰 짐입니다. 특히 해운정사만해도 40여명의 스님들과 90여명의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 여름 안거 해제를 하루 앞두고 봉암사 태고선원 스님들이 관광차에 타고 갑자기 찾아왔어요. 전날 대중공사를 해서 스님을 조실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가시지 않으면 몇 달이고 데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날 올라와서 해제법문을 했습니다.

태고선원은 우리나라의 선풍을 드날린 선의 대장소입니다. 제방에 선원이 있지만, 태고선원은 전국의 선객이 모두 모여 용맹정진하는 곳입니다. 상주대중과 호흡하며 정진에 몰두할 것입니다. 장군죽비로 경책해 인천(人天)의 스승을 배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동화사 기초선원장 소임은 후임자가 나오면 즉시 그 스님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놓을 것입니다.

—참선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은 모든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조금의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마음광명이 뚜렷이 밝아 있는 분이요, 중생은 번뇌의 구름에 가리워져 마음이 어둡고 미(迷)한 자입니다. 이 마음은 만중생이 다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고 있지만 그 광명이 밝지 못하므로 각자의 업(業)을 좇아서 천갈래 만갈래의 번뇌에 휩싸입니다. 아만심 시기심 질투심 탐심 애정 공포 불안, 이러한 잡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쉴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선법을 익혀 꾸준히 정진한다면 마음의 번뇌가 다 하고, 마음의 번뇌가 다 한 거기에서 마음광명이 뚜렷히 밝아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항시 밝아서 즐겁고, 온갖 업의 장애가 다 소멸되므로 세상사 모든 것이 원(願)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참선법은 누구라도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지도하는대로 행한다면, 금생에 모두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여 나고 날 적마다 멋진 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체성(體性)을 본 이는 세상법에 물드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체성은 어디 비유할 데 없이 항시 밝고 깨끗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이는 어느 곳에 처해도 물드는 바가 없고 홀로 당당한 법입니다.

—요즘 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원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선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외국 종교를 좋아했지, 불교의 진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온갖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선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인 뜻은 무엇이며, 자리를 나누어 가사를 같이 두르고 앉은 뜻은 무엇이며, 또 두 발을 내미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혁파해야 합니다. 모든 후손들이 부처님의 이 살림살이를 깨달아, 거기에서 백천 가지 공안이 벌어진 것입니다.

화두를 깊이 의심하면 만 가지 소리가 스쳐지나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찰나에 만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화두선은 임제가풍인데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활구참선은 오직 한국에 있습니다. 희양산에서 도인이 나와 세계에 활구참선법을 유포하려고 이 곳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화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깨달으신 경계를 만인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깨달은 진리의 세계에 옛것이 있고, 오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분종사(本分宗師)들은 항시 최고의 화두를 간택해 줍니다. 사람마다 모양과 이름이 다르듯 화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아무개입니다 한다면 통하지 않겠지요. 백천 공안도 이 같은 이치입니다.

선지식이 공부하는 이에게 천칠백 공안 중의 한 화두를 주나, 의심을 물어서 한 마디 던져주든 상대방이 얼마만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음을 갖고 참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가 무슨 화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大道)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선지식이 던지는 한 마디가 금쪽같은 것이 되겠지요.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라고 보십니까? 위빠사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년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컬러만화로 보는
허준의 처방 동의보감

건강진단에서 한방 처방전까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원전에 충실한 해설, 한 눈에 쏘옥 들어오는 컬러그림!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는 생활속의 한방의학 만화백과입니다.



1권: 정력과 활기편
건강장수, 정력증강, 건강한 임신, 중풍치료, 각종 해독 등

2권: 장부의 원기편
신장, 힘줄, 허리, 다리, 전음, 허약 등

한약재의 효능과 조제법이 친절히 설명
다양한 한약재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제 처방대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책입니다.
박천수 전주 민속한의원장

온 가족의 건강상비서로 활용하시길
우리 체질에 맞는 진단, 재미있는 해설, 알기 쉬운 처방이 담긴 이 책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황수관 신바람건강박사

글 · 그림 이정민 | 감수 허태현(한의학 박사) | 각권 8,500원 | 전2권

태일 건강 총서

호기심 박사 황수관의 건강 따라하기
황수관 지음
황수관 박사와 함께 따라해 보는 매일매일의 건강지침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노화방지법을 찾아볼 수 있다.

뼈와 장수의 묘약 홍화씨 건강법
이인우 · 최진규 지음, 김관호 감수
부러진 뼈, 골다공증을 고치는 데 신통한 효력이 있는 홍화씨. 뼈에 관련된 여러 질병의 예방법 또한 나와 있다.

초두루미 구관모의 옛날 식초 장수법
구관모 지음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치유하는 식초 요법. 식초 한 병이 산삼 만 뿌리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氣치료와 생식요법으로 병을 고친다
강형희 지음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食은 운명을 좌우한다
미주노 담보꾸 지음, 다이이레이이치로 편저, 최진호 편역
인간의 빈부와 수명, 미래의 운명까지도 음식으로 결정된다. 무절제한 현대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

不老長生의 지혜
최진호 지음
세계 장수촌과 선인들에게서 캐낸 건강 장수의 비밀. 노화와 장수에 대한 20여년 연구의 성과물을 모았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허준의 후예들
김성수 엮음
한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한의대생들, 허준 같은 명의를 꿈꾸는 한의사들의 체험과 당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민속한방의학으로
난치병을 다스리고 예방한다

전주 모악산 기슭에서 각종 암, 관절염, 디스크, 통풍, 신경통, 산후통, 루푸스 환자들을 치유하며 얻은 생생한 기록!

민속한방의학으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
유황약오리를 이용한 약물요법 · 항암약차 요법 · 쑥뜸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난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호도유 요법 · 수맥과 건강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기공 · 단전호흡



박천수 · 김인택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328p | 9,000원



민속한방의학으로 관절염을 이겨내는 방법
관절염 · 신경통 · 산후통 · 허리디스 · 크건비통 · 통풍 · 루푸스 치료법
한방약물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약치요법 · 쑥뜸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적절한 운동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단전호흡

박천수 · 김인택 지음 |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232p | 8,000원

"화두들면 가는곳마다 일등선방"

"마음은 부처-중생 차별없어요"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소승보살사상을 세상에 널리 펴는 일등포교사입니다. 그러나 대오견성의 안목을 갖춘 분은 아닙니다.

조사선이 곧 여래선이고, 여래선이 곧 조사선인 것이니, 그것은 고인들의 자재처(自在處)를 식파(識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빠사나, 묵조선은 참선이 아니며, 몇 생을 거듭해도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스님께서는 "물질은 인생을 황폐한 것으로 몰아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마음의 고향에서 멀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독이 우리 몸에 퍼지면 온전히 거동할 수 없지요.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를 삼독이라며 경계할 것을 당부하셨지요. 청정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이뤄놓은 재물이라면 당연히 만인을 위해 베푸는 데로 돌아갑니다. 자비심으로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행위입니다. 회향할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값진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스님의 회상에는 출가자들은 물론 재가불자들도 모입니다. 깨달음에는 출·재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인지요. 수행하는재가자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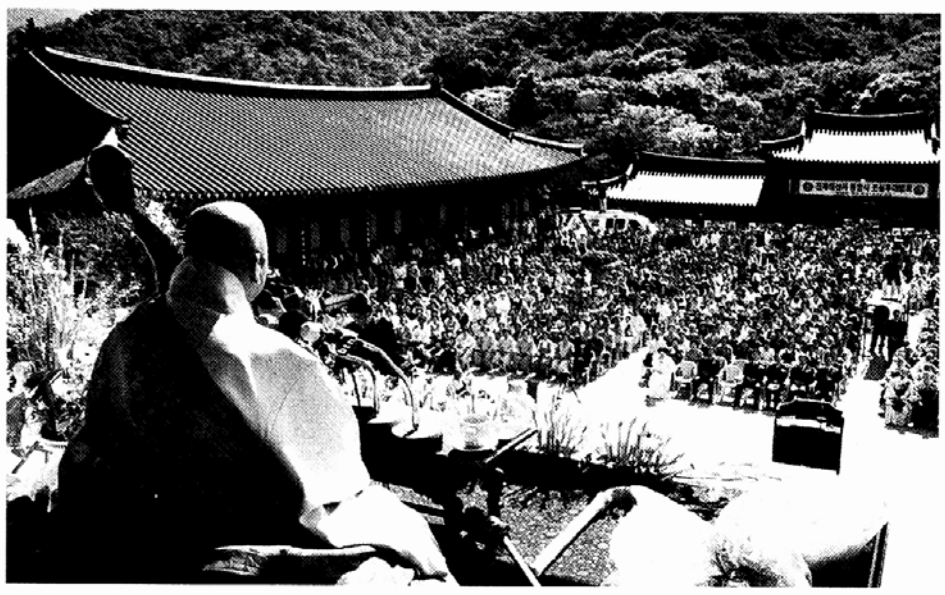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의 유마 거사, 마조도일 밑에 방 거사, 이 두 분은 출가승이 아닌 재가자의 신분이지만 유사 이래 두 분의 거사를 능가할 안목자는 없습니다. 유마 거사는 부처님과 동일한 안목을 갖추신 분인데, 지혜와 변재와 신통,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그 법기틀을 씀이 참으로 자유자재하였습니다.

참선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른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아서 걸음걸이에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부엌이나 안방이나 사무실이나 가는 곳마다 다 일등선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을 익히지 않고 앉을 때는 화두가 있는 듯하다가 서면 달아나고 걸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짓는다면 백 생을 하더라도 진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든가 한 화잡담(閑話雜談)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옆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강도있게 화두를 챙기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챙기면, 보고 듣는 것이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은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아주 간절한 한생각만 흐르는 물과 같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진수인 선을 참구하는 참선수행법입니다.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오장육부에 사무치도록 지어간다면, 시절인연을 만나 확연히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신심과 분심(憤心)을 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승 없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쪽 하늘만 보고서 우주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광대무변한 세계는 스승 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12일 열린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추대법회에서 진제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래지에 이르면 세간법이 곧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라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는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바람이 불면 풀이 스스로 흔들린다

진제스님 태고선원 조실 추대법어

踏破千聖頂額上하니
世法佛法不思議로다
일천 성인의 이마 위를 밟아 파하니
세간법이나 부처님법으로는 사의치 못함이로다.

識得主丘杖子하면
一超直入如來地로다
주장자 진리를 아실 것 같으면
한번 뛰어서 여래지에 이름이라

여래지에 이를 것 같으면,
세간법이 곧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로다.

眞道而行風行草偃이라
참 진리의 도를 행함에
바람이 불면 풀이 스스로 흔들림이로다.

우리 부처님께서 49년 설한 밖에 선(禪)의 종지(宗旨)를 선양함이니 이것이 바로 선의 진리의 묘한 맛이로다.

때로는 부처님께서 대중(大衆)에게 꽃을 들어 보이셨고,

때로는 자리를 반을 비켜 앉으셨고

때로는 두발로 내어 보이심이로다.

이 세 지 선(禪)의 묘미 밖에 또 한 깊고 은 한 관문을 들어 보이시니 천하야호(天下野狐)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함이라.

하루는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법문을 다해 마치시자, 모든 대중은 각자의 처소로 다 돌아갔는데, 한 여인이 부처님 법좌 아래서 갈 줄을 모르고 앉아 있거늘, 문수보살이 그 광경을 보고 부처님께 여쭙기를, "모든 대중은 다 각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저 여인은 어째서 자리를 뜨지 않고 저렇게 앉아 있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여인이 정(定)에 들어 있으니, 문수네 신력(神力)으로 저 여인이 정에서 나오게 하여 보아라."

말씀이 떨어지자, 문수보살이 신통으로 백천문수를 허공 중에 나투고, 위요삼잡(圍繞三匝,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존경을 표하는 의식)을 하고, 가지 가지 방편을 다 하여도 여인이 정에서 나오지 않거늘, 부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문수, 문수야, 네가 비록 백천신통묘용(百千神通妙用)을 나투어도 너의 신력으로는 저 여인을 정(定)에서 나오게끔 못하리라. 하방(下方)세계 42국토를 지나갈 것 같으면 망명초지보살(罔明初地菩薩)이 있어서 그이라야 저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끔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올라 부처님께 예배하니, 부처님께서 앉아있는 여인을 가르키면서 "저 여인이 정에 들어 있으니 망명 네가 여자를 정에서 나오게끔 하여 보아라" 하시니, 망명보살이 앉아 있는 여자옆에 가서 손가락을 세 번 튕기니 여자가 정에서 나옴이로다.

대중아!

문수는 과거 칠불의 스승이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끔 못하였으며, 망명은 초지보살이거늘 무슨 장처가 있어 손가락 세 번 튕기는데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끔 할수 있었느냐?

이 법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높고 깊은 법문인지라

이 법문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부처님 살림살이와는 거리가 멀음이로다.

시회 대중은 알겠느냐?

良久云

海枯終見底나
人死不知心로다
바닷물이 마르매 바다 밑은 볼 수 있음이나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지 못함이로다.

일할(一喝)하시고, 하좌 하시다.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대석스님

고즈넉한 저녁노을이 그 아름다움을 어둠 속에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소리없이 풀섶에 스러지는 초저녁, 조실채 댓돌 위 고무신 두짝만이 유난히 희어 보이던 날이었다. 가끔씩 철이른 낙엽이 앞마당을 훑고 지나가지만 조실채 창호지 밖으로 비치는 두 그림자는 석고처럼 굳어 움직일 줄 몰랐다.

방안, 곱게 정돈된 채 한쪽 벽에 밀쳐둔 다구와 몇 권의 고서만이 초저녁의 쓸쓸함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저 말없이 가부좌를 튼 채 정좌하여 염주알만 굴리는 청화 노스님의 모습은 인자한 촌 할아버지를 닮아 있었고 꽉 다문 입술 밑으로 무언가 말을 할 듯 말 듯 한 행자의 모습은 좌불안석이다. 한참을 그렇게 뜸을 들인 후 이윽고 행자가 말문을 튼다.

"스님, 제가 여태껏 이십 여년을 '대석'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중생활에서도 꿋꿋하게 큰 돌(大石)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명 또한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돌한 행자의 청탁이다. 찬찬히 행자를 보고 계시던 노스님,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하려무나" 한마디 툭 던지고선 염주를 감아 들고 일어서신다. 절집안에서 출가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로 여기며 다시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계를 주시는 계사스님이나 은사스님이 새로운 이름 즉 불명(佛名)을 지어 주는 것이 법도다. 그런데 이 당돌한 행자는 은사스님의 불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노스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순순히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원대로 불명을 속명과 같은 대석(大石)으로 사용케 되었으니 그 이름 또한 불가에서의 인연이 지중하였던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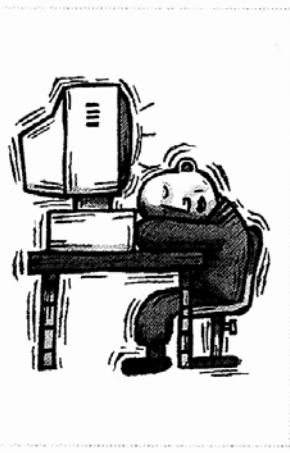
속명을 불명으로 사용

현재 수행처서 온몸공부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대석스님의 사제되는 행자가 같은 이유로 노스님을 찾아뵈었다가 혼쭐이 났으니 노스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없지만 대석스님의 심지가 굵고 단단함을 일찍이 간파하시고 '큰 돌(大石)'로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건 아니었을까.

대석스님을 보면 옛날 영화에 나왔던 E.T가 연상된다. 굵은 안경테 밑으로 씨익 웃어 보이는 그의 미소는 가히 천만불 짜리다. 귀밑까지 올라가는 입술의 크기는 그렇다 치고 봄바람일 듯 살랑살랑 눈웃음치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E.T를 닮았다. 그러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좋아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다. 직원들의 세세한 사연을 끔찍히 챙겨주고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스님이다.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열의와 고집 또한 남달라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일이 없다.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무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바윗돌(大石)같은 스님이다.

새벽 네시, 밤새 빛을 발하던 형광등도 졸고 있을 시간이다. 밤늦도록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 떠나버린 텅 빈 공간에 대석스님 혼자만이 남아 있다. 한쪽 책상머리엔 컴퓨터도 졸리운지 깜박거린다. 그제서야 스님은 기지개를 한번 켜고 누비옷으로 앞을 가린 후 잠을 청한다. 이런 생활이 그에겐 전혀 불편이 없다. 어쩌면 그에겐 온돌방에 편안히 누워 잠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대장경연구소 초창기, 모두가 대장경 전산화란 작업이 꿈속의 잠꼬대라고 비웃을 때 홀연히 전산화작업의 중요성을 깨달아 동참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편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그다. 일본에서 공부하시던 종림스님께서 귀국하여 세계 최초로 대장경의 전산화작업을 시작할 무렵 전자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일본조차 대장경의 전산화는 엄두도 내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모두가 외면하고 헛고생 말라고 말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추운 겨울날엔 연구소 바닥에서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라면 한끼로 허기를 달래며 칠 팔 년을 견뎌왔으니,



이제 전산화의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는 지금의 고생이 그에겐 고생도 아니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요즘 대석스님은 곡성 성륜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다. 은사이신 청화 큰스님께서 당부하신 일이라 차마 거절을 못했지만 일주일에 꼭 2~3일은 서울로 올라와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 늦은 저녁 고속버스나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한 후 밤새워 일을 하고 다음날 또 내려가는 대석스님의 뒷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어느 유행가 가사 한 구절이 생각난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 지는가.'

무턱대고 살아온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순간이다. 모든 사물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고 한다. 자신이 현재 처한 수행처에서 온몸을 던져 수행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큰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대석스님이 오랫동안 애써왔던 작업, 이체자(異體字) 자전(字典)이 12월이면 완성된다. 대장경 연구에 있어 더할 나위없이 훌륭한 업적이 될 이체자 자전의 완성으로도 대석스님은 '아름다운 큰 돌, 바윗돌'로 불교계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 틀림없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설산스님 에세이

알몸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 스님의 구도 에세이

· 영혼결혼식, 그 질긴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젖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8월31일 출연

*Home Page address:http://www.seolsan.com / *저자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303-0024)
♣ 무료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받습니다. (Tel:303-0024)

대표전화 586-0477
팩시밀리 586-0478
도서출판 청어와 삐삐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 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태 불 교

본 사 02) 737-8881
강릉지사 033) 643-5577
고성지국 055) 672-0078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부산지사 051) 463-5331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울산지사 052) 257-7737
진주지사 016) 585-2120
제주지사 016) 695-6885
충청지사 042) 527-0559
일본지사 031) 713-5111



한·중·일 100가지 茶 맛볼 기회

전등사 22일 '차문화 교류'



한국 중국 일본의 차 1백 가지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강화도 전등사에서 차와 음악, 도자기와 서화가 어우러진 대규모 차회를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전등사내 가궐지 일대에서 열리는 것.

한국의 전통 녹차와 전등사에서 개발한 인삼녹차를 비롯, 중국의 백차 화차 흑차류, 대만의 오룡차류 철관음류, 일본의 말차 전차 등 1백 가지의 차들이 한자리에서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1백 가지 차와 함께 전통 다식을 현장에서 선보이며, 육법공양과 한중일 행다법 시연, 차 맛을 더하는 각국의 다악 공연도 이어진다. 또 도자기 전시, 휘호제작, 한지공예, 전통목공예품 전시 등 풍성한 행사들이 경내에서 펼쳐진다.

"옛 선조들이 차를 통해 문화와 정신을 나눈 것처럼 귀한 차를 달이고 나누어 마시며 동양문화의 정수인 차의 향기 속으로 빠져보자는 의도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는 준비위원장 범우스님은 "고려시대부터 우리 차 문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전등사는, 최근 경내에 죽림다원을 열고, 강화 인삼녹차와 홍삼녹차를 개발하는 등 차 문화 전승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발효정도에 따른 10가지 대표적인 차를 시음할 수 있는 유료 시음코너와 무료 시음코너 등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직접 차 맛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1백 가지 차를 모두 맛보기 위해서는 강화도 전등사에 미리 전화 신청을 해야 한다. (032)937-0125

이은자 기자

가을 속으로 들어간 예술인들

따사로운 가을 햇살아래 들녘의 곡식들도 황금 옷을 갈아입고,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요즘, 우리 전통의 바탕 위에 현대적 미감과 창작의 묘미를 가미한 생명력 넘치는 문화 예술공연들이 있어,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롭다.

법현 스님
산사예불과 범패결합 '2001-소리 스펙터클'

혜안 스님
독특한 선판화 작품 잇달아 국내외 소개

동희 스님
한미경제인단체 초청 영산재 미국순회공연

이기향 교수
옷에 담은 불교이미지 대구·서울서 '의상전'

● 불교전통음악, 무대언어로

올해 연이은 해외 공연 등으로 누구보다 분주한 법현스님(동국대 교수, 영산재 이수자)은 6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개막기념 창작무 '대천(大天)'을 선보여 국내외 영상예술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법현스님이 연출과 음악을 맡고 김향늠(창원대 무용과)교수가 안무한 대천은 하늘의 소리 즉 부처님의 진리인 묘음을 현대적 음악과 춤사위로 무대 언어화한 것이다. 28명 무용수의 역동적 동작과 불교음악이 어우러져 정중동의 깊은 선적 세계를 선보인 부산공연에 이어 법현스님은 17~19일 전주 전북대문화관에서 열리는 세계소리축제에서도 세계인들에게 우리 불교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소리축제에서는 산사예불과 범패를 결합한 '2001-소리스펙터클'이란 제목으로 상고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우리 음악의 역사를 불교정신과 사찰음악을 중심으로 펼쳐보일 예정이다.

● 영산재, 미국인들에게

비구니 유일의 영산재 이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희스님도 15~30일까지 코리아 소사이어티(한미경제인 단체) 초청으로 미국 순회 공연길에 오른다. '한국의 불교의식과 소리와 춤'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려질 이번 미국 순회공연은 뉴욕의 심포니 스페이스, 워싱톤의 케네디센터 등 주요 도시 유명 극장에서 이미 표가 매진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희스님은 공식일정 외에 워크숍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영산재와 한국의 불교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희스님의 뉴욕 심포니 스페이스 공연은 Zev Gubur(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사)가 녹화해 〈세계 종교음악과 춤〉시리즈에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순회 공연과 더불어 스님은 영산재의 모든 것을 담은 화보집 〈한동희스님 영산대작법〉도 발간했다. 이 화보집은 지난 95년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영산재를 담은 것으로 영산재의 역사적 배경, 구성, 의식절차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구니로서 범패승 계보에 오른 한동희 스님의 행장을 영문과 함께 실었다.

● 관화 위 '선의 경지'

불교 선(禪)판화라는 독특한 미술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혜안스님(조계종 재정국장)은 연이은 전시로 불자들과 만난다. 혜안스님은 20일 까지 대구 동화사 대불전 특별전시실서 '불교판화초대전'을 17~22일에는 아셈국제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봉은사 불교문화제에서 '전통문양판화전'을 연다. 또 오는 11월 18일~24일에는 미국 뉴욕 미주코리아저널사 주최 미국 초대전 '공(空)-혜안스님 불교전통문양 및 선판화전'을 뉴욕 한국 문화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경에는 미국 태고사 법당건립기금 마련 목판화 초대전도 계획중이다.



◇6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기념공연으로 선보인 법현스님의 '대천'은 국내외 영상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판화가 혜안스님 作 '스님이 좋아하시는 연못가…'

● 패션과 불교의 만남

불교적 이미지를 의상을 통해 표출해 온 이기향교수(한성대 의상학과)가 결혼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이교수는 10~16일 대구 섬유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제4회 패션 아트전에서 연꽃을 문양 디자인하여 불교이미지를 담은 웨딩드레스 '하얀 연꽃의 새악시 1.2'를 발표했다. 이교수는 또 18~19일에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의 이미지' 전에서 영산재의 종합예술적 요소를 춤과 의상, 소리와 설치미술로 재구성한 '영취산의 환희-의상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27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로타리 3650지구 국제 지구대회'에서는 '천년의 흐름-옷과 몸짓의 만남'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북한산 심곡암 21·22일 '단풍축제'



"너와 나 우리, 그리고 만물이 하나!"

무르익은 가을 단풍 속에 부처님 말씀이 예술과 어우러진 제2회 북한산 심곡암 단풍문화축제가 21~22일 열린다.

북한산 형제봉 아래에 자리잡은 심곡암 도량에서 열리는 이번 단풍축제는 21일 오후 2시 정일스님 초청법문으로 시작된다. 심오한 선(禪)의 묘리를 스님께 직접 들으며 자연과 인간, 진리와 삶이 하나임을 깨닫는 법석을 여는 것이다. 이어 경내를 향그러운 다향으로 채울 보타다도회 강경순회장의 다도시연과 무형문화재 가사 이수자 41호 박종순씨의 우리 시조 낭송, 클래식 키타리스트 서승완씨의 연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의 노래와 승무공연이 산사의 가을을 한껏 달굴 예정이다. 또 29일까지 경내에 단풍과 어우러진 선화가 기현스님의 선서화전도 열려, 모처럼 산사를 찾은 불자와 참배객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문화적 향취를 맘껏 즐기게 해 줄 것이다.

주지 원경스님은 "굳이 멀리 있는 설악산을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산사에서 계절의 변화속에 숨쉬는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자는 의도에서 단풍문화축제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단풍문화축제를 열어, 더 가깝고 친근한 사찰의 면모를 다지는 데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02)914-8860

이은자 기자

전시



◇무유스님 作 '금니연화'.

황금빛 불보살세계

무유스님 불화전 불보살과 연화의 세계를 황금빛 금니로 그려낸 보기 드문 불화전이 열린다. 17~23일까지 부산 농원아트홀에서 열리는 '무유스님 금니불화전'이 바로 그것. 무유스님의 세번째 금니불화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2년 여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기룡관음상, 연꽃, 금니달마도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대담하고 담백한 선에서 풍어 나오는 청정함과 넉넉함 속에 담긴 내면의 열정을 한껏 맛볼 수 있다.(051)727-1216

디지털과 만다라세상

도열스님 작품전 화가 도열스님이 21~27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21세기적 티베트 만다라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석도열의 디지털-더 아트 오브 만다라' 전을 갖는다.



티베트 만다라의 우주적 메시지에 이끌려 붓을 들기 시작한 스님은 그동안 만다라를 소재로 한 유화 작품 개인전을 6차례나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그동안의 작업에서 벗어나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해 전혀 새로운 양식의 만다라화를 선보인다. 스님이 직접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 만다라의 이미지를 변형 조합해 '생명의 노래' '코스모스-여행〈사진〉' 등 35점의 새로운 만다라를 표현해 냈다. (02)733-5322



◇정정웅 作 '적막강산16'.

과감한 생략의 결과

정정웅 선화전 중견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지난 1978년 화가의 길에 들어선 후 20년간 수묵의 번용이 표출하는 선화 작업에 몰두 해 온 화가 정정웅씨가 18~24일 갤러리 서호에서 다섯 번째 선화전시회를 연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그동안 경남 양산에 낙향해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제작한 것들로 과감한 생략과 절제의 미를 살린 21편의 연작이다. (02)723-1864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 · 입문편	102 - 교리 ·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화 · 학술편	502 - 문화 · 학술편
2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표리를 푼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꾹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쳐주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86 반형 242쪽 / 값 5500원	이제열 지음, 86 반형 196쪽, 값 4500원	초격 스님 편역, 86 반형 179쪽, 값 4000원	혜능 스님 역음, 86 반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반형 276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반형 278쪽 / 값 5500원	한형조 지음, 86 반형 306쪽, 값 6000원	이중천 지음, 86 반형 392쪽,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86 반형 196쪽,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86 반형 19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벗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생생한 불교자료 찾아 6년간 방방곡곡 누벼"

스스로 '근현대불교 개척자'라고 부르며 고된 학문의 길을 걸어온 김광식 씨(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가 근현대불교사 3부작 〈한국근대불교사 연구〉,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이상 민족사)을 완간했다. 40여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세권은 그가 지난 93년부터 6년여동안 발로 쓴 책이다. 1910~1962년까지를 정리한 이 책들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실은 아직도 미답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가 책에 적은 것은 찾아냄이고, 문제제기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근현대불교사 3부작을 기초작업밖에 안된다고 말한다.



―근현대불교사 연구를 하게된 이유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현대불교사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답답했다. 그래서 용성 스님을 시작으로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근현대불교사를 연구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관점이다. 특히 근현대불교사는 성찰(반성)과 발전(애정)적 시각이 병행돼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객관적 서술을 할 수 있다. 특히 근현대불교사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애정을 갖지 않으면 치부를 드러내는데 치우치기 쉽다. 게다가 우리가 근현대불교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불교 발전이라면 여법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남다른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근현대 불교사 반성뿐 아니라 포용도 필요

―연구활동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관심이다. 학자의 보람은 논문과 책을 발표했을 때 반응들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분야를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철저한 연구와 설득력 있는 해석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개항부터 1910년까지와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불교사를 연구할 생각이다. 이 정도만 정리돼도 근현대불교사 연구의 뼈대가 정리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식 씨는 불교학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지만 근현대불교를 파두로 삼아 일가를 이뤄왔다. 지금은 그가 펴낸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없어선 안될 스승이다.

김중근 기자

책과 삶

'한국근대불교사연구' 펴낸
김 광 식

헤세가 동양에서 배운 진리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 이인웅 지음

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들었던 헤르만 헤세(1877~1962). 그는 무엇 때문에 동양의 정신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을까.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두레)는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동양 정신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이를 통해 그가 동양의 지혜에 얼마나 심취했고, 또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보여준다.

글쓴이 이인웅 교수(한국외국어대)는 동양의 정신세계에 깊이 젖어든 헤세 작품의 소재와 모티브, 인물의 출신과 성격, 문학정신과 사상에서 동양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지혜의 고전들을 인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동양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여 작품화했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불교의 주요사상인 윤회, 번뇌, 열반 등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 이를 토대로 불교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살펴보자.

환생 등 작품 모티브 분석
불교=문학의 뿌리 밝혀

번뇌에 관한 교훈이 문학적으로 자주 표현되는데 인도의 시(詩)를 책으로 엮은 〈싯타르타〉가 대표적이다. 고타마 장에서 헤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방식대로 문학화 하고 있다. 〈싯타르타〉 이외에도 헤세의 작중 인물들은 대부분 번뇌하는 사람들이다. 〈수레바퀴 밑에서〉의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러, 〈유년시절의 영혼〉의 일인칭 인물, 〈클라인 바그너〉의 프리드리히 클라인, 〈데미안〉의 에밀 싱클레어 등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며 그에 순응하는 데,



◇노년의 헤세와 두 아들.

이는 번뇌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한다. 〈차라투스트라의 귀환〉에서의 번뇌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헤세는 '삶이 곧 번뇌(苦)'임을 문학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불서 읽기를 즐겼던 헤세는 1910년에 발표한 소설 〈게르트루트〉에서 윤회사상을 기둥 소재로 쓰고 있다. 또 〈크놀프〉의 주인공인 방랑아의 인생사에서도 모든 피조물의 환생과 관련된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동양적 사상이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갖가지의 죽음〉이란 시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수많은 차원에서의 동양적 환생에 대한 사상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돼 있다. 이러한 헤세의 불교적 윤회사상은 크네히트와 영혼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모습에 관한 기록들, 즉 〈유리알의 유희〉에 서술된 '이력서들'이라고 이름한 다섯 개의 기록적인 작품에서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그의 작품들 속에는 곳곳에 불교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

헤세는 진정한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다고 한다. 이는 헤세의 문학세계가 동양사상 특히 불교 사상에서 발원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이세열 '직지 디제라티'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직지〉. 교과서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나와있는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 초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책의 역사' 전시회에 출품되면서부터다. 수백 권을 찍었지만 하권 한 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이다. 여러 차례 프랑스에 반환을 요구했지

직지가 주는 정보화 메시지



만 아직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직지 연구가로 알려진 이세열 씨가 1996년부터 기고했던 칼럼·기고·투고들과 199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던 것을 정리해 〈직지 디제라티〉(도서출판 직지)로 엮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 동안 번역서나 해설서, CD-ROM, 인터넷 사이트,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지를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아직도 일반인들이 〈직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우선 〈직지〉가 불경이 아닌데도 〈직지심경〉이라고 잘못 알려진 사연을 밝힌다. 프랑스에 있는 원본에 누군가 '직지심경'이라고 쓴 붓글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디지털(Digital)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지식인이라는 의미인 리터라티(Literati)의 합성어인 디제라티(Digerati)란 책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금속활자로 대표되는 인쇄술의 발달이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 확산시켜 민주주의,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 현대문명의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직지의 창의력을 이어받아 정보혁명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다. 값 8천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생활속 불법수행

강옥구 '일만송 수행일기'



믿음과 실천은 하나이다. 본질을 향해 겉옷을 벗겨가면 둘 다 '깨침'이란 불교의 궁극적이 목적에 들어있다. 이는 승가와 재가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옛 조사들은 부처님을 향한 돈독한 신심과 함께 수행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

재미 시인 강옥구 씨가 펴낸 〈일만송 수행일기〉(동쪽나라)는 '보리방편문' 일만송을 중심으로 어떻게 믿음과 실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아, 달라이 라마 지혜의 큰바다〉를 번역해 우리 나라 불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강 시인은 지난 9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청화 스님을 만나 수계를 받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이 책은 청화 스님의 권유로 '보리방편문'을 1만 번 독송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일기 형식을 빌어 쓴 글이다. 글쓴이는 청화 스님의 법문집을 공부하면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공(空)의 도리를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라 이해하고 생각과 행위를 '나'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보리방편문 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깨달음 엿보기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나를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부처님의 육성 '초전법륜경' 모음

범라스님 편역 '초전법륜경·무아경'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설하고자 했던 가르침은? 불자라면 이러한 의문은 한번쯤 가졌을 것이다. 〈초전법륜경·무아경〉(화은각)은 이런 물음에 답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초전법륜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를 모아놓고 한 첫 설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전이다. 부처님은 이 경전을 통해 중도의 가르침과 그 수행법으로 4성제를 제시하고 있다. 〈무아경〉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다음 '나'의 실체가 없음을 밝힌 경전이다. 원래 없는 '나'가 있다고 집착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이 두 경전은 부처님의 첫 말씀이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전이다. 이 책은 미얀마에서 수행하며 〈위숟디 막가〉와 〈아난 존자의 일기〉 등 남방불교의 책들을 번역 소개한 범라 스님이 편역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2	석가모니 지혜동화	허 순 봉	은 하 수
3	석가모니 슬기동화	허 순 봉	은 하 수
4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5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 색
6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7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8	영가천도 ·	우 용	효 림
9	심천사혈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10	아난존자의 일기1	범 라	운 주 사

도서 안내:(02)737-0695

E-mail: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명상
TEL. 733-4277(代) FAX. 733-4279

묘굿과 진오귀굿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너희가 편하지
신국판/값 7,500원
저자와의 만남 031-921-5445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민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살아 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선몽받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접신이 이루어져 웬만해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묘굿과 진오귀굿에 특히 강하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삼아야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평온하고 행복해진다고……

최근 정 회장(정주영 전 명예 회장)이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청운동 집을 떠나 가회동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서울」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녀로서 치유 능력이 각별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자 승무원 세 사람이 무꾸리를 하러 왔다. 7월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직장을 그만 두고 시집가는 게 좋겠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았고 두 사람은 괌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범의 「무녀별곡」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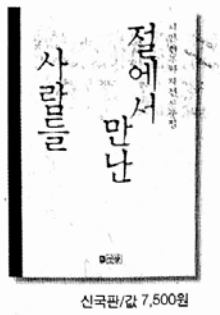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법흥 큰 스님…….

명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묵 스님…… 불가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허일지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훈훈하게, 때로는 뭉클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신국판/값 7,500원

월정사 "전면발굴" 요구
문화재청 "부분 조사만"

18일 학술세미나 열어
팔각구층석탑 '조명'

월정사 땅속 1m '숨겨진 진실'

구층석탑 기단석·석조좌상 좌대 발견
가람양식-역사 밝히는 단서될 듯



◇월정사 대웅전과 마주하고 있는 팔각구층석탑 앞쪽에서 기단석과 좌대가 발견됐다.

강원도 월정사 경내 1미터 땅속에서 팔각구층석탑(보물 제48호)의 기단석과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의 좌대가 발견되면서, 월정사 경내 발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서대 예술품보존처리연구회가 보살상 보수 과정에서 발견한 이들 유물은 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친 월정사의 역사와 가람 양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월정사는 이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 경내 '전면' 발굴을 희망했으나, 문화재청은 "석탑과 보살상을 둘러싼 보호난간 인근 '부분'만을 발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월정사는 643년(선덕여왕 12년) 창건이래 지금까지 8차례 이상 소실과 중건을 반복해, 사찰의 역사는 두고라도 석탑과 보살상을 제외하고는 유물조차 전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물 발견을 계기로 월정사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1미터 땅 속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6·25 당시 국군의 작전에 의해 월정사의 모든 전각과 문화재가 소실된 만큼, 당국은 '전면' 발굴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기단석과 좌대는 석탑과 보살상에 한정된 유물이지, 월정사 사격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은 아니다"며 "부분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자료가 나올 때 발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분 발굴을 주장했다.

한서대 예술품보존처리연구회가 기울어진 보살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살상 주변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발견된 기단석과 좌대는, 팔각구층석탑이 3단 기단 형식의 고려 초기 다각다층 석탑이며, 보살상은 탑과 함께 월정사에서 제작됐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다. 발견 당시 좌대는 지하 1미터 정도에 묻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편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이 돌은 비슷한 깊이에 묻혀 있던 석탑 기단석과 이어져 있었다.

한서대 측은 "편돌이 세로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며, 끝 매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보다 넓은 지역까지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편돌은 월정사 앞뜰 일대가 고려초기 사찰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라·고려·조선시대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고, 불에 탄 흙의 단층 등이 나와, 화재로 전소된 사찰 터에 흙을 덮어 다지고 그 위에 사찰을 중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월정사는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18일 12시 오대산 호텔 세미나실에서 팔각구층석탑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에는 정영호(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박사의 '한국미술사상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의의', 강순형(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의 재검토'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날 논문발표에 이어 석조보살좌상의 좌대 발견에 대한 중간 보고서와 1970년 석탑의 보수과정서 발견된 자수향낭에 대한 현미경분석 결과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이 발표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㉓경봉의 낙산사·송광사 편액



◇낙산사 홍련암 편액



◇송광사 설법전 편액

낙산사 홍련암 **변죽없이 평판에 쓴 글**
송광사 설법전 **서법 매이지 않은 禪筆**

경봉 정석(鏡峰 靖錫·1892~1982)은 경상남도 밀양 출생으로 본명은 김용국(金鏞國), 법호는 원광(圓光)이다. 경봉은 16세가 되던 1907년에 양산 통도사에서 성해(聖海) 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여, 청호 학밀(晴湖 學密)에게 사미계를 받았고, 해담 치익(海曇 致益)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내원사, 마하연, 해인사 등에서 참선 수행을 하였고, 통도사에서 만일염불회를 설립, 지도하였다. 또 통도사 강원 원장, 통도사 주지, 조선불교 중앙선리참구원 이사장, 통도사 극락선원 조실 등을 지냈다.

경봉은 어려서부터 한문사숙에서 수학하여 한학과 글씨에 모두 능하였으며, 서법(書法)을 뛰어넘은 호방한 글씨를 주로 썼다. 그의 글씨는 1953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30여 년 간을 머물며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였던 양산 통도사 극락암 〈정수보각〉, 〈여여문〉 편액을 비롯하여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 〈홍련암〉, 평창 월정사 〈정법보각〉, 순천 송광사 〈설법전〉, 〈수선사〉, 여천 향일암 〈영구암〉, 양산 내원사 〈선나원〉, 산청 대원사 〈방장산대원사〉, 〈범종각〉,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경주 불국사 〈무설전〉, 〈안양문〉 편액 등 전국의 많은 사찰에 남아 있다.

양양 낙산사 〈홍련암〉 편액은 변죽을 따로 붙이지 않고 평판에 글씨를 새긴 것으로, '경봉(鏡峰)'이라는 관지와 '원광(圓光), 경봉(鏡峰)'이라는 도서가 있다. 이 편액은 1976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낙산사 원통보전을 복원하면서 〈원통보전〉 편액과 함께 경봉의 글씨를 받아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원통보전〉 편액과 마찬가지로 혼일(渾逸)한 맛을 풍기는 행서이며, 필획을 무겁게 두고 글자의 균형은 위를 넓게 아래를 좁게 하였다.

순천 송광사 〈설법전〉 편액에는 관지는 없으나 액관 좌측에 '원광(圓光), 경봉(鏡峰)'이라는 방인 도서 2과가 있다. 이 편액의 글씨는 경봉이 1968년 당시 송광사에 주석하던 구산(九山)의 부탁으로 〈수선사〉 편액과 함께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후중(厚重)한 맛을 풍기는 행서로, 서법에 매이지 않고 뜻을 살려 쓴 선필(禪筆)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전통사찰 869곳"

문화부 '사찰현황' 발간

2000년 10월 현재 우리 나라의 전통사찰은 총 869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도는 경상북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전통사찰현황〉에서 밝혀졌다.

〈전통사찰현황〉에 따르면 서울 55곳, 부산 35곳, 대구 19곳, 인천 8곳, 광주 5곳, 대전 5곳, 울산 11곳 등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전통사찰은 총 13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62곳으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105곳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경기도 89곳, 경상남도 88곳, 전라남도 80곳, 충청북도 80곳, 충청남도 78곳, 강원도 42곳, 제주도 6곳으로 나타났다.

종단 및 법인별로 보면 조계종이 701곳으로 단연 우세를 보였으며 태고종이 92곳, 법화종이 23곳, 선학원이 11곳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 중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은 381곳이며 소장하고 있지 않은 사찰은 488곳이다.

오종욱 기자

"인터넷 포교 쌍방향 통신 서두르자"

김응철 교수 주장

가상 공간에 '쌍방향 불교공동체'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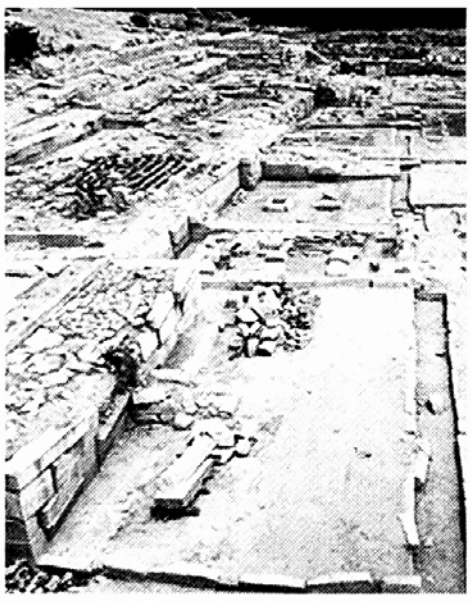
김응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교수는 '인터넷상의 종교활동 실태와 포교방법 연구'라는 논문에서 "교리나 행사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형' 사이트에서 벗어나, 불자네티즌의 신심을 돋아주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형'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요즘의 네티즌은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즐겨 찾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교공동체의 모델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에 주목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는 총 21만여 개의 카페가 있다. 이중 종교와 관련된 카페는 약 1만4천348개(2000년 10월 1일 기준)나 되는데, 이것은 2천5백여 개(10월 1일 기준)에 불과한 기존의 전달형 종교 사이트 수와 크게 비교된다.

김 교수는 결론에서 "인터넷상의 쌍방향 의사전달체계는 약 3년 정도면 일반화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전문인력의 부재, 종단 및 불자들의 관심저하 등 불교 정보화의 벽을 허물고, "가상 공간에서의 포교 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증욱 기자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사적 128호) 온돌 시설.

회암사터 국내최대 온돌 발견

아자방 구조…승방추정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머무른 절로 유명한 여말 선초의 국찰 경기 양주 회암사지(사적 128호)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최대 규모의 온돌시설이 원형에 가깝게 출토됐다. 특히 이 시설은 희귀한 온돌 형태로 세계건축사전에 오른 경남 하동 칠불사의 아자방(亞字房) 온돌과 유사한 구조로 확인돼 고건축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경기도박물관 공동조사단(단장 장경호)은 "온돌시설이 확인된 건물지는 고려말 학자 목은 이색이 작성한 '천보산회암사수조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의 건물배치에 따르면 '서승당'(西僧堂)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승당 건물터는 정면 31.6미터 측면 14.1미터로 아궁이, 온돌시설, 굴뚝, 계단, 출입시설, 기둥자리 등이 발굴됐다.

온돌시설은 출입구로 들어서면 중앙통로를 사이에 두고 ㄷ자 형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구들이 깔려 있는 독특한 형태. 건물의 양 측면 바깥쪽에는 계단을 만들어 구들 바닥면 아랫쪽으로 아궁이 시설을 만들었다. 양쪽 아궁이에서 장작불을 때면 연도(연기길)를 따라 방의 구들을 데운 뒤 굴뚝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보온 방식이다.

현장을 둘러본 조사 자문위원 김동현(동국대) 교수는 "구들이 바닥에서 약 52센티미터 떠 있어 마치 군대의 내무반 막사의 침상과 유사한 형태의 독특한 온돌로 한국의 전통 온돌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이 건물의 용도를 스님들이 겨울에도 참선할 수 있도록 온돌을 설치한 승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스님들이 출입구를 들어선 뒤 신발을 벗고 바닥보다 높은 일(日)자형의 구들 위에 올라가 좌선했을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불전연구소 학술세미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불전전산화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보광 스님의 한국불교전서의 자료적 가치', 이혜은 교수의 '전자문화지도에서 불전전산화 작업의 역할', 이종철 교수의 '다언어 하이퍼텍스트구축의 사례연구' 등이 발표된다.(02)2260-3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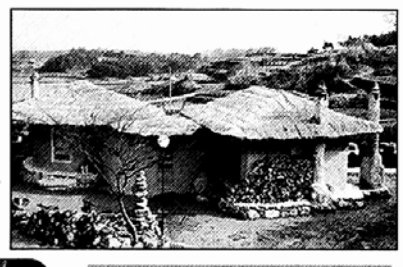
한국선학회 월례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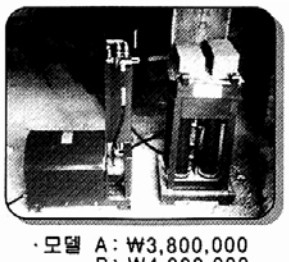
한국선학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부산대 인덕관 소회의실에서 10월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이번 발표회에는 김준호(부산대 강사) 박사가 '초기 불전에 나타난 지관개념'을, 운산(운문사 강사) 스님이 '〈원인론〉의 인간관 연구'을 발표한다. (02)2260-3135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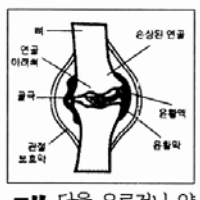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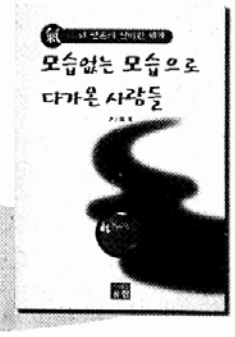
『지금도 우주공간을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될 예비영혼의 구제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내가 겪었던 지난 삶의 고통과 시련이 결코 나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중국 원극학(元極學)의 진인(眞人) 장지상(張志祥)교수로 부터 관정을 받고 있는 저자

이 책자를 정독하신 후 믿음성이 가는 독자들께서는 저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자 윤정주는 현재 대구 달성군 가창면과 서울에서 진여(眞如) 기(氣)수련원을 열어 맑고 밝은 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어떠한 의식도 필요없이 몇초안에 영가천도(靈駕遷度)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원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기(氣)능력자의 체험적 삶의 얘기.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체험 사례를 엮은 책



도서출판 유립 <값 15,000원>
Tel : 02-736-7148
723-3856

"아직도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갖고 있나?"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③

(2)아리따운 소녀의 미소

아침 해가 막 솟아 올랐다. 눈부신 햇살이 총림고찰(叢林古刹)을 오색 찬란하게 물들인다. 거기에 더하여 신비로운 독경 소리가 울려퍼지니 천상사의 아침은 청신(淸新)하고도 유장(幽長)했다.

조약돌을 오밀조밀하게 깔아 놓은 오래된 길을 따라 두 젊은이가 걷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보리다라, 바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는 사매 막의다. 막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평민계급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싸워나가는 총명과 의지를 두루 갖춘 여자였다. 절에 들어 온 것도 그 때문이었고 수련도 이미 어떤 경지를 이룬 상태였다. 그녀는 보리다라보다 입산이 훨씬 앞섰다. 그러나 해탈을 구하지 않고 무술만을 연마했다. 따라서 경전공부는 깊지 않았다. 하지만 무술만은 아직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보리다라가 천상산에 들어온 이래로 두 사람은 사형과 사매로 금새 가까워졌다. 늘 함께 기예를 연마하면서 그림자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보리다라는 은근히 막의의 기량에 탄복해 마지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않고 걸음만 재촉했다. 뒤따라오는 막의가 그저 대견스러웠다.

"꽥—!"

갑자기 숲 속에서 한 마리의 독수리가 쏜살같이 보리다라의 머리 위로 날아와 크고 뾰족한 부리로 탁 쪼고 괴성을 지르며 하늘로 치솟았다. 독수리의 괴성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막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보리다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듯 싶어 가슴 한 구석이 고동쳤다. 그녀는 보리다라를 살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했다. 조금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막의는 눈을 돌려 날아간 독수리를 바라보았다. 독수리는 부리에 커다란 벌레 한 마리를 물고 막 고목나무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보리다라의 옷깃에 떨어진 벌레를 발견한 독수리의 번개같은 먹이 잡기가 한바탕의 소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녀는 웃으면서 보리다라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다.

"사형! 산길이 울퉁불퉁하고 주변엔 벌레도 많으니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보리다라는 엷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리고 대화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

"사매! 내 한 가지 묻겠는데…, 아직도 무슨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갖고 있나?"

대답 대신 막의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결코 세속을 떠나 정토에 귀의할 생각이 없었다. 무예를 배우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나라와 백성에게 헌신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그녀는 진작 이곳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리다라가 이 곳에 들어오자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계급에 속하며 출생지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착한 생김과 정중한 품성 그리고 다재다능한 능력은 그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를 향한 그녀의 감정은 마치 깊은 산 속에서 솟는 샘물처럼 콸콸 흘러들어 가슴 속 깊이 굽이치고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세속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끊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는 막의와 함께 무공을 익히는 이외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불경을 탐구하는 데 바쳤다. 경전과 불법을 말할 때는 거침이 없었다. 마치 위대한 불조(佛祖)의 환생인 듯 여겨질 정도였다.

보리다라 향한 그녀의 감정은 깊은 산속 샘물처럼 콸콸흘러 가슴속 깊이 굽이치고 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자기의 마음을 보리다라에게 밝히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의치 않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이상의 인연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 그의 그림자는 지워지기는커녕 더욱 깊게 인각되었다.

막의는 자기 앞에 우뚝 선 사형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감정의 샘물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름을 느꼈다. 간절하고 뜨거운 물결에 마음을 맡길 수 있다면 그의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사랑을 쏟아 붓고 싶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이곳 천상사를 떠나 그림같이 아름다운 시골의 전원으로 가서 자그마한 무릉도원이라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지(理智)의 냉각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녀의 열정을 식혔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머리에 떠올렸다. 평민계급의 여자가 감히 헛된 꿈을 꾸다니? 그녀는 사랑 때문에 그에게 누를 끼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사형! 시간이 꽤 흘렀네요…. 아침 수련을 시작해야지요."

보리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문을 지나 두 갈래 길이 나타나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섰다.

그때 행자승 하나가 헐떡이며 막의를 찾았다.

"발타(跋陀)대사께서 오시랍니다."

"나를?…"

막의는 뜻밖의 부르심에 놀랐다.

"예, 지금 정사(精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의는 한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혹시 대사께서 나의 속마음을 알아채시고 절에서 나를 내보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일찍이 발타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머리 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무술공부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이미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느니라! 만약 선(禪)을 수행할 마음까지 먹은 게 아니라면 떠나고 싶을 때 자유로이 떠나도 좋으니라….'

막의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사 앞에 섰다. 대사를 향해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대사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가르침을 내리시려는지요?"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발타대사는 환한 웃음을 머금고 막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서재의 책상 서랍을 열고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 펼쳤다.

보자기에 싸여 있는 것은 모두 번쩍번쩍하는 보석들이었다. 발타대사는 막의에게 물었다.

"이 보석들은 행자승들이 청소를 하다가 보리다라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것이다!… 너와는 개우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저…."

막의는 대답할 말을 잊은 채 얼굴을 붉혔다. 그녀와 그는 사형·사매의 관계에서 조금도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매우 친하게 지낸다고 하시다니? '매우 친하게 지낸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이지만 겉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런 보석들을 일찍이 듣도 보지도 못했다. 하물며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더욱 모를 일이었다. 그걸 그녀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막의의 두 입술은 한동안 붙었다 떨어졌다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한마디 말도 쏟아내진 못했다.

"너도 모른단 말이냐?"

발타대사는 되는대로 보석을 싼 다음 다시 한번 막의에게 다짐받듯 물었다.

"그가 평소에 보석에 관한 일을 너에게 한 번도 말한 일이 없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막의는 감히 말했다.

"심지어는 그의 출신성분이나 경력조차도 모릅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구요."

발타대사는 막의가 귀여운 듯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튼 그는 부귀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나 막의는 이 말에 자기도 모르게 반발하듯 대꾸했다.

"부귀한 사람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그는 부귀에 관해선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발타대사는 막의의 말에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한동안 망설인 끝에 말했다.

"듣자 하니 남천축 향지국의 셋째 왕자가 궁을 떠났다는구나. 보아라! 이렇게 많은 진귀한 보석은 일반 민간에서는 극히 보기 어려운 것이다. 혹시 그가…."

"그가 셋째 왕자라구요?"

막의는 깜짝 놀랐다. 순간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정말 그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발타대사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행자승들이 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 조정에서 관원이 절에 온 일이 있었다는구나. 나도 혹시 착오가 있을까 염려스러워 향지국에 행자승을 파견해 조사해 오도록 했다. 확실히 셋째 왕자는 무술을 익히고 선수행을 하기 위해 궁을 떠났다는구나!"

민간에서 보기힘든 보자기에 싸인 보석들 혹시 향지국 왕자가…

"아!"

막의는 놀라서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그제야 그녀는 마음 속에 짚이는 게 있었다. 보리다라 사형은 향지국의 왕자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자의 몸으로 궁성 안에서 존경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산야의 총림에 묻혀 고생하며 수련에 매진하다니…, 실로 대단한 일이다. 이 왕자 사형에 대한 존경과 애모의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대사님! 저더러 가서 그에게 직접 물어 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다. 남이 말하고 싶지 않는 걸 캐묻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우리 불문(佛門)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일이니라. 그저 자연의 순리에 맡기도록 하자. 하지만 지금 보리다라가 쓰고 있는 방은 너무 낡았으니 내 생각에는 선방(禪房)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보석은 우선 네가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돌려주거라!…"

막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석 보자기를 건네 받았다. 그녀는 대사께서 보리다라의 거처를 옮겨주려는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대사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소동이 벌어질까 염려스러워 미리 보안 조처를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발타대사에게 인사하고 몸을 돌려 정사를 나왔다.

절 안의 선방은 본당의 안쪽에 있다. 한 칸씩 단칸방으로 되어 있어 그윽하고 조용하다. 이 곳은 큰제자들의 거실로도 쓰이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 보리다라가 쓰던 방은 요사채로 본당 밖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반 스님들과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처다. 요사채에서 선방으로 옮겨 가는 것은 한 단계 승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수행자들이 자나깨나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쾅쾅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핀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지유롭게… 4계절을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복단 902
봉황 201
화조
(옥스톤)
리빙스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숯 베게
35,000→12,000원(택배비는 별도)
※단체구입은 직접 상담받습니다. ☎ 02)424-9427/2203-7821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 단체주문 환영 ※

소외된 이웃에 빛… '현대불교 법보시' 26만부 돌파

매주 군·교도소 등 1402곳 '佛法' 배달

우리사회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삶에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추위 못지 않게 쓸쓸함과 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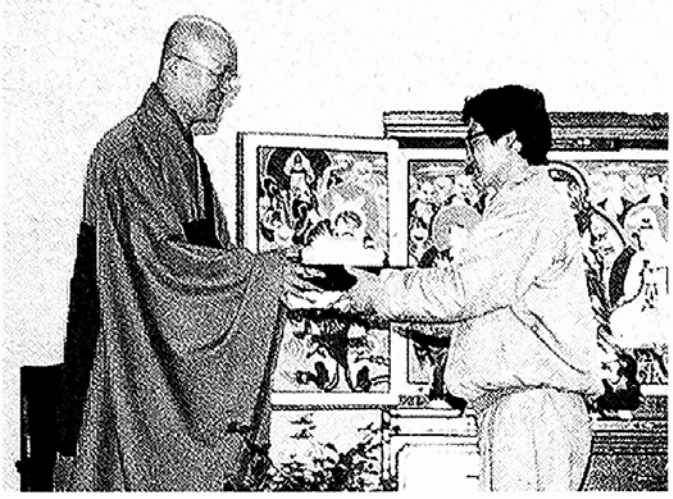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이 빈부의 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때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부처님가르침을 전해준다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든든한 의지처가 될 것입니다.

본지는 지난 97년부터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1천원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천5백여 부의 신문이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 교민시설 등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은 모든 여래(如來)를 만든다(화엄경)"는 부처님의 말씀을 행(行)으로써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수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합니다.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으로 현대불교 신문은 현재 군법당 234곳, 국군병원 18곳, 교도소 및 교정청 99곳, 구치소 및 감호소 33곳, 소년원 및 감별소 32곳, 양로원 26곳, 아동복지시설 45곳, 청소년복지시설 28곳, 사회복지기관 269곳, 불교병원 16곳, 경승실 257곳, 경찰병원 2곳 등 총 1,402개 시설에 매주 1,887부의 신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문은 지금까지 총 26만2,600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불자들의 동참으로 20일부터는 전국 교도소 32곳에 〈삶은 苦가 아니다〉와 〈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각각 2권씩 보낼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신문보내기 1천원 법보시는 그늘진 이웃에 자비와 지혜의 법등을 밝히는 작지만 의미있는 불사다. 법보시 수혜자 서재만씨(당시 청송감호소 수감 중·사진 오른쪽)도 '현대불교'를 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으며 지난해 12월 현대불교 제5회 신행수기에 응모해 입상하고 지난 3월 조기출소했다.

현대불교를 받아보고 청송교도소 재소자 이 재 익

"지옥에서 밝은세상 만난 기분"

한때의 어리석음으로 수없는 악행을 저지른 과보를 청송교도소에서 치르고 있는 재소자 이재익입니다.

제가 업보를 온유히 수긍하고, 참회발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현대불교신문 법보시자의 자비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끝없는 나락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저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내 주셨습니다.

고철이 용광로를 거치면 강도 높은 쇠로 재련되듯이, 이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 저도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받은 따뜻한 사랑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다시 베풀 것을 발원합니다.

현대불교를 법보시하고 백만원씩 수시 후원 조 동 만

"희망의 씨앗 널리 퍼졌으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 용기를 드리고 싶기도 했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도 해서 법보시를 하게 됐습니다."

97년부터 수시로 100만원씩 법보시 후원을 해 온 조동만씨(43). 보시의 진정한 공덕은 나눔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하는 조씨는 "보시한 신문이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고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배달되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용기를 북돋우는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면서 법보시 운동에 계속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보시 동참 후원자 명단

강종흠,강갑순,강경중,강말숙,강미영,강민정,강병현,강북복지관,강성욱,강숙희,강순영,강신옥,강신택,강영신,강옥구,강용희,강유미,강은영,강인성,강인숙,강장옥,강정기,강정숙,강정화,강정희,강종남,강지숙,강춘계,강태근,강태복,강현숙,강황진,경정경,남지원,경순자,고계환,고경진,고덕현,고순진,고영배,고영이,고용순,고은주,고재선,고팔선,고현사,공평근,구진모,구진화,구핀희,권갑남,권계순,권동희,권미경,권복연,권복자,권복현,권성행,권순권,권순령,권순혁,권연자,권영숙,권영현,권오석,권오용,권오진,권옥순,권은경,권청숙,권진순,권차순,권초지,권춘순,기현정,김갑순,김경선,김경수,김경숙,김경순,김경애,김경열,김경옥,김경해,김경훈,김경희,김광숙,김광순,김광태,김교안,김국중,김귀남,김규정,김근심,김근영,김금순,김기춘,김길운,김남경,김남석,김남숙,김대현,김덕임,김덕자,김두영,김들남,김득자,김목인,김말선,김명덕,김명옥,김명자,김명춘,김명희,김문자,김미란,김미명,김미선,김미순,김미정,김민수,김민옥,김범수,김병서,김병주,김병철,김병훈,김복남,김봉윤,김봉해,김상덕,김상림,김상병,김상분,김상순,김서분,김석순,김석용,김선남,김선화,김성경,김성민,김성순,김성자,김성진,김성혜,김성희,김송자,김수영,김수희,김순경,김순남,김순녀,김순덕,김순련,김순식,김순옥,김순현,김순희,김승재,김승지,김식자,김신업,김애란,김애리자,김애자,김양순,김여경,김연득,김연봉,김연수,김연옥,김연자,김연희,김영란,김영만,김영배,김영삼,김영숙,김영순,김영식,김영아,김영옥,김영자,김영희,김옥경,김옥남,김옥순,김옥자,김옥희,김용범,김용준,김용철,김원순,김원용,김원우,김유학,김윤성,김윤중,김윤환,김윤희,김은영,김의식,김인성,김인숙,김인희,김일동,김자경,김장복,김정단,김정선,김정숙,김정애,김정옥,김정은,김정이,김정자,김정주,김정희,김제철,김종,김종미,김종애,김종옥,김종일,김주곤,김주식,김주원,김주현,김준만,김준모,김준엽,김준형,김준희,김지영,김지은,김지현,김창수,김철수,김춘자,김춘호,김춘화,김춘희,김태훈,김태흔,김택곤,김한나,김현,김현수,김현숙,김형창,김형철,김혜경,김혜기,김혜숙,김혜옥,김호,김호영,김호종,김화남,김화수,김환수,김효선,김효숙,김희남,김희순,김희수,김희순,나관숙,나숙희,나순옥,남성수,남성진,남수경,남수미,남수진,남일우,남철수,남하자,남화자,노만호,노순남,노유택,노은택,노진희,노향순,노혜숙,덕성암,덕운화,덩형관,도옥희,도재권,동사섭,류경흔,류봉수,류영란,류정남,류정오,류조형,마정혜,마진호,명세정,모영희,한마음선원목포지원,무명,문명순,문병기,문상철,문선희,문숙자,문순조,문정강,문필금,문필수,문형주,문화자,민경주,민병용,민복순,민소영,민승자,민진숙,민희정,박해훈,박병웅,박병주,박복자,박봉주,박상규,박상기,박상섭,박석열,박성례,박성수,박성준,박성진,박세굉,박수진,박숙경,박숙자,박순덕,박순득,박승희,박신영,박양님,박양임,박양자,박영숙,박영애,박영우,박영준,박영철,박옥남,박옥이,박용무,박용숙,박용자,박원규,박운기,박윤식,박은숙,박은주,박악형,박재련,박재진,박정산,박정상,박정순,박정자,박정희,박제원,박종두,박종실,박주연,박주원,박준영,박준형,박준호,박진현,박진환,박진자,박찬연,박찬혜,박천혜,박철수,박청자,박춘자,박태규,박필원,박현순,박현주,박혜명등,박혜숙,박혜정,박혜진,박희순,방금순,방명섭,방순학,방재순,배경숙,배광흔,배동금,배명호,배병진,배복희,배성호,배순자,배연수,배춘자,배현주,백상준,백성옥,백양심,백유선,백현기,백혜원,법인스님,법현스님,변미자,변인택,현대불교 직원일동, 한마음선원신도, 한마음선원봉사모임,봉철웅,부산신도회,한마음선원부산지원신도회,사랑방,상미육,서경자,서귀연,서덕교,서덕교,서말자,서말희,서명선,서병학,서봉순,서부웅,서삼조,서옥경,서울든클럽,서윤아,서정숙,서정화,서준,서진,서희선,서춘건,서충우,서형관,석해원,선유진,선장재,선정호,선현자,설갑문,설정수,설지석,성등환,성묘경,성민자,성영분,성재영,성핍제,성호승,소진임,손광자,손금화,손미숙,손봉희,손상룡,손윤선,손인아,손인화,손정숙,손정자,손진임,손혜숙,손화자,송광옥,송규환,송미숙,송미애,송복희,송성의,송성의,송승현,송양숙,송연숙,송영근,송영애,송인영,송정구,송필재,신경희,신미향,신미환,신복순,신상섭,신수호,신순애,신순희,신시규,신원만,신유진,신윤진,신장재,신재락,신재철,신조현,신진임,신택건,신호용,신홍재,심공회,심광엽,심근희,심능희,심단희,심만희,심묘희,심법희,심보희,심성학,심안희,심원희,심일희,심춘자,심향희,심희주,안상모,안순옥,안영근,안영선,안진후,양병덕,양세욱,양영애,양은숙,양의군,양점순,양정순,어종선,엄남주,엄정임,영등포법회,오동규,오두환,오막순,오명자,오미환,오병현,오선희,오세철,오송준,오순자,오승종,오영희,오주중,오주희,오진희,오창일,오창희,오현승,오현자,오형만,오형희,오희숙,용산구법회,용환웅,우경애,우금식,우동렬,우상용,한마음선원음산지원,원정옥,유강수,유광수,유금자,유미양,유선재,유양상,유은경,유인묵,유재훈,유정연,유정용,유춘자,육성희,육성희,윤경애,윤경희,윤기수,윤미희,윤병창,윤병혜,윤상돈,윤석법,윤성,윤영자,윤옥희,윤인자,윤재경,윤제학,윤종숙,윤준상,윤지웅,윤지은,윤차남,윤창섭,윤태원,윤향숙,은경애,이강희,이경민,이경숙,이경아,이경원,이경인,이경자,이계선,이관형,이교재,이구자,이귀숙,이규만,이규환,이금순,이금주,이기오,이기철,이남심,이노마,이대섭,이덕의,이동기,이동준,이동희,이명규,이명수,이명순,이명자,이명준,이묘연,이미경,이미나,이미애,이미자,이번택,이법규,이병만,이병진,이보경,이복순,이봉순,이봉우,이부양,이분순,이삼경,이상란,이상옥,이상윤,이석준,이선임,이성재,이승자,이수자,이숙희,이순교,이순덕,이순랑,이순옥,이순일,이순자,이순천,이순호,이순희,이숭숙,이승은,이승훈,이신정,이씨,이아리,이애자,이양희,이연수,이연규,이연옥,이영경,이영숙,이영순,이영조,이영희,이오석,이옥색,이옥영,이옥형,이육희,이용법,이우승,이운자,이유순,이윤옥,이은숙,이은주,이은진,이의남,이익수,이인상,이인숙,이일순,이장혁,이재국,이재숙,이재윤,이재화,이점자,이정녀,이정례,이정수,이정숙,이정순,이정자,이정혜,이정희,이종돈,이종락,이종석,이종철,이준만,이준석,이준재,이준희,이중근,이지영,이지웅,이지형,이진경,이진선,이진수,이진영,이진철,이창은,이창하,이창효,이창훈,이천희,이철주,이청,이태우,이태인,이태호,이태훈,이태희,이판순,이필순,이한득,이한숙,이한희,이향미,이현규,이현숙,이현실,이현안,이현양,이현주,이형효,이혜란,이혜숙,이호진,이화숙,이화영,이화주,이효순,이흔로,인천신행회,임경희,임기남,임명옥,임명진,임문숙,임선원,임소연,임옥재,임완숙,임우식,임재순,임정숙,임종미,임채임,임춘심,임해순,임형대,임홍민,임희자,자광금강심,장미,장미옥,장영순,장영진,장점,장정,장정가족,장정숙,장정자,장정희,장축자,장혜기,전갑일,전계연,전규백,전유정,전병임,전병제,전복순,전삼우,전수남,전순남,전순자,전순조,전승현,전연석,전연택,전영자,전위자,전유정,전인성,전인영,전인호,전정숙,전정순,전정애,전정희,전진희,전현수,전현진,정건재,정계영,정구순,정금관,정금란,정대자,정동한,정모아,정무영,정문식,정미경,정미련,정미향,정미형,정민아,정복순,정분선,정삼준,정상열,정숙남,정숙점,정숙정,정순자,정연경,정연동,정연봉,정연석,정연태,정연희,정영기,정영신,정옥녀,정옥찬,정윤옥,정윤재,정은경,정은경,정인순,정정오,정정국,정정숙,정정순,정정자,정정희,정진숙,정희준,정필수,정필순,정필준,정학선,정학선,정해정,정해택,정현동,정훈재,조경자,조귀자,조남섭,조남주,조동만,조명래,조명식,조미란,조미숙,조미순,조민우,조분옥,조상호,조승우,조약식,조양자,조영숙,조옥희,조원희,조유복,조은숙,조은호,조은미,조인자,조정현,조정훈,조칠제,조현애,조혜숙,조혜연,주영란,주우순,주인공,주현순,지경애,지순임,지연옥,지유미,지청인,진경상,진경수,진광현,진병웅,진영숙,진영화,진옥례,진우상,진원중,진재영,진재용,진정임,차동호,차상환,차수항,차용옥,차정순,차현주,차희자,채희순,천재경,천현숙,천화조,청주교도소,최경락,최경자,최경자,최경진,최광례,최금철,최만례,최명희,최병언,최병조,최복내,최복순,최상철,최서윤,최석원,최선영,최성근,최성대,최성휴,최수현,최심형,최영도,최영명,최영봉,최영숙,최영수,최은정,최은희,최인숙,최인자,최재두,최재철,최정근,최정기,최정분,최정희,최주현,최학우,최행선,최현만,최현주,최형선,최호자,최희원,추철희,충남대교수불자회,태극지원,표혜명,하금자,하명자,하석남,하선희,하순애,하순임,하은영,하정희,하홍용,한경규,한경호,한국여성불교,한기선,한마음사랑방,한명숙,한미순,한병호,한상현,한숙희,한순예,한순자,한승찬,한아름,한양자,한영욱,한영찬,한임련,한정석,한정석,한철희,한준영,한태희,한효심,함꽃점,함광섭,함기석,함명이,함삼수,함영숙,함지은,허명희,허상임,허석남,허선숙,허성국,허수자,허승자,허의숙,허재승,허재영,허점자,허정남,허정훈,허종환,허찬응,허학연,허희숙,현불회,현수천,현월스님,현추월,혜원당,호소희,홍기장,홍명숙,홍민자,홍병숙,홍소순,홍순아,홍영순,홍영호,홍인자,황경숙,황금청,황기용,황영분,황옥란,황옥석,황옥순,황정숙,황정옥,황창영,황태숙,회복내

총 1,171명이 106,860구좌를 보시했습니다. (2000년 10월 5일 기준)

법보시 후원 현황

구	분	발송처	보시부수	총보시부수
군부대	군법당	234	302	47,000
	국군병원	18	50	8,500
교화기관	교도소·교정청	99	275	31,450
	구치소·감호소	33	115	14,150
	소년원·감별소	32	60	3,900
복지단체	양로원	26	26	4,270
	아동복지	45	45	7,650
	장애인복지	17	17	3,340
	청소년복지	28	28	4,610
	사회복지기관	269	269	38,530
	불교병원	16	68	11,560
경찰	경승실	257	261	44,370
	경찰병원	2	6	1,020
지정 법보시	단체	228	267	25,590
	개인	98	98	16,660
전 체		1,402	1,887	262,600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현대불교'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천5백 여부의 신문이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참방법 :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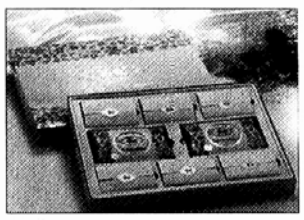
▷자동이체 치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2164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참여방법 :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정하셔도 됩니다.

▷문 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02)737-0697(팩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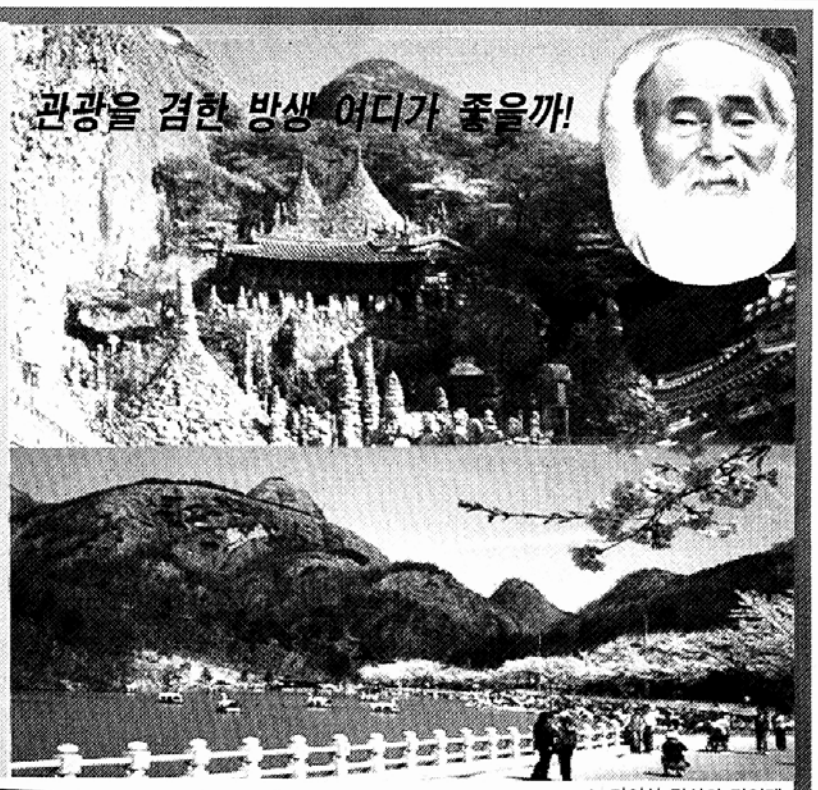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바람처럼 늘 놓고 사는게 우리 인생

집안에 벌레가 많습니다

문 저는 아이가 둘인 아기 엄마입니다. 집이 아파트인데 개미들과 작은 벌레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그 벌레들을 많이 없애게 됩니다. 나의 근본과 둘 아닌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생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이게 될 때마다 무척 언짢고 갈등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만 해둘 수도 없습니다. 벌레가 귀에 들어가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음식에도 들어가고 물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혜롭고 정정당당한 해결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옵니다.

답 부처님 가르침은 참으로 묘법입니다. 단번에 죄업과 인과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쩌다가 새나 벌레를 죽이게 됐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근본으로 돌려서 그 생명과 우리가 곧 바로 하나가 된다면 죽은 생명은 찰나에 제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른 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악한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한생각만 잘 내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한 나머지 윤리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거니와 문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라는 이치를 뼈저리게 믿는 마음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생명을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맡겼을 때 그 살생은 이미 살생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도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도 본래는 공한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한다면 또 과보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 유위법(有爲法)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며, 선한 행위에는 선한 보답을, 악한 행위에는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위법을 떠나 저 무한하고 광대한 불법의 진수(眞髓)에 들게 될 때엔 이미 그런 인과응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말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오히려 그 단계에서는 콩심은 데서 콩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콩심은 데서 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염불만이 생사해탈 되는지요

문 염불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참선을 잘하여 조사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생사를 벗어나기란 어렵고, 실제 역사상 유명한 선사도 윤회하고 있다고 하시며 미타염불이야말로 열이면 열, 번뇌를 끊지 못해도 왕생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지름길 중 지름길이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참선은 잘해도 열에 아홉은 미끄러진다 하시며 화두 놓고 열심히 염불하라고 주장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세속에 끄달리며 사는 속인들에게는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생사 해탈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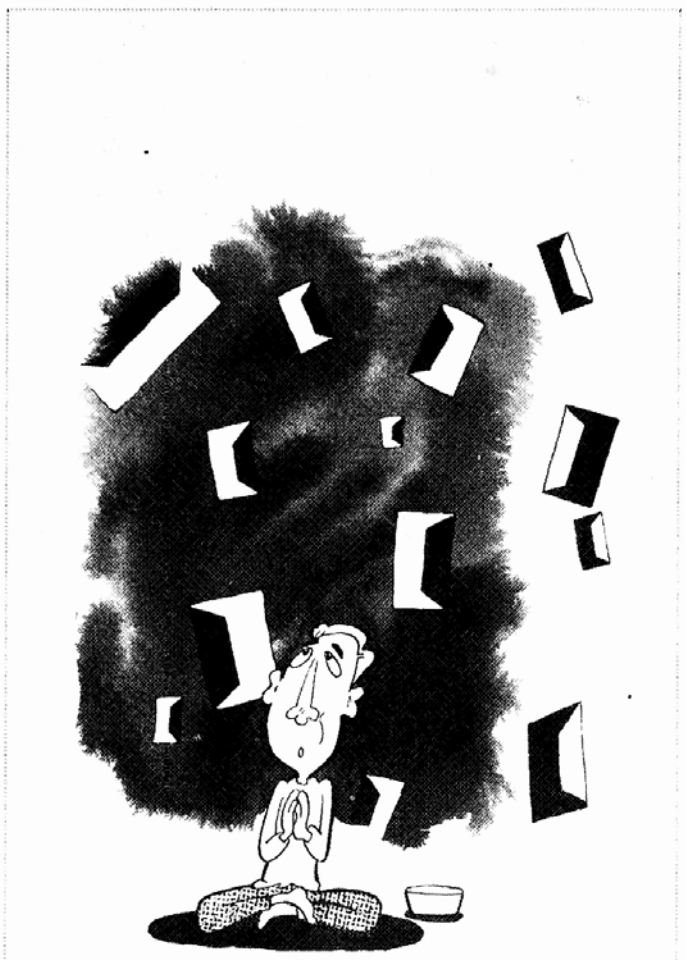
답 수행의 문은 많이 있습니다. 염불을 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문 저 문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벗어나면 서로 다른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 없는 문이라고 했죠. 즉 마음 자체는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하지만 주인공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것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며 이끌고 다니는 참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불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에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나게 하고, 이것저것 보게 하고, 이것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됩니까?

그리고 염불이 밖으로, 소리만으로 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꼭 바깥으로 붙잡고들 염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옳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해야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쉽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믿으니까 바깥에다 해 놓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 시대에는 반드시 안으로 붙잡고 나가게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모두들 의식들이 아주 성숙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절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는데, 너는 누구 덕으로 사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부들 부처님 덕으로 산다고 하고, 때로는 은사스님 덕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제 덕으로 먹고 삽니다 이러더래요. 그걸 스님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불때는 부목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좌는 그걸 마다 하지 않고 장작 패어 불때고 부지런히 일하고 살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거기 주지스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보니까 유리문이 나가는 데인 줄 알고 나가려다 부딪치는 걸 보고는 '몸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나가는 문이, 경(經)이 문인 줄 알고 그거만 읽으니까 늙어서 몸 떨어지고 보니 다 없어져 중노릇한 본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거기 주지스님이 어느 땐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경이 유리문이구나, 하고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제자에게 주지 자리를 주고 자기가 부목이 됐다는 겁니다. 앉았기만 해서 유리를 뚫는 게 아니고 부목 노릇만 해서 유리를 못 뚫는 게 아니니까 제자를 주지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 자기는 선사가 됐다고 하죠.

알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간편한 법인지 모릅니다. 팔만사천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온갖 번뇌와 고통이 거기에서는 태양 앞의 그림자처럼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위대한 광명이 바로 나 자신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들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번뇌를 끊어라, 버려라 하는 말을 녹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끊으라는 말은 둘로 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둘로 보는 이상 그것은 끝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나의 근본에 들고 나는 일체를 그 자리에 다시 되놓는 공부를 정말로 지극하게 해서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언짢아도 좋아도 찰나…집착말라
둘로 보지 않고 놓을때 번뇌녹아

경계가 녹여지지 않아요

문 어리석은 중생으로서의 희미한 삶은 너무나 힘이 들고 아팠습니다. 한마음 주인공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나왔음을 알고 그 자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찾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찮게 보았던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도 둘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큰스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든 나날도 내 탓으로 돌리려 애쓰는 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경계, 상대, 내 속의 소리도 돌아보지 않고, 거짓이라 생각하고 속지 않으려 애쓰며 돌려놓지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의식들은 주인공 자리, 오직 한군데를 통해서만이 나고드는 거잖아. 이렇게 새로 입력하면 새 테이프가 되든지, 공 테이프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해 보지만 또 다시 올라오는 나란 놈의 끈질긴 생각을 죽일 수가, 녹일 수가,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가슴에 입력해도 자고 나면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여러분께서 살 양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죽든 살든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정말로 믿지를 못하고 '주인공에 아무리 관해도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거죽으로 아이구, 내가 아무리 주인공 주인공 불러도 안된다고 방방 뛰죠. 방방 뛰는 걸 보면 벌써 알아요, 이름만 부르고 다녔다는 걸요. 남이 이렇게 주인공을 부르면 된다더라 하는 그런 말만 믿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저 나무들이 옆의 다른 나무를 보면서 믿고 삽니까? 자기 뿌리에 의지해 살고 있죠? 보세요, 조그만 나뭇잎 하나라도 뿌리에 붙어있지 않은 것은 없지요? 그렇게 뿌리에 다 붙어있으니깐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다 놓으면 거름이 골고루 나누어져서 푸르르게 살 수 있는데 모두들 자기의 뿌리를 등한시하고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땐가 보니 꽃나무가 시들시들하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꽃은 인연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모두 보이게끔 하는 건데, 너의 몸이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그렇게 구부러져서 되겠니? 네가 꽃도 피우고 몸도 아주 곧고, 이쁘고 정다웁게, 또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인연을 가져야 너도 좋지 않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꽃이 삼일만에 딱 섰어요.

꽃들도 이렇게 알아듣는데, 하다 못해 사람으로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못 알아주고 진실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자면 받아줄 수 없느냐 이 소리죠.

수십년을 이렇게 일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습이 살고 있지만 모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불성이라는, 주인공이라는 에너지, 에너지통이 있어요. 그 에너지통이 자기 생명력이에요. 그것을 정신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깐 그 모습을 형성시킨 과거의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고 관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말입니다.

죄가 본래 공해 실체가 없으니 유위법을 떠난 불법정수에 들면 인과응보 벗어나 자유인이 되죠

참스승 알아볼 수 있으려면

문 저는 이 도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스승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는 자신이 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다운 스승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답 어떤 이들을 보면 '누구를 믿어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말과 행과 뜻이, 이 세 가지가 완벽하다면 '따르라'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건 바로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차는 차의 운전수를 믿어야 되듯이 말입니다. 배를 타게 되면 선장을 믿어야죠. 자기가 아무리 과학자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서 배를 탈 때는 선장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량 있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위대하다' 해서는 안되죠. 뎌불어 같이 사는 거니까 말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배를 타면 그저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농사 짓는 데 가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겸허하게 숙여야 하는 거죠.

이 마음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계성에 자기의 정신을 뺏겨도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육을 잡아먹고 육을 잡혀먹히고 했지만 이런 첨단의 시대에는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깨우치면 모든 걸 벗어버리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자는 몰라도, 아파서 우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게 되고 즐거워서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즐거워서 웃게 되지 그렇게 되질 않습디다. 그래서 편안한 것도 없고 편안치 않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그 속에서 그냥 구르고 있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니 스승이라고 해서 조금도 다르다고 생각말고 높다고도 생각말고 '저 분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도 생각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같이 공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다른 데를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모습을 보고 믿지 마시고 그저 이끌어주면 이끌어주는 대로 말과 뜻과 행, 이 세 가지가 한결 같은가 보시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다.

기도는 정말 의미가 없는지요

문 기도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타력신앙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대로 기도를 마치지 못하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걸 어째서 타력신앙으로 보아야만 하는 건가 싶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고 남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므로 겉모습은 타력이지만 속내용은 역시 자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답 기도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불보살님을 바깥으로 찾으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자신이 참회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참다운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도리는 참나를 발견해서 깨달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나투는 방법까지 체득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바깥으로 끄달리면 아니 되겠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보면 때에 따라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형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위가 되고 그러는데,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아미타라고 하겠습니까? 나 하나가 필요에 따라 사위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딱 고정지워 이것만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터득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터득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정신세계를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이와 같이 묻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구요. 그래서 "당신이 귀신 노릇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귀신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없을 것입니다"하고 대답해줬죠. 사람이 귀신 짓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형상만 보고 복을 빌고, 예수님 고행상만 걸어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기복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상과 내 형상이 둘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만법 들이고 내도 걸림이 없는 도리

☞ 19면에서 계속

이 아니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며,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에 있건 하나됨은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도 바로 알고 믿고, 생각을 해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깥으로만 찾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못 믿고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어찌 올바른 종교인이라 하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다스려 나가면서 어떠한 괴로움이 닥친다해도, 설사 상대로 인해서 망했다할지라도 '만약 내가 없다면, 이런 일도 없고 상대도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자기 주처인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오래지 않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모습을 가지고 나온 자기가, 모습 없는 진짜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입니다. 자기 모습 아닌 자기, 진짜 자기를 부처라고 합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깨달음의 희열 사라졌어요

문 두어달 전, 관음전에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도무지 답답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관음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관음의 행원력에 기대는 것이고, 그런 보살들의 원력은 곧 이 마음의 능력이다. 그러니 관음불상 앞에서 기도하나, 내 마음에 엎드려 기도하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쁘고 가벼우면서 어떤 역경, 괴로움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었었다는 기억만 있을 뿐, 그때의 그 기쁜 깨달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마음을 일으켜 보려고 기억을 해가면서 억지로 노력을 해봐도 가슴만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 무거울 뿐 허사입니다. 왜 그때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머리에선 기억이 생생한데 왜 가슴에선 아무런 반응이 또다시 안 생기는 걸까요?

답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고 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떼어놓는 거를 마음으로 붙잡고 갑니까. 그냥 놓고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발자국을 떼어놓는데 마음은 아무 요동이 없이 그냥 떼어놓죠? 이 공부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니깐 말입니다. 그냥 발자국 떼어놓는 것처럼 순간 보고 흘러가고 이것 보고 흘러가고, 저것 듣고 흘러가고 또 다른 것을 하면서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서도 여러분은 그거를 내내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붙들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지켜 서서 붙들기 때문에 그게 놔지지를 않고 한발짝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짢아도 한 찰나 좋아도 한 찰나인 것을, 그거를 좋다고 붙들고 즐겁다고 야단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또 언짢으면 언짢다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자유스러운 발자국을 떼어 놓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살아나가는 것도 항상 바람처럼 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말이 없다고 반야심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책을 보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모두가, 만나는 거나 모두가 고정되게 붙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집착을 해서 그거를 좋으면 좋다고 붙들고 있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언짢으면 어쩌나 하고 또 좋으면 '아이구, 좋다' 하고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좋든 그르든 그냥 가버리는 게 바로 이 마음공부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간 좋았던 감정, 그렇지 않은 양면을 다 놓고 자유스럽게 뚜벅뚜벅 길을 걸으세요.

불교는 이혼을 어떻게 보나요

문 저는 처음에 교회를 통해 좋은 감정으로 제 아내를 만나, 연애 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허나, 저는 불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 종교의 이질과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제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제 아내는 절대 불교를 받아드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 제사는 후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제 마음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저의 부모님도 후일에 저희들과 같이 지내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부부는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찌해야될지... 그래서 아직 아이도 가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과보의 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각자의 행복을 위해 갈라서도 되는 것인지요. 저희들은 서로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무지에서 허덕이는 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 어떤 보살님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부인을 또 두고 산다고 하면서 자식들도 있는데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싫어하니 순순히 놔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을 또 희생시킬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을 침착하게 근본에다 관하고 그저 '당신만이 그렇지 않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말기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더더욱 그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딸 노릇도 하고 동생 노릇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때로는 아버지가 돼 주고 할아버지가 돼 주고 오빠가 돼 주고 남편이 돼 주고 동생도 돼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야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시비를 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싸우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응어리가 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온통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니,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가정 한도량도 화합을 못 시켜서 이혼을 하느니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해서야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게 하니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놓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일이 소멸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세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그림 · 최주현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둥글게 대해주면 화목해져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가서 어떤 불편한 일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동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가 다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고 시원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기 잣대로만 재고 자기 생각으로 재서 말을 하려고 하니 씨가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대해주고 작으면 작은 대로 대해주면 그대로 둥그러지죠. 너 나가 따로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해지고 가정에 이혼율도 적어지고 또 자식하고 떨어질 일도 없죠. 가정이 화목해지면 사회가 화목해지고, 사회가 화목해지면 나라가 화목해지죠. 이 세상 모두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마음없는 게 마음이며, 부처가 너무 많아서 부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사람 사람이 한 철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네 탓 내 탓하고 미워하고 이뻐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요 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모두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모른다면 사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우연도 없고 팔자운명도 없죠. 결국 자기가 벌여놓은 일은 자기가 거두는 거죠.

주먹이 저절로 쥐어져…

문 마음 공부의 근본은 자기 자성을 발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가 있다면 증명해봐!'라고 지극하게 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당에서 '너가 있다면 주먹을 쥐어봐!'했더니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주인공이 정말 정말 있는가보다'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증명이 되면 내 몸 속에 인연이 됐던 모든 업식들이 다 녹았다는 증거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증명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것은 순간 부와 자가 합쳐져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게 아닙니다. 자라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푸른 하늘을 덮고 있던 무명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조금 비쳐서 하늘이 보인 것 뿐이라는 얘깁니다.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습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기만 하면 또 뭘 합니까?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이 목마를 때 떠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자체가 토굴 안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토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밑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 거기 똥 누고, 또 일어서면 머리가 닿아서 못 일어서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구멍 뚫어놓은 거기다 넣어줘서 주먹밥 하나씩 먹고 하듯이, 그런 토굴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 내 몸이 토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이 지금 현실의 자(子) 속에 과거 부(父)를 넣고는 자꾸 실갱이를 시키는 거지요. 실갱이를 시켜서 '내가 여기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으니까 부지런히 또 자꾸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고, 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 몸이 다니는 길이야 어디 그걸 길이라고 하겠느냐고, 그것도 길이지만 길 아닌 길을 알려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자꾸 그렇게 해요, 끊어짐이 없이. '길 아닌 길을 걷게 해서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해서, 나와 남이 둘 아니게 건져질 수 있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자꾸 하세요.

그리고 이제 증명을 했으니깐 또 모든 걸 거기다 넣고선 굴림을 굴려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둘이 아닐 텐데 둘이 아닌 도리를 알지만, 말로는 알지만 뜻으로 모르니까 또 '너만이 둘 아님을 증명케 해.' 하고 자꾸 이렇게 해나가야겠죠.

그 자리에서 발현이 되면은 우리가 산책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충동질을 하게 돼요. 접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둘 하나라도 그냥 놓아두지 않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돼야 하는 거죠. 남을 건져 준다 하더라도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 어떻게 건져주고 자시고 할 것 아닙니까? 개구리 속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개구리를 건져주지 개구리가 울고 있는데 내가 건져줄래도 사람이 가면 잡아 죽일까봐 하나가 안되고, 내가 개구리가 될 수 있어야 개구리를 건져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도리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자꾸 해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조금 고개 넘어서기가 어렵지만은 고개를 넘어섰다 하면은 그때는 하기가 쉬워. 자꾸 자꾸 뜻이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육조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불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구요. 불성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과거 자기죠. 불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여여한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있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 길을 가다가도 둘 아니게 여여하게 알아야만 되거든요. 여여한 줄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 나한테 다 갖추어져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갖추어져 있으니깐 '아, 내 권리권은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들이고 내는 거 만법을 걸리지 않게 들이고 내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만법을 들이고 내도 걸림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계단 없는 계단을 나 아닌 나가 하나하나 맛보아 진실하게 체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자정보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강좌안내,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포교당 안내
• 위치:대전시 동구 홍도동 72-27
• 법당:30평 삼존불탱화 신중탱화등 모든 시설이 되있음
• 전세:2500만원
• 시설비:1000만원
042)627-5925
011)742-5925

사찰(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대지 : 142평, 田 3500평
• 가격 : 평당 17,000원
• 위치 : 경기 연천
• 田 : 918평
• 가격 : 평당 7만원
031)834-4324
016)768-4324

사찰(터) 안내
• 위치:충북 괴산군
• 부지:임야 9,500평 대지 300평
• 건물:조립식 · 방가로 · 흙집
• 가액:1억 (답사 후 절충가능)
※새로 설립할 사찰부지로 최적이며 특별공양가로 모시겠음
011)9077-0687

암자 안내
용도 변경 가능 (별장)
- 흐르는 계곡 물이 최고 좋음
• 가액 : 답사후 절충
031)582-0635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방1 (주차장)
• 가액: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 시설비: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지역 도심포교에 적합함
02)436-3647

토담집 개조 암자로 토굴 · 기도터 최적지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發福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 전세, 5년 분납도 가능
※ 처음 사찰 운영하실 분도 가능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 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토굴터 안내
장엄한 산세, 토굴마당까지 도로 완비, 전용허가 취득(칙량완료), 평토 작업 완료, 전망 좋은 최고의 토굴터 347평, 평당 3만원
경남 함양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도로 완비
055)963-3068
017)301-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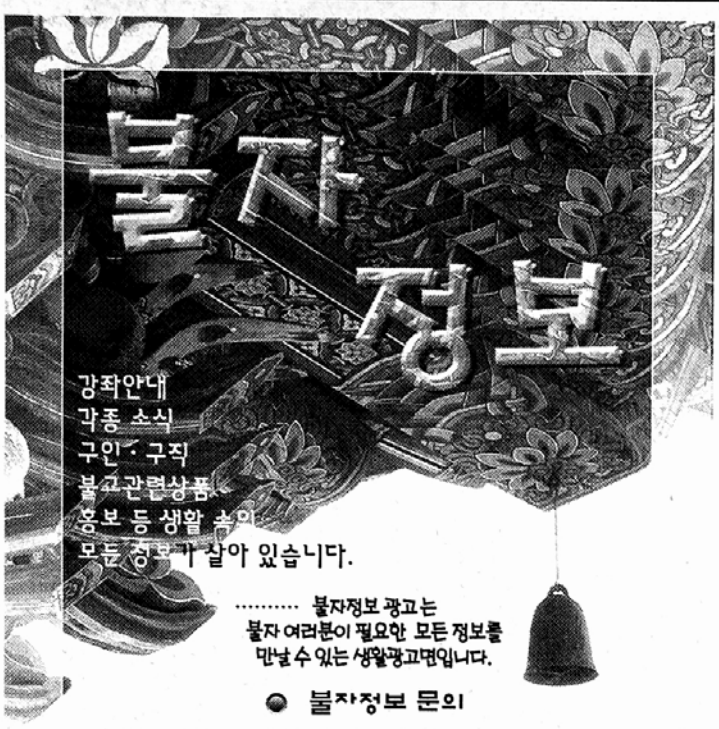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에서 약25분거리) 임야 2만평
차량 진입 (포장도로)
풍수 최적 명당 사찰터
• 가액 : 7천만원 (가격절충)
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구 구천동에서 5분거리) 임야 1천평 (5천만원)
017)542-7010

대사찰지 사찰양도(전세)
법당 五존 불상 석굴암 7척석불 굴안 50m 50평五층탑 간음보살 아미타불 山神각 요사채 34평 사찰부지 1,200평 양도가 2억 5천 미륵불지 조성완료 도로포함 500평 법당 요사채 조성 가능지 5百평 포함 1억 별도임 직접 스님 보살 30%감 전세분은 2~3년 후 사찰 매입가능한 분 영입 창건주 노령으로 직접 대사찰 조성할 분 영입. 사찰 발(전지) 2,500평 임야부지 만평
충주 043)848-1766 / 019)848-176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8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전세 1억 5천)
016)651-1800
011)870-1463

전원주택 양도
• 위치 : 경남 의령군 봉수면 천계리
• 평수 : 140평 (대지)
• 건물 : 가옥 2채(정남형, 가옥간격 2m) 각각 행랑1, 방2, 주방(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욕조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산세수려), 포장도로, 텃밭있음
• 가액 : 8천만원 (절충가능)가옥2채
055)573-988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입니다.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현탑 현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액 : 2억 5천
018)533-7780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권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易學講座
사주학 전문 (단원선생 직강)
■개 강 : 9월 15일 오전10시
(수시입학도 가능) 테잎도 배포함
※ 쉽게 배우고 특히 다른곳에서 배웠어도 이해가 않되는분. 통변의 달인
02)2275-7114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정정 합니다
(대한불교 선각종)
• 총본산 (강진옴천사)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061) 433-2233. 433-2311
• 총무원(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84-10
062)361-8070

구인구직

큰 한옥 싸게 지으실 분
• 7칸 곡집 (12×10m)
• 굵은 기둥과 대들보 긴 추녀 천장 높고 미려하며 튼튼한 목골조
• 화강석 주추에서 기와까지 목골일체 15일내 완성 (단 벽과 바닥공사는 제외)
• 시공비 2200만원
054)337-5156
011)9857-5156
박 목 수 합장

행자 모집
본 사찰에서는 불사가 완성되어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 정법대로 바르게 수행 할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인원 : 00명 •학력: 고졸 이상
•연령 : 만 18세-40세까지
많은 큰 스님들이 수행하신 도량
대한 불교 조계종 사찰
011)9413-0055

불상(佛像) 시주할 인연 구합니다
▶ 사정상 못 모시는 불상 탱화
▶ 인연공덕을 지으실 분 연락 주십시오
053)985-4675
018)512-5544

부전스님 · 지도스님 인연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불치병 치료, 마음 치료, 역학, 비구스님 입니다
017)628-3701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용암사◁
02)387-3216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월-금 주5일)
• 강사 : 염윤문 원장 (명학비해 외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신림동 약수사◁
02)877-7514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천일 지장기도 인연 도량 바랍니다
▷경북 경주시◁
054)748-5016

기도하시면서 공양주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54)532-0614

북한산 **솔잎기름** 신비의 묘약
PNO PINE NEEDLE OIL
▷ 솔잎에서 추출한 100% 원액
▷ 함경도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수집선별
▷ 솔잎1톤으로 600ml정유뿐에 추출하는 희귀의 묘약
▷ 심장강화 고혈압 및 혈관계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솔잎정유(PNO)효능
고혈압, 중풍, 정력증강, 노화방지, 당뇨병, 심장질환, 변비, 피부미용, 비만 위궤양, 소화기질환 기관지천식, 비염 치료 플레스테롤 저하
■특별 보급가 : 20만원 (카드결재 가능)
053)982-6778 / 018)512-5544

영예인 성공인 승진인 사찰관인 영웅인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 주문시 팩스로 성함과 원하시는 서체를 적어보내 주시면 7일이내 우송해드립니다
FAX:983-9223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30명에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사찰안내

명당 · 명터에 복과 인연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 자락에 해발 450m의 고찰터로서 한옥 40평 임법당, 심야전기 시공, 조립식 건물 20평 방 7개 널도
▷총 1,250평 1억 8천(하실 분 절충가)
011)272-6478

사찰 부지
▷가평군 북면 백득리 산 27번지 외 두필재
임야 : 17,500평
(준농 약 12,000평)
가액 : 8억 5천만원
▷홍천군 서면 모곡 인접
임야 ; 20,800평 (준농)
가액 : 9억
▷양평 서정 명달
토임 : 도필지 630평
가액 : 1억 3천만원
011)380-9168/011)229-1130

사찰터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 부지 : 350평, 법당 30평, 요사 40평
• 특징 : 뒤는 산세가 좋으며, 최고요지의 역사깊은 고찰임
• 가액 : 2억 3천만원
• 위치 : 충북 충주시 소재
• 부지 : 6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 특징 : 전통기도 도량이며, 전통사찰임
• 가액 : 1억 8천만원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 2층 건물, 대지 40평, 건평 40평, 1층 - 방3칸 현대식 2층 - 법당 1칸, 방 1칸, 입석부엌
• 가액 : 1억 천오백만원
053)561-7712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학생시험기도용 = 3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만평, 법당 15평
• 요사 25평 • 가액 15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 중개사
매입내 -
사찰부지 현 과수원 1,800평 평당 3만 8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1,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2,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14,500평 평당 2만 9천원
법장 및 사찰 부지 2,500평 평당 15만원
중문관광 단지입구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300 건물 130
법상 대지 225평 지하 15평 지상 28평 1억 3천
064)738-7497~8
011)697-7496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읍내
◆평수 : 종교부지500평, 대지110평
◆법당18평 (삼포집, 콘크리트 저) 요사채116평 ,그외 건물2동
◆가격 :3억 8천만원
055)852-8348

사 찰 안 내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 부 지 : 350평, 법당 30평, 요사 40평
• 법 당 : 50평(목조)
• 특징 : 뒤는 산세가 좋으며, 최고요지의 역사깊은 고찰임
• 가액 : 2억 3천만원
• 위 치 : 충북 충주시 소재
• 부 지 : 6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 법 당 : 30평(목조)
• 특 징 : 전통기도 도량이며, 전통사찰임
• 가 액 : 1억 8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
018)273-93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11평
• 요사 : 25평
• 부지 : 425(국)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안성
• 법당 : 15평
• 요사 : 15평
• 부지 : 420평
• 가액 : 2억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45평
• 부지 : 60평
• 가액 : 2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지리산 토굴 (황토방 신축) 안내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 방향 →가채마을 위
• 대지 : 422평 한옥건물 2채 탑 둘레 18m 석축 기초완공 밭 348평 임야 2583평 총3,35평
• 특징 : 경관수려, 지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약 600고지,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8천, 전세 1억
011)9542-9060/055)96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 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방 3개, 부엌,욕실 및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한빛은행맞은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법당 시설 일체, 방 3개) 후불탱화 53부처님, 관세음 보살, 칠성 탱화, 문수보살, 지장전
053)565-0430 / 016-875-0934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3천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내 165번지
• 평수 : 대지 500평, 법당 1개 요사채 2, 목조건물
• 가액 : 1억 3천
※ 주차장 공간 가능
055)834-32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미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2천 월 70만원
• 특징 : 시설 A급, 교통 요지
02)941-3195

사찰(급) 안내
• 위치 : 남해바다 (전남고흥)
• 부지 : 3330평 (종교부지 임야) 종교부지는 1천평 토목공사 완공
• 건평 : 16평 2동
• 특징 : 정동향 남해바다와 100m 근접, 암반수 절도량까지 차량출입가능, 기도도량 연수원 고시원 적지
• 가액 : 1억 8천만원 (답사상담 후 결정)
02)488-0077 / 011)9058-7000

녹차 밭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 전 600평, 산 3140평
• 토굴, 집터 가능 (산세수려)
• 녹차 밭이 조성되어 있음
• 자동차 길 있음
• 가액 : 절충
055)883-9321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 남구 산사
• 평수 : 대지 250평, 田150평
• 건물 : 법당 24평, 요사채 30평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 다량주차
• 가액 : 3억 3천만원
032-424-3324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인양
• 대지 :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
• 특징 : 사찰내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
• 가액 : 8천만원 (전세가능)
052)254-1929
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청 4거리
• 건물 : 임법당 법당 방3개 본존불 신중단
• 대지 : 67평 건물 30평 (한옥)
• 가액 : 1억 3천 (전세도 가능)
053)475-7504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시장 근처 (법원 앞)
• 대지 : 50평, 건평 46평 2층 법당(2층 위치) 요사채(1층 위치)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 8천
032)426-949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특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남골당불사주음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30분 거리)
• 대지 : 80평(실평수 100여평)
• 건평 : 임법당 28평, 부속건물 10평, 현대식 방 4칸
• 가액 : 5천만원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매 합니다)
절마당까지 차진입 가능
016)756-0108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불조성),후불,신중, 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 영가단법당 및 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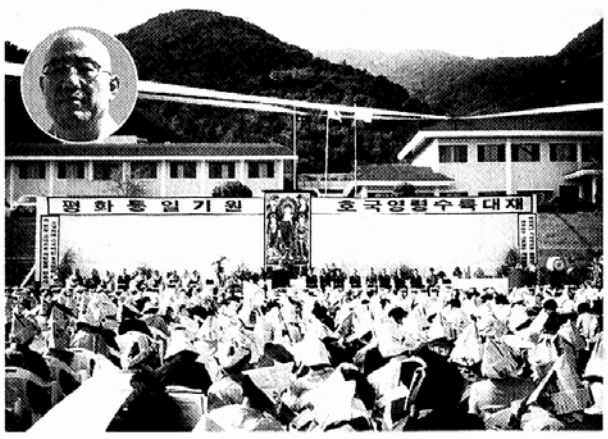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보문사 내
• 대지 : 인법당 15평 밭 7개 산신각 벽돌
• 부지 : 부교지 (사용허가 필)
• 가액 : 3,500만원
042)255-5063
011)498-6694

암자(급) 안내
• 위치 : 대구 갓바위 뒷길
• 요사채, 법당, 신축건물
• 평수 : 대지 80평,법당16평, 요사13평
• 특징 : 위치좋고, 조건좋고 (매매,전세,월세가능)
상담 후 결정
011)551-1998

"참선으로 맑은 심성 키워요"

하동 청소년수련원 개원…쌍계사 운영

2만평에 정신교육관 · 야영장등 갖춰



◇개원법회와 함께 열린 평화통일 기원법회에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을 비롯해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무대 뒤 수련원의 정신교육관과 생활관이 보인다. 원내는 묘유스님.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남 하동에 청소년들이 대자연과 대화하며 참선을 통해 맑은 심성을 키울 수 있는 초대형 포교 · 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다.

청소년 수련회와 참선 · 명상 수련 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경남지역 청소년 포교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하동청소년수련원(원장 묘유스님)은 11일 2만여평의 부지 위에 정신교육관(강의실), 생활관, 운동장, 야영장 등 10여개의 부대시설을 새롭게 단장, 개원법회 및 평화통일기원 법회를 가졌다.

이번에 개원한 이 수련관은 경남지역에 있는 7개의 민간 위탁 청소년 수련 시설중 최대 규모로서 지역 불교계가 운영하는 유일한 수련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94년부터 하동군이 건립 운영해 오던 이 수련관이 불교계에 위탁된 것은 지난 7월. 경영 관리에 대한 부담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를 느낀 하동군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한 것을 이 지방 교구본사인 쌍계사 본말사주지연합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샤워시설과 야영장, 운동 및 놀이기구 시설 확충 등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수련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 건물인 정신교육관에 전시실, 강당, 분임토의실 등을 갖추고 명사 초청 강의 및 법회, 세미나 등 청소년 포교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신 교육관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생활관 역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내에 22개의 방을 마련해 2백여명이 동시에 숙식하며 수련할 수 있다. 여기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까지 합치면 동시에 1천2백여명이 심신 수련을 할 수 있는 매머드급 수련시설이다.

이런 대규모 시설의 장점을 살려 대입학력고사가 끝나는 12월에는 하동지역 고3 수험생 200여명을 초청해 탈선 예방과 맑은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참선 명상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새해맞이 일출법회와 같은 대규모 문화행사도 개최할 예정인 이 수련원은 경남 지역의 재가 불자 교육을 위한 불교교양 대학도 열고 있다. 실제로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금오불교 교양대학'을 9월 18일부터 열어 현재 2백여명의 불자들이 불교 기초 교리를 비롯해 참선, 천수경 독송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신행을 익히고 있다.

하동 청소년수련원장 묘유스님은 "특정 종교에 치우침 없이 모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며 "수련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대장경 수호 만등불사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주지 보광)는 11~12일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팔만대장경이 고려말 강화도에서 판각돼 조선조 태조때 옮겨온 지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첫날 1만개의 연꽃등에 불을 켜는 만등점화, 보살계 법문, 영가천도 대령관욕 등이 열렸다. 또 12일에는 영가시식, 괘불봉안, 수계식, 회향법회 등 행사들이 이어졌다.

태고종

대각국사 탄신기념다례

대각국사 탄신 946주년 기념 다례법요식이 25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된다. 범종 타종으로 시작되는 다례식에는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원로 중진스님들과 지허 중앙선원장, 선암사 대중스님및 24기 합동득도수계 산림에 참가한 행자 등 1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대각국사 진영과 국사가 수했던 금란가사도 일반에 공개된다.

천태종

관문사 통일기원 법회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는 8일 4층 옥불보전에서 낙성 2주년 기념 민족화합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전두환 전 대통령,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민주당의원,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 내외 귀빈과 신도 5천여명이 동참했다.

진각종

스승강공 · 추념불사

진기 54년 추기 스승강공이 18~19일 양일간 서울 총인원에서 각해 총인 등 종단 산하 스승과 종립학교 정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강공에 이어 19일 오후 3시 총인원 대강당에서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를 봉행하며 오후 4시 30분부터 종의회 회의실에서는 제323회 정기종의회가 개회된다.

관음종

신곡맞이 전국순회 법회

2000년 신곡맞이 4중보은(四重報恩)을 위한 전국순회법회가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용승사 홍법사 만덕사 백운사 등 전국 15개 사찰에서 열린다. 이번 순회법회에는 홍파 총무원장 등 종단 간부스님들이 동참한다.

여래종

창종 13주년 기념법회

창종 13주년 및 대승불교정법원 33주년과 총본산 금강 대약사사 창건 5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17일 정오 충북 옥천군 등이면 대약사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대약사사 관내 관음암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도 함께 열린다.

(043)731-2261

화엄종

'화엄종 성전' 복간 봉정식

창종 34주년을 맞아 창종주 능해 월승 스님이 33년전 집필해 발간했던 〈화엄종 성전〉을 새롭게 단장해 복간, 2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약사사(주지 화응)에서 봉정식을 갖는다.

(032)422-2066

경주 남산 불교유적 새단장

폐사지등 13곳 발굴…사적지도 정비

신라시대의 각종 불교문화재가 산재한 '노천 박물관' 경주 남산이 새롭게 단장된다.

경주시는 최근 남산에 산재해 있는 폐탑, 불상, 사지(寺址) 등을 발굴, 복원하고 사적지 주변을 정비해 불교성지다운 원래의 모습을 재현하기위해 '남산 일원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경주시는 국비 등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지 3개소의 토지를 매입하고 폐탑, 폐사지 13개소를 발굴하며 산사태와 산불피해 지역 70㏊를 복구하고 문화재 순례길을 조성한다.

이번에 발굴되는 사지는 △천관사지 2,727평 △인용사지 2,871평 △양조암골 제3사지 1,270평 등 모두 3개 사지, 6,868평에 이른다. 또 국사골 제1절터 삼층석탑을 비롯 △큰지바위골 제4절터 상층석탑 △벌천용골 삼층석탑 △숙드듬골 삼층석탑 등 모두 13개소의 폐탑이 발굴, 복원된다.

사적 제311호이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2번지 일대 25.6㎢에 이르는 남산은 보물 13점, 사적 12개소 등 모두 418점의 성보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신라의 역사와 전설의 보고다. 하지만 남산은 그동안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입산과 탁본 등으로 상당수 문화유적이 훼손되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청룡사 감로탱 보물지정

경기 안성 청룡사 감로탱이 보물 제1320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13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감로탱은 가로 239.9×세로 200.0cm, 1폭 그림으로 조선 숙종 18년(1692) 작품이다.

화면 구성은 윗부분에 아미타삼존과 칠여래, 관음 · 지장보살과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넣었고, 속세의 여러 장면이 표현돼 있다.

특히 불 · 보살의 몸에 금니(金泥)를 넣어 다른 불화와 뚜렷이 구별되고 있으며, 중간부분 산과 수목의 표현은 당시 유행하던 일반회화 화풍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아래쪽 여러 풍속장면은 17세기 이후 풍속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어 회화사적 의의가 높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오종욱 기자



남미륵사 영산대재

전남 강진 남미륵사(주지 법흥)는 6일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천도를 위한 영산대재〈사진〉를 봉행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10월의 독립운동가

제주 방동화스님

제주보훈지청은 '10월의 독립운동가'로 1918년 일어난 무오년 중문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한 방동화(1887-1970) 스님을 선정했다.

3 · 1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전인 1918년 10월5~6일 법정사 스님과 신도, 주민들이 봉기한 법정사 항쟁은 그 해 6월쯤 경북 영일출신의 법정사 주지 김연일 스님과 경주 기림사에서 득도한 방동화 스님등 3인이 제주시 산천단에서 형제의 를 결의하면서 비롯됐다.

3 · 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투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제주항일항쟁의 시발점이 된 이 거사로 방동화 스님은 같은 해 11월6일 체포됐으며 이 항쟁으로 모두 66명이 목포검사지국으로 송치됐고 옥사 5명, 징역형 31명, 벌금형 15명, 불기소처분 18명 등 상당한 희생을 치뤘다. 정부는 1995년 광복절날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김재경 기자

실상사 생태마을 생긴다

농장 · 수련원등 지어 친환경농업 교육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생태마을을 지향하는 친환경농업교육장 기공식을 거행했다.

실상사 인근 지리산 자락에 구성될 생태산촌마을은 3,750평의 교육장부지와 3만평의 실상사농장(제1실습장), 4만평의 제2실습장에 법인출자금 4억원, 중 · 소농 고품질 사업비 2억5천만원, 교육장 정부보조금 3억원(자부담 20%) 등 총 9억5천만원을 들여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는 지역두레마을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올해 안에 강의동과 숙소, 생태화장실을 건립하고 2001년에 환경농업전시관 · 유기농하우스 · 지역발전센터, 2002년 식물클리닉 · 유기농과수원 · 주말농장 · 귀농자주택 · 유기농산물판매장, 2003년 생태체험학교 · 농업컨설팅센터 · 농산물가공실 · 그린음악실습장 · 황토방 · 도자기공예실 · 명상수련원, 2004년 환경농업전문대학 · 천적사육장 · 주민복지관 · 자연휴양촌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장 도법스님은 "이 기공식을 시작으로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교육, 귀농인들이 만드는 생태마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영농조합 또는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공개적으로 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분황사 원효예술제 성황

제5회 원효예술제가 9일 스님이 주로 주석했던 분황사에서 열렸다.

분황사(주지 종수)와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 · 불국사 주지) 주최로 열린 이날 예술제는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부 봉찬의식에 이어 2시간30여분동안 모전석탑 옆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장엄하게 펼쳐졌다.

김재경 기자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정리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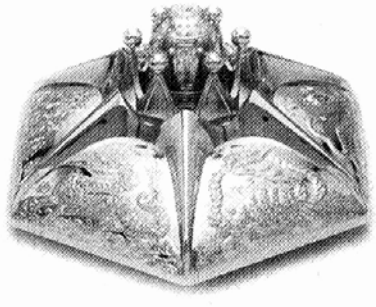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용(靑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 주지스님을 친견후에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사용처◆ 가정집,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공장: 051) 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통일발원 1000일 정진' 부부 7쌍 한마음 동참

서초동 정토회관 24시간 목탁소리

12일 저녁 10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토회관 3층 선실(禪室). 우렁찬 목탁소리와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간절한 음성이 밤공기를 가른다. 7평 남짓한 공간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목탁을 치는 사람.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허리를 구부리며 관음정근을 하는 다른 한 사람.

박남규(32)·허수진(27) 부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면 어김없이 이곳 정토회관 선실에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은 지난 3월1일 정토회, 우리는 선우 등 불교계 21개 단체가 모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발족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연대'의 '통일발원 1000일 정진'에 참여하고 있다.

1000일 정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400여명. 참여자 각각이 주중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별로 정진함으로써 24시간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 중에는 박남규·허수진 부부를 포함해 모두 7쌍의 부부가 있다. 이들 부부 역시 1000일 정진이 시작된 3월1일부터 지금까지 한 주에 한시간씩 정진을 계속해오고 있다. 9월16일 200일을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 온다.

"처음엔 망설였지요. 하지만 막상 마음을 내고 보니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많더군요. 함께 기도하니 부부사이도 좋아지고, 지나온 삶도 되돌아보게 되고, 통일의 주체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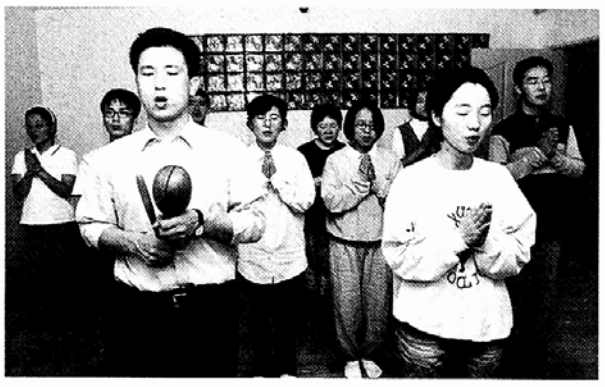
매주 화요일 새벽 5시부터 한 시간동안 정진을 하는 하재한(46)·최연주(45) 부부는 그 느낌을 이렇게 말한다.

법원 공무원인 이광희(41)·조경애(41) 부부는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정토회와 1000일 정진 홍보맨으로 유명하다. 회사원인 오현수(32)·양윤덕(31) 부부는 매주 화요일이면 직장에 편의복을 싸들고 출근한다. 정진을 하는 저녁 10시부터는 정장을 벗어 던지고 열린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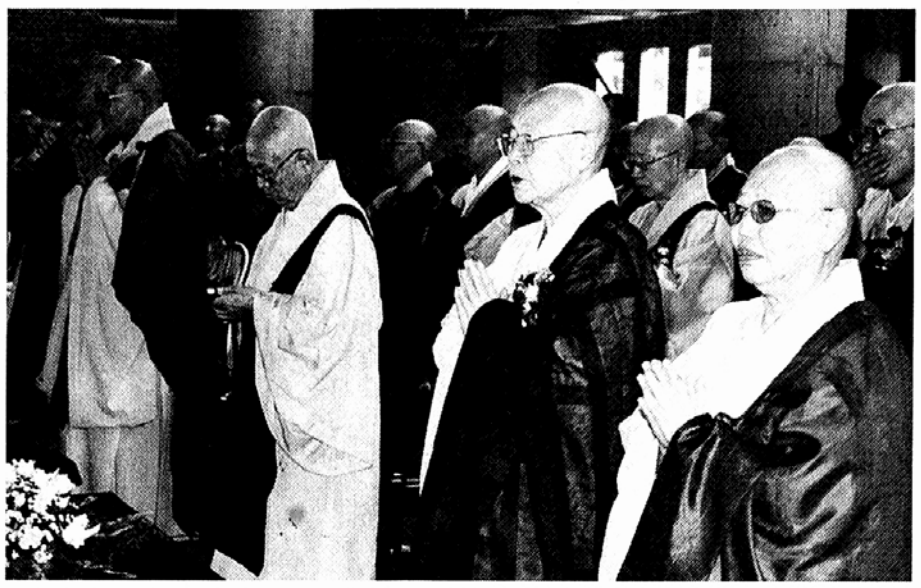
7쌍 부부 중 가장 고령자인 김기진(48)·마경숙(48) 부부는 큰 뜻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긍심을 느낀다. 정태호(46)·배상순(40) 부부는 정진을 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 부부들은 분명 통일을 염원하는 정진을 한다. 그러나 그 염원이 곧 자기와의 통일이요, 세상과의 통일이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임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박남규·허수진 부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한시간동안 정토회관에서 통일발원 정진을 한다. 지난 12일에는 정토회 청년불자들과 함께 정진을 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국 7천여 비구니스님들의 교육·포교등의 본거지가 될 비구니회관이 내년 6월 완공된다. 11일 열린 비구니회관 상량식에 참석한 일면, 법장, 석주, 광우, 대행 스님(앞줄 왼쪽부터)이 회관의 원만회향을 기원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관 '상량'

11일, 강남구 수서동에…사부대중 1천명 참석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11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 비구니회관 신축 현장에서 비구니회관 상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 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 수석부회장 진관스님,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 서강대 박광서 교수, 함종한 하순봉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부인 한인옥씨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석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비구니회관이 완성되면 만 생명들의 의지처로써 그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 혼탁한 세상을 어머니의 가슴으로 어루만져 주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원택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삼보정재의 청정한 관리와 공심으로 화합하는 정신이 없었다면 어려운 시기에 이 만큼이나마 불사를 진척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회관이 완공되면 우리 불교가 사회적 제역할을 담당하고 불교가 바로 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비구니회관은 내년 6월 말경 준공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신자유주의 반대 생명공동경제 옹호"

아셈민간포럼서 결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공동경제를 옹호한다."

조계종 사회부,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정토회 등 국내 17개 종교단체들은 19일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민간포럼에서 해외 종교단체들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국내 종교단체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를 포함한 17개 종교단체는 16~17일 ASEM개막(19일)을 앞두고 열린 민간포럼 종교분과회의에서 현재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콜로키움 2000선언'을 천명했다.

이들 종교NGO들은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만물의 삶을 가능케하며 평등과 포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인류와 더불어 창조를 돌볼 수 있는 경제를 희망한다"며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생명공동경제로 명명된 오이코노미아(고대 희랍어 oikonomia)즉, 생명중심 사상, 자연존중, 가난한 자에 대한 옹호와 정의추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생명공동경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외채와 세계화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NGO 합심 낙동강 생태복원"

지리산 살리기 토론회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낙동강 살리기와 지리산 댐 백지화를 위한 '지리산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석봉 경남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물관리 대책과 지리산댐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발제문을 통해 "낙동강 문화·생태공동체 복원을 위해 시민환경단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장일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지리산 문정댐 건설과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란 발제문을 통해 "정부는 대형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주민생존권을 침해하는 댐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

한겨레 상봉추진본부 공동이사장에 청화스님

내달부터 국내·외 이산가족 및 입양인들이 피 한방울로 헤어진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겨레상봉추진본부(공동이사장 청화스님·김상근 목사·함세웅 신부)는 9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이제는 123만 이산 1세대, 수십 만명에 달하는 미아·기아와 해외입양인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유전자(DNA)의 연쇄반복(Short Tandem Repeat·STR)조사법과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등을 통해 혈액을 추출한 모든 사람이 그리던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상봉추진본부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장 이정빈 교수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기술 및 시설 지원을 받아 11월 1일부터 가족상봉 희망자들의 혈액을 추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02)734-8202 김재경 기자

조계사, 21~29일 '문화 한마당'

창건 90주년…행사 다양

조계사(주지 지홍)가 창건 90주년을 기념해 27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등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제를 펼친다.

이번 문화제는 21일 오후 7시 대웅전 앞에서 조계사 합창단의 연주회를 시작으로, 22일에는 체육대회가, 23일부터는 문화교육관과 경내에서 '환경 사진전' '불교 서적 전시회' '일주문 사진전'이 각각 열린다.

또 24일에는 '간화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리며, 이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인사동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서울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해 진행되는 참선 시연, 연등 만들기, 바라춤, 발우공양 등이 회향 한마당으로 펼쳐진다. (02)720-1390

한명우 기자

"대형불사 관리감독 체계 수립"

재가연대 김회욱씨 주장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종단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재관람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종단재정구조를 점차 생산적, 사업적 활력을 통한 재정창출 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가연대 종회발전봉사단 김회욱 단장은 11일 '조계종 예산 살펴보기'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종단재정구조 변화와 관련, "유무형의 성보문화재, 토지 등 종단자산을 활용하는 문제와 종단의 신뢰를 높여 신도 참여를 극대화하는 종책사업 진행 등에 대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또 '불교회관 및 중앙승가대학 등 종단 기간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대중여론 수렴과 원력을 모으는 과정, 불사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법타스님 등 노동당 행사 참관

평불협 공동회장 법타스님과 사무총장 박준호씨, 사무국장 이지범씨 등 3명이 불교계 인사로 북한의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에 참관했다. 법타스님 등 3명은 10일 오후 북한이 보내온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북한의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등을 참관하고 14일 귀국했다.

이번 방북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단체대표 42명이 참여했다. 종교계에선 법타스님 일행을 비롯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김증수 신부,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가 방북했다. 남측 종교인 안내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황병준 부위원장이 맡았다.

한편 종단협의회는 9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초청에 대한 불참의 뜻을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 전했다. 이에 대해 조불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해외 파송포교사 16개단체 241명

문화부 '한국의 종교현황

불교계가 해외에 파송한 포교사는 16개 단체 241명인데 반해 개신교는 136개 단체 9,049명, 천주교는 58단체 5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포교사는 불교 2단체 32명, 개신교 34단체 445명, 천주교는 56단체 463명, 기타 종교 4단체 25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밝혀졌다. 〈한국의 종교현황〉에는 이 밖에도 종교별 교세 및 법인·단체의 현황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불교계는 등국대·위덕대·중앙승가대 등 3개의 종립대학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22배가 많은 66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주교는 11곳, 원불교는 4곳, 기타 2곳으로 조사됐다.

종교연구소는 불교 44곳, 개신교 28, 천주교 25곳이 있으며, 종립의료기관은 불교 8곳, 개신교 13곳, 천주교 34곳, 원불교 17곳, 기타 2곳으로 나타났다. 도필선 기자

부처님의 기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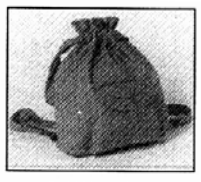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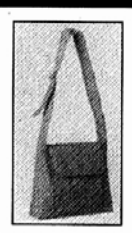
▲B-1001 ₩40.000



▲B-1002 ₩35.000



◀B-1003(大) ₩35.000



◀B-1004(大) ₩32.000

■방 거 지



<팔각>



<타원형>



<조리개, 끈>

▲B-1005 ₩20.000 ▲B-1006 ₩20.000 ▲B-1007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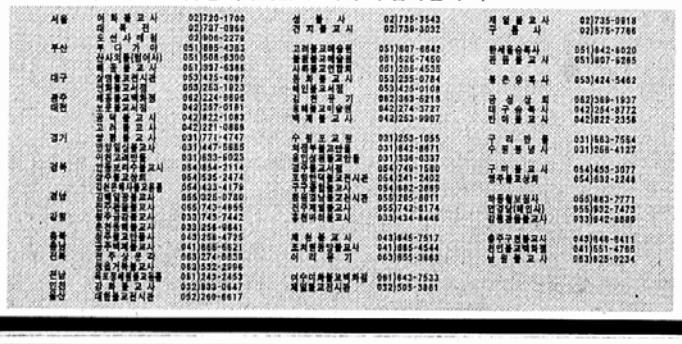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식 ☎(054)636-6546/632-6545

입금계좌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 협 : 061-17-001230
우 체 국 : 013805-01-001737
국 민 : 831-25-0022-019
예금주 : 주)천화 무역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죽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지상에 나툰 2층 극락



◇대부분의 중층 불전들이 임진왜란때 불타버려 단층으로 재건됐지만 무량사 극락전은 거대한 불상에 어울리게 2층으로 중창됐다.

무량사 극락전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35

신라시대 경주에는 "열 집에 한 집이 절이었으며, 높이 솟은 탑과 불전들이 마치 기러기 떼와 같았다"고 하고, 고려시대 개성에도 "두세 집 건너 하나는 2-3층의 건물이었다"고 했다. 왜 한국에는 다층 건물들이 없고 모두 납작한 집들만 있느냐는 물음들에 대한 대답이다.

신라와 고려시대, 심지어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도시는 물론이요, 산간 벽지에도 2-3층의 높은 대형 건물과 불전들이 흔하게 존재했었다. 황룡사 9층목탑은 80여m로 추정되어, 남아있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물이었을 정도로, 높이에 관한 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구 가운데 3층 불전은 금산사 미륵전이 유일하며, 2층 불전 역시 남북한 통틀어 5동에 불과하다. 그나마 법주사 대웅보전,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보전 등 충청과 호남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에는 평남 평성의 안국사 대웅전이 아직까지 보고된 유일한 예다. 굳이 높은 건물을 더 찾는다면, 3층목탑이었던 쌍봉사 대웅전과 5층목탑인 법주사 팔상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 이 정도로 적고, 충청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가? 임진왜란은 사상 최대의 국란이었음은 물론이지만, 불교계로서도 최악의 환란이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들이 왜적의 방화로 타버렸고, 수많은 스님들이 도살되었다. 그 원인은 5천이 넘는 승병들의 뛰어난 활약과 전과 때문이었다. 왜군들에게는 무력한 관군이나, 소수 게릴라인 일반 의병들보다 조직적이고 죽음을 각오한 승병들이 더욱 두려운 존재였고, 증오의 대상이었다. 전란의 와중에서 전국의 주요 사찰들은 예외없이 피해를 입었고, 그 주요 사찰들에 있었던 귀중한 2~3층의 중층 불전들이 우선적인 방화대상이었다.

문제는 전란 후의 복구 능력이었다. 승병들의 활약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조정에서도 불교의 중흥과 사찰 재건에 대해 묵인해주는 정책을 결정했지만, 불교계는 물론 그 주요 시주층인 백성들에게는 사찰 재건의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수도 서울이 전란 전의 상태로 복구되는데 1세기가 걸릴 정도로 피폐한 재정이었다. 하물며 지방의 이름없는 사찰들이야 오죽했을까?

7.2m 거대한 불상 봉안

상승감·장엄미 빼어나

부여 무량사 극락전도 전란으로 소실되었고, 이를 중창한 때는 전쟁이 끝나고 80년이 지난 1679년이었다. 이 시기가 되어야 겨우 여력이 생겼던 까닭이다. 단층건물에 비해 중층 건물은 규모가 커야 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한다. 그만큼 공사비도 급증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층 불전들은 임란 후에 단층으로 재건됐다. 해인사 대적광전도 원래는 2층 불전이었지만, 단층으로 간략히 재건되어 현재에 이른다. 보림사 대웅전은 아예 최근에야 재건되었다. 무량사 극락전이 원래의 2층 모습으로 중창된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사실이었다.

불전 건물은 그 자체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 〈묘법연화경〉에는 불전을 장엄하게 하고, 불탑을 만드는 것이 최대 공덕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 설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만 허용한다면 불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이 모두의 염원이었다.

중층 불전이 만들어진 이유는 또 있다. 집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크기 때문이다. 보통 큰 부처님을 장육상이라 부른다. 장육상이란 높이가 16척(4.8m)인 불상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불상을 지칭한다. 불대좌까지 합하면 장육상의 높이는 6m에 달하며, 이런 부처님을 모시자면 건물의 층고가 최소한 8m는 되어야 한다. 단층건물로는 불가능한 높이이다. 무량사 극락전 부처님은 7.2m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극락전 건물은 당연히 2층으로 구성해야 하고, 전면 5칸, 측면 4칸의 당당한 외관을 가지게 된다. 금산사 미륵전의 미륵입상은 높이 10m가 넘기 때문에 3층 건물이 되었다.

겉보기에는 2층이지만, 안은 위아래가 터진 높고 시원한 공간을 이룬다. 위층의 벽면은 모두 창문을 달아서 천창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부처님의 인자한 얼굴을 비춘다. 그 정도의 부처님에 꼭 알맞는 장엄한 건축공간이다.

무량사 극락전은 여러 중층불전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갖는다. 1층의 높이에 비해 2층의 층고가 낮게 만들어졌다. 얼핏 보면, 1층 지붕 위에 곧바로 2층 지붕이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1층 처마밑의 공포보다 2층의 공포가 더욱 크고 조밀하다. 따라서 극락전은 높이 솟아 오르는 상승감으로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된다. 무량사는 전체적으로 평평한 대지에 자리잡았다. 극락전도 평지에 세워졌고 기단도 낮다.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한 대지에 높이 솟은 극락전의 수직성은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마치 지상에 재현된 극락세계 처럼.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인/물/

불교 경전속에는 불보살을 비롯해 선재동자, 나한, 십대제자 등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우리 전통회화와 조각, 건축의 주인공으로, 또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으로 표현된다. 불상과 보살상, 동자상 등이 주로 조각이나 불화에서 표현되는 비해, 비천상과 주악상, 신장상 등은 사찰의 벽화나 탱화, 석탑, 범종 등 불교건축과 조형물에 장식 문양으로 새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인물문양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위해 조형화된 것들이다.

인물문양을 시작으로 불교건축과 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을 앞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상. 연화좌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공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 수호신"

비천상 허공날며 부처님 찬탄

주악상 악기 타며 불보살 장엄

신장상 탑·부도·탱화에 등장

■비천상

비천은 불교의 천국(天國)에서 허공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 찬탄하는 천인의 일종이다. 천의(天衣) 자락을 휘날리며 허공에 떠 있는 비천상은 도교 설화 속에 등장하는 선녀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비천의 조상(祖上)은 원래 오늘날 우리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고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건달바(乾闥婆), 긴나라(緊那羅)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

비천상은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석등, 부도, 불단, 또는 단청의 별지화(別枝畫) 등에도 나타난다.

■주악상

비천상과 마찬가지로 천인을 형상화한 주악인물상은 사리기와 범종, 탑과 부도를 비롯해 사찰 곳곳에 나타난다.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과 범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부처님과 고승대덕에 대한 장엄과 공양, 찬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의 삼층석탑의 주악상은 두광을 갖춘 보살의 모습으로 초층 몸돌 각면에 보살입상과 신장상을 2구씩 양각했고, 2층 몸돌 각 면에 주악상 2구씩을, 3층 몸돌 각면에 천인좌상 1구씩을 양각했다. 통도사 용화전 공포벽의 주악상은 구름위에서 피리를 연주하는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돼 있으며,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에는 서민 복장의 주악인물상이 조각돼 있다.

■신장상

신장의 종류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화엄신중을 비롯, 〈법화경〉의 영산회상 수호신장, 〈인왕호국반야경〉 〈대반야경〉 에 나타나는 호국 선신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범천, 제석천, 인왕, 사천왕, 팔부중, 십이신장 등이 널리 조성되어 왔다. 불탑이나 부도에 조각된 경우는 그 안에 봉안된 사리를 옹호하는 뜻이며, 사경의 변상도로 그려진 경우는 불경의 내용을 보호하는 뜻이다. 사찰문에 그려진 경우는 가람수호의 의미를 갖는 등 주로 호법의 의미를 지닌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주악상의 탁본.



◇통도사 금강계단 석등의 인물상.



◇통도사 용화전 공포벽의 주악상. 동자가 구름위에서 피리를 연주하고 있다.

마하몰 신상품 및 추천상품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MAHAMALL

16나한단주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재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고급나무 케이스 포함)

설악 인진쑥엑기스



● 상품소개
1. 설악마을 인진쑥엑기스는 강원도 산야에서 서식하는 인진쑥을 선별하여 엑기스를 추출한 제품입니다. 청정지역의 인진쑥만으로 추출한 원액에 구기자, 당귀, 작약, 대추, 황기백출, 숙지황등을 넣어 엑기스를 만들어 먹기 좋게 포장하였음.
2. 인진쑥엑기스는
- 강원도 설악산 일대 인진쑥으로 만듭니다.
- 한약재료를 첨가하여 맛이 순하고 좋습니다.
- 화학첨가제를 넣지 않은 순수 자연식품입니다.

● 상품 효능/효과
1. 인진쑥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황달이나 간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부인들의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을 때 민간요법으로 사용 되어 온 식물입니다.
2. 근래에 와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 그 약리 성분이 밝혀지고 있으며 9년에는 강원대 함승시 교수와 한림대 정차권 교수팀에서 인진쑥이 항암기능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설악 솔잎엑기스



● 상품소개
1. 설악 솔잎 엑기스는 강원도 설악산 일대의 솔잎을 선별하여 (도식품환경 연구원 검사) 엑기스를 추출한 제품입니다
2. 청정지역의 솔잎만으로 추출한 원액에 당귀천궁, 숙지황, 두충, 갈근, 대추등을 넣어서 만든 건강식품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직장인이나 공부하는 학생, 노인분들에게 좋습니다.
3. 설악 솔잎 엑기스는
- 강원도 설악산 일대 솔잎으로 만듭니다.
- 한약재료가 섞여 맛이 순하고 좋습니다.
- 화학첨가제를 넣지 않은 순수 자연식품입니다.

● 상품 효능/효과
1. 솔잎은 선인들의 식사라고 할 만큼,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고 예로부터 우리민족과 친숙한 재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약중의 상약이라고 할만큼 좋은 재료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기를 돕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2. 기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집중이 되지않거나, 체지방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할만한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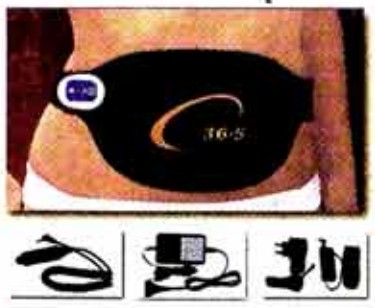
속초 다시마엑기스



● 상품소개
1. 속초다시마엑기스는 강원도 최북단 통일전망대 부근 해역에서 해녀와 잠수부들이 채취한 다시마로만 만듭니다.
2. 다시마의 비린상하는 맛을 없애고 먹기 좋게 만들어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마 원액 90%의 함량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 속초다시마 엑기스는
- 청정 동해바다에서 자생하는 순수 자연산 다시마로만 만듭니다.
- 맛이 역하지 않습니다.
- 화학첨가제를 넣지 않은 순수 자연식품입니다.

● 상품 효능/효과
- 다시마는 요오드 칼슘, 갑롭등 45종이나 되는 미네랄을 갖고 있으며 '막힌 것을 풀어주고 응어리진 것을 헤쳐주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산성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주며, 다당류라는 성분이 있어서대장의 운동을 도와주고 음식물을 청소하고 장의 연동을 도와 숙변을 몸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玉온열 건강벨트



● 상품설명
玉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피로, 휘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휘침, 필질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앓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본 상품 - 마하몰 입점 기념 특별 할인 판매

소비자가 : 105,000원 ⇨ 특별할인가 : 84,000원